

03 STORY & DRAMA

EBS 연계 벼락치기 핸드북

제3권

소설·극·수필

전체 줄거리와 인물의 선택을
수록 장면 앞뒤로 잇는 52작품

작품과 지문을 시험장에서 다시 꺼내는 법

김은광 수능국어

대치동 미래탐구 입시컨설턴트 8년차

ekkorean.com 수능국어 학원 운영

수능 국어는 작품과 지문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필요한 것은 장면의 앞뒤, 인물의 판단 기준, 개념 사이의 관계를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꺼내는 힘입니다.

이 핸드북은 9월 모의고사 직전에 그 판단 기준을 빠르게 되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설명은 필요한 만큼 풀어 쓰고, 다시 볼 때는 핵심과 함정을 곧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 책을 보는 순서

1. 전체 줄거리에서 수록 장면의 위치를 먼저 찾습니다.
2. 인물의 욕망과 판단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3. 마지막에는 관계도와 사건 순서 함정만 다시 읽습니다.



김은광수능국어

EK · EVIDENCE KOREAN

무료 특강·자료 공개 특방과 웹·앱에서 학습을 계속 이어가세요.



KAKAO OPEN CHAT
· 무료

무료 특강·자료 공개
특방

새 특강과 학습 자료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지금 QR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WEB
EKKOREAN.COM

무료 작품 학습과 수능 국어 훈련



APP STORE · 정식 출시



iPhone-iPad 앱

매일 OX, 기출, 오답 복습을
한곳에서



GOOGLE PLAY · 출시 준비
중



Android 테스트

정식 출시 전 테스트 참여 페이지

무료 특강·자료 공개 특방 · QR로 바로 입장하기



수능 파이널 시즌 · 3페이지 · 인지공학 국어

60일 국어 역전계획 파이널 커리큘럼

60

DAYS TO FINAL

같은 3단계 절차를 8주에 걸쳐 지문 단위 반복 → 영역 확장 → 실전 사이클로 굳힙니다. 각 페이지는 매일 학습 방향 점검을 공통으로 갑니다.

01 60일 파이널 커리큘럼, 3페이지로 완성합니다

세부 일정과 편성은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Phase 1 · 1~2주차

절차 장착

나누고·찾고·맞댄다를 지문 단위로 반복합니다.
헛임기가 어디서 나는지 로그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Phase 2 · 3~6주차

영역 확장

이 핸드북을 쓰는 구간

독서·문학·선택 영역별로 같은 절차를 적용합니다.
EBS 수능완성 연계를 근거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이
핸드북은 이 구간에서 씁니다.

Phase 3 · 7~8주차

실전 사이클

80분 실전 운영을 설계하고 모의 사이클을 돌립니다.
수능 직전 루틴까지 사이클로 굳힙니다. 100점을
노리다 시험지를 못 끝내는 것보다, 먼저 한 사이클을
완주합니다.

02 기억이 아니라, 절차

국어를 인지공학으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1 나누고

구역화 · 스키밍

통째로 읽지 않고 기능 단위로 나눠 표시합니다. 책의
'목차' 만들기.

2 찾고

근거 회수 · 스캐닝

기억을 뒤지지 않고 표시해 둔 자리로 곧장
돌아갑니다. 문장 '검색'.

3 맞댄다

선지 판정 · 문학 3층

선지를 사실·개념·(보기)로 나눠 근거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문학은 공감감이 아니라 판정입니다.

김과의 실제 수강 후기 발췌

3~4등급 진동 → 2등급 안정

상담과 진단

“처음 상담 전화부터 현재 제 국어 실력과 공부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주시고, 제 수준에 맞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상담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스캐닝과 성적 변화

“특히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아내는 스캐닝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고, 그 결과
이전에는 계속 진동하던 성적이 2등급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운영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고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와 지문에서 어떤
근거를 놓쳤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료와 앱 복습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앱을 통해 영상과 수업
자료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두신 점도
좋았습니다.”

정규반 80% 이상 수강 시, 6월 모의평가 대비 수능 국어 성적이 상승하지 않으면 수강료를 환급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식
랜덤에서 확인하세요.



김은광수능국어
EK · EVIDENCE KOREAN

1:1 FINAL CONSULT

내 공부 상태에 맞는
60일 계획부터 상담하세요.



수업 문의 · 카카오톡 채널
pf.kakao.com/_Aplfn

전체 계획 · ekkorean.com/60일-국어-역전

무료 특강은 특강·자료 공개용입니다. 수업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 주세요.



김은광수능국어
EK · EVIDENCE KOREAN

LIT 053

박태원 · 수록 · 164쪽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AA · 표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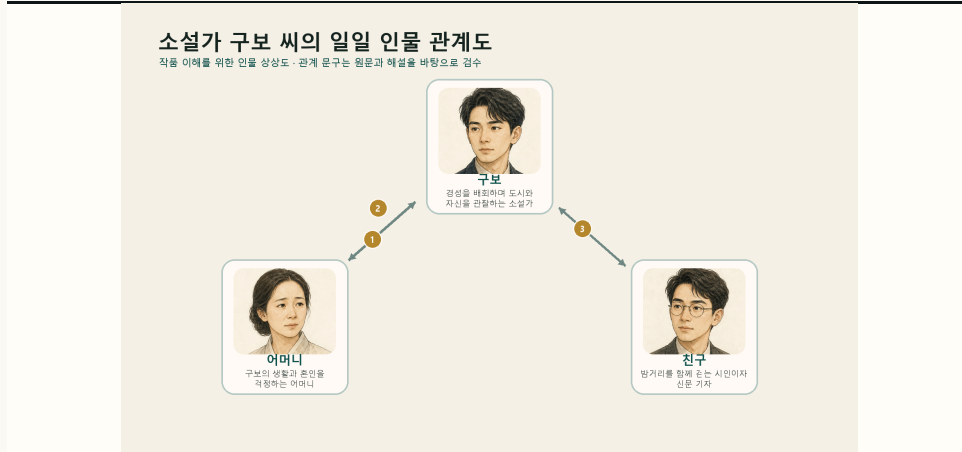
68

하루의 동선이 곧 내면의 기록이 된다

한 문장
핵심

1930년대 경성의 속물적 세태를 바라보며 고독과 무기력을 느끼는 식민지 지식인의 자의식과 성찰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어머니 → 구보: 생활과 혼인을 걱정 / 구보 → 어머니: 미안함과 연민, 귀가 결심 / 구보 ↔ 친구: 밤거리를 동행하며 고독을 나눔

욕망·판단·변화

구보

고독에서 벗어나 평범한 행복과 인간적 온정을 찾고 싶다. 돈과 과시보다 내면의 진실성과 창작의 가치를 앞세운다. 배회 끝에 어머니를 위해 생활과 창작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한다.

어머니

아들이 직업을 갖고 혼인해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아들의 재능보다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중시한다. 직접 변하지 않지만 구보의 귀가와 결심을 이끄는 정서적 중심이 된다.

친구

구보와 밤거리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눈다. 속물적 성취보다 예술과 우정을 소중히 여긴다. 구보의 고독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새벽녘 종로 네거리에서 헤어질 때까지 그의 걸을 함께한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집을 나서다 취업과 혼사를 걱정하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구보가 목적 없이 경성 거리로 나선다.	행복을 비껴가다 화신 상회의 젊은 부부를 부러워하고, 전차에서 과거 선을 본 여자를 보고도 아는 체하지 못한다.	군중 속 고독 경성역 삼등 대합실에서 냉담한 군중과 병든 사람들을 관찰하며 고독과 우울을 더 깊이 느낀다.	속물성과 마주치다 황금광 시대를 개탄하던 중 중학 동창을 만나 다방으로 가고, 그의 금전 과시와 속물성에 염증을 느낀다.	귀가를 결심하다 친구와 밤거리를 떠돈 뒤 어머니를 떠올리며 결혼과 창작, 생활을 다시 붙들겠다고 다짐하고 귀가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구보는 화신 상회에서 단란한 부부를 보고, 전차에서는 과거 선을 본 여자를 발견하고도 말을 걸지 못한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피하려 경성역으로 향한다.
수록 핵심	경성역 삼등 대합실의 냉담한 군중과 병든 사람들을 관찰한 뒤 황금광 시대를 비판한다. 이어 중학 동창과 다방에 가서 그의 금전 과시와 칼피스 권유에 불쾌감을 느낀다.
수록 후	다방에서 옛사랑을 떠올리고 친구와 밤거리를 걷는다. 새벽 귀가길에 어머니의 외로움을 생각하며 생활과 창작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는다.
핵심 소재	경성의 동선: 전차, 역, 다방, 술집의 이동이 구보의 의식 흐름을 이어 준다. 공책과 단장: 도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산책자이자 소설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공간과 의식** 공간이 바뀔 때마다 감각, 기억, 판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추적한다.
- 추정과 사실** 노파와 신사에 대한 설명은 구보의 추측이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 경성역 군중에 관한 서술은 전지적 서술자가 확인한 객관적 사실이다.** 구보의 시선과 추측에 밀착한 판단이므로 사실과 짐작을 나누어야 한다.
- 귀가로 구보의 고독과 현실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다.** 결말은 완결된 해결보다 생활과 창작을 향한 잠정적 태도 변화에 가깝다.

LIT 054

이정준 · 수완 · 52쪽

줄

69

줄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줄광대가 된다

AA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세속적 흥행과 타협하지 않고 예술의 경지에 이르려는 줄광대의 장인 정신과 그 비극적 전승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허 노인 → 문: 엄격한 수련과 장인 정신 전수 / 트럼펫 불던 사내 → 나(기자): 허 노인과 문의 생애를 증언 / 나(기자) → 트럼펫 불던 사내: 줄광대의 행적을 질문하고 기록

욕망·판단·변화

허 노인

줄타기의 법도와 몰입의 경지를 운에게 온전히 전하고 싶다. 관객의 환호보다 줄이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무아의 몰입을 중시한다. 자신의 쇠퇴를 깨닫고 운의 성취를 확인한 뒤 예술 정신을 넘겨준다.

운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사람들 앞에서 줄을 타고 싶다. 처음에는 기량과 무대를 바라보지만, 수련 뒤에는 외부 감각을 잊는 몰입을 배운다. 장인의 경지에 이르지만 사랑으로 마음이 흔들리면서 끝내 추락한다.

단장

관객의 환호를 얻어 서커스 흥행을 높이려 한다. 예술의 내적 경지보다 아슬아슬한 재주와 구경거리를 앞세운다. 허 노인의 예술관과 대립하는 세속적 기준을 끝까지 유지한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취재가 시작되다 신문 기자인 나는 C읍에서 트럼펫 불던 사내를 만나 허 노인과 아들 운의 이야기를 듣는다.	운을 단련하다 허 노인은 운에게 회초리를 들려 줄타기를 가르치고, 줄이 넓게 보인다는 말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흥행과 충돌하다 허 노인은 몰입을 중시하지만 단장은 관객을 놀라게 할 재주를 요구한다. 허 노인은 줄에서 처음 발을 헛디딘다.	경지를 전수하다 운이 외부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몰입했음을 확인한 허 노인은 줄광대의 법도를 전하고, 함께 줄에 올랐다가 떨어져 죽는다.	운도 추락하다 운은 한 여인을 사랑한 뒤 마음의 동요로 몰입을 잃고 줄에서 떨어져 죽는다. 사람들은 그가 승천했다고 믿는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신문 기자인 내가 줄광대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C읍으로 가서 트럼펫 불던 사내를 만난다. 사내의 이야기가 액자 안의 과거로 이어진다.
수록 핵심	허 노인이 운의 줄타기 경지를 시험하고, 단장과 흥행 방식을 두고 맞선다. 첫 실수 뒤 운의 몰입을 확인한 허 노인은 법도를 전수하고 함께 줄에 오른다.
수록 후	허 노인이 죽은 뒤 운은 줄광대의 길을 잊지만 사랑으로 마음이 흔들려 줄에서 떨어져 죽는다. 다음 날 기자는 이야기를 들려준 사내의 죽음을 전해 듣는다.
핵심 소재	줄: 기량을 넘어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예술의 길이자 운명의 자리다. 줄이 보이지 않음: 대상과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만큼 깊어진 몰입의 경지를 뜻한다.

예상 출제 추과 함정

1	액자 구성 현재의 취재와 과거의 줄광대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본다.
2	감각의 변화 줄의 보임과 소리의 들림이 운의 기량이 아니라 몰입의 단계와 연결됨을 파악한다.
3	허 노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운의 무대 데뷔를 막는다. 운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기 전 성급히 줄에 오르는 것을 막은 것이다.
4	단장의 요구는 허 노인의 기량을 더 깊게 만드는 예술적 조연이다. 관객의 자극과 흥행을 앞세운 요구로 허 노인의 예술관과 대립한다.

LIT 055

강경애 · 수록 · 160쪽

인간 문제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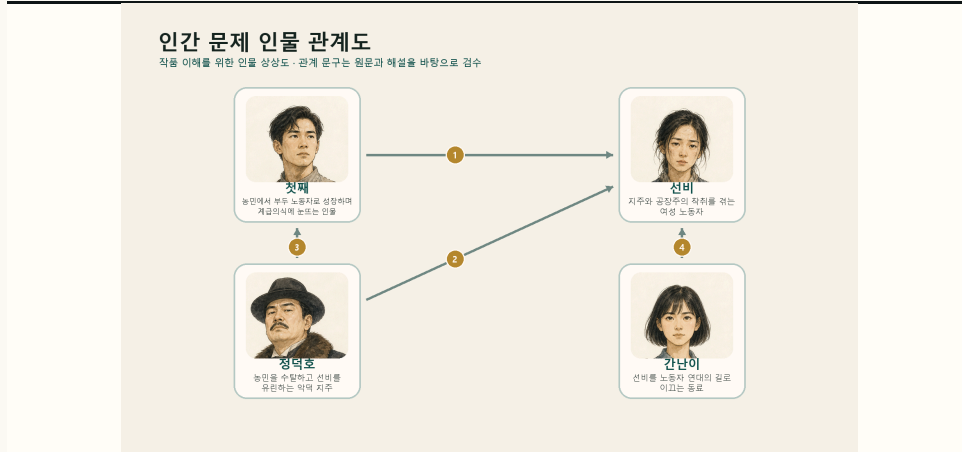
농촌의 수탈은 도시의 노동 착취로 이어진다

A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식민지 농촌과 도시 노동 현장의 착취를 고발하고, 억압받는 민중이 계급의식과 연대의 필요성을 깨닫는 과정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첫째 → 선비: 연모가 동지 의식으로 깊어짐 / 정덕호 → 선비: 경제적 착취와 성적 폭력 / 정덕호 → 첫째: 지주 권력으로 수탈하고 탄압 / 간난이 → 선비: 노동 운동과 연대를 권함

욕망·판단·변화

첫째

선비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에서 부당한 현실을 바꾸려는 뜻으로 나아간다. 개인의 생계보다 노동자의 연대와 공동의 저항을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된다. 가난한 농촌 청년에서 부두 노동 운동에 참여하는 각성한 노동자로 성장한다.

선비

수탈과 폭력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건디지만, 공장에서는 동료와 함께 저항하는 길을 택한다. 지주의 몸종에서 방적 공장 노동자로 옮겨 가며 연대에 눈뜨지만 병으로 숨진다.

정덕호

지주와 민장의 권력을 이용해 재산과 지위를 늘리려 한다. 농민의 삶보다 이익과 계산을 앞세운다. 길으로는 자애로운 어른을 연기하지만 끝까지 수탈자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용연마을의 수탈

악덕 지주 정덕호가 소작농을 수탈한다. 첫째는 선비를 연모하고, 부모를 잃은 선비는 덕호 집의 몸종이 된다.

전개

고향을 떠나다

덕호가 선비를 유린하고 첫째는 수탈에 맞서다 잡힌다. 풀려난 첫째와 덕호 집을 탈출한 선비는 각자 마을을 떠난다.

위기

노동자가 되다

인천에 간 첫째는 유신철을 만나 부두 노동자로 각성하고, 선비는 간난이와 방적 공장 여공이 되어 가혹한 노동을 겪는다.

절정

신념과 삶이 꺾인다

유신철은 체포 뒤 전향하고, 선비는 노동 착취에 맞서다가 폐결핵이 악화되어 해고된 뒤 숨진다.

결말

인간 문제를 깨닫다

첫째는 선비의 주검 앞에서 개인의 불행은 만든 사회 구조가 자신이 풀어야 할 근본적인 인간 문제임을 깨닫는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마당질 뒤 풍년을 기대한 농민들 앞에서 정덕호는 빚과 장리쌀, 비웃음을 즉시 회계해 개똥이네 수확을 빼앗는다. 첫째는 입도 차압으로 몰락한 농민의 과거를 떠올린다.

수록 핵심

개똥이 항의하자 첫째와 농민들이 벼집을 내리며 맞서지만 순사가 와서 이들을 잡아간다. 다음 날 개똥 어머니가 덕호에게 아들의 석방을 애원한다.

수록 후

덕호는 자애로운 어른처럼 주재소에 가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눈이 오기 전 타작을 끝내고 쌀값이 오르기 전에 빚을 정리하려는 계산에서 움직인다.

핵심 소재

벼집: 농민의 노동 결실이지만 회계가 시작되는 순간 지주의 몫으로 넘어간다. 입도 차압: 수확 전 벼를 압류해 농민을 빚과 유랑으로 몰아넣는 제도적 수탈이다.

예상 출제 추과 합정

1

계급 관계 덕호와 소작농의 관계를 개인 다툼이 아니라 지주제와 식민 권력의 수탈 구조로 읽는다.

2

결과 속 개똥 어머니 앞에서 한 덕호의 말과 그 뒤에 제시되는 속셈을 대조한다.

3

덕호는 농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고 주재소에 가기로 한다. 석방 결정의 밑바탕에는 타작과 곡가를 계산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4

수록 장면의 갈등은 개똥이와 첫째의 성격 차이에서 생긴다. 지주가 빚과 제도를 이용해 소작농의 수확을 빼앗는 구조적 갈등이 핵심이다.

LIT 056

채만식 · 수록 · 173쪽

치숙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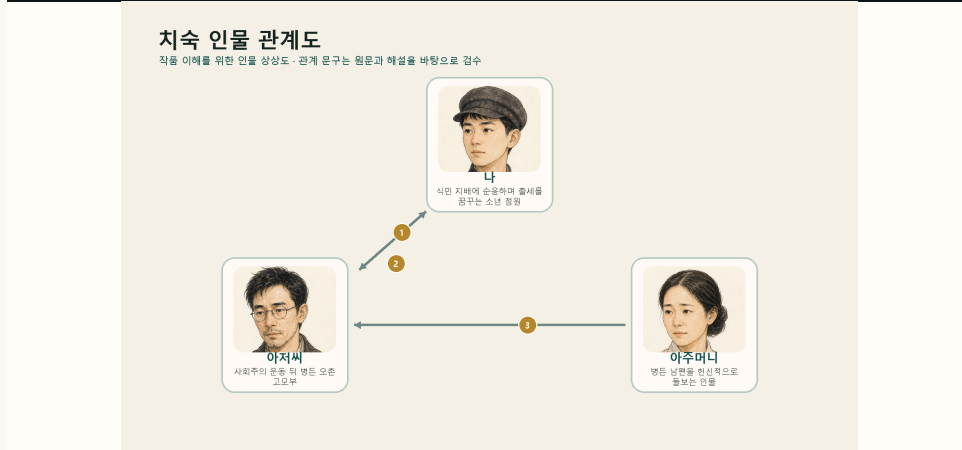
누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가

A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친일적 출세를 꿈꾸는 소시민과 현실 생활에 무책임한 지식인을 함께 비판하는 이중 풍자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나 → 아저씨: 무능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웃음 / 아저씨 → 나: 친일적 출세관과 자기 상실을 비판 / 아주머니 → 아저씨: 생계를 꾸리며 병든 남편을 간호

욕망·판단·변화

나

일본인 주인의 신용을 얻고 돈을 모아 일본식으로 출세하고 싶다. 민족과 개성보다 돈, 신분 상승, 지배 체제에 대한 순응을 앞세운다. 끝까지 자신을 반성하지 않아 말할수록 무지와 속물성이 드러난다.

아저씨

사회주의 신념을 지키고 병이 나오면 운동을 계속하려 한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구조와 역사적 흐름을 중시한다. 현실 인식은 날카롭지만 아주머니에게 생계를 맡긴 채 책임을 피하는 한계를 보인다.

아주머니

병든 남편을 살피며 가족의 생활을 지키려 한다. 헌신과 인내를 생활의 의무처럼 받아들인다. 두 남자의 논쟁 밖에서 실제 생계와 간호를 감당하며 작품의 현실적 무게를 드러낸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두 인물을 세우다

일본인 상점에서 일하는 나는 사회주의 운동 뒤 옥살이하고 폐병을 앓는 오촌 고모부 아저씨를 못마땅해한다.

전개

가치관이 맞서다

나는 가난한 아저씨를 비난하고 사회주의를 부랑당과 같다고 깎아내린다. 아저씨는 나의 무지와 친일적 태도를 비판한다.

위기

세상 물정을 논하다

나는 십만 원을 모으겠다고 장담하고, 아저씨는 세상 물정이 개인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라고 반박한다.

절정

실천의 한계를 보이다

내가 아주머니를 위해 생계 활동이라도 하라고 하자 아저씨는 꾀변과 바쁘다는 핑계로 책임을 피한다.

결말

저주로 끝나다

나는 끝내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아저씨가 빨리 죽는 편이 아주머니와 세상에 낫다고 독백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나는 일본인이 주인인 가게의 점원으로 성실히 일한다. 정성스러운 간호로 병세가 호전됐는데도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아저씨를 못마땅히 여긴다.
수록 핵심	아저씨는 일본식 이름과 생활을 택하려는 나를 비판한다. 두 사람은 세상 물정과 나폴레옹을 두고 논쟁하고, 나는 아주머니를 위해 일하라고 아저씨를 몰아붙인다.
수록 후	EBS 수록 지문이 내가 아저씨의 죽음을 바라는 마지막 독백까지 담고 있어, 지문 뒤에 이어지는 별도의 사건은 없다.
핵심 소재	세상 물정: 개인의 처세로 통제할 수 있다는 나와 사회의 큰 흐름으로 보는 아저씨의 인식 차이를 드러낸다. 나폴레옹: 성공 신화만 믿는 나의 얕은 지식을 아저씨가 반박하는 사례다.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1 **신빙성 없는 화자** 나의 평가와 작가의 비판이 일치하지 않음을 전제로 화자의 말과 행동을 읽는다.
- 2 **이중 풍자** 친일적 출세주의가 주된 비판 대상이지만 아저씨의 생활 무능과 무책임도 함께 드러난다.
- 3 **화자 나는 작가의 생각을 정확히 대변한다.** 나는 신빙성 없는 화자로, 그의 판단을 거꾸로 읽어야 풍자의 방향이 보인다.
- 4 **아저씨는 옳은 이념을 지녔으므로 비판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사회 인식과 별개로 가족의 생계를 외면하는 무책임과 실천력 부족도 비판받는다.

LIT 057

이기영 · 수록 · 330쪽

고향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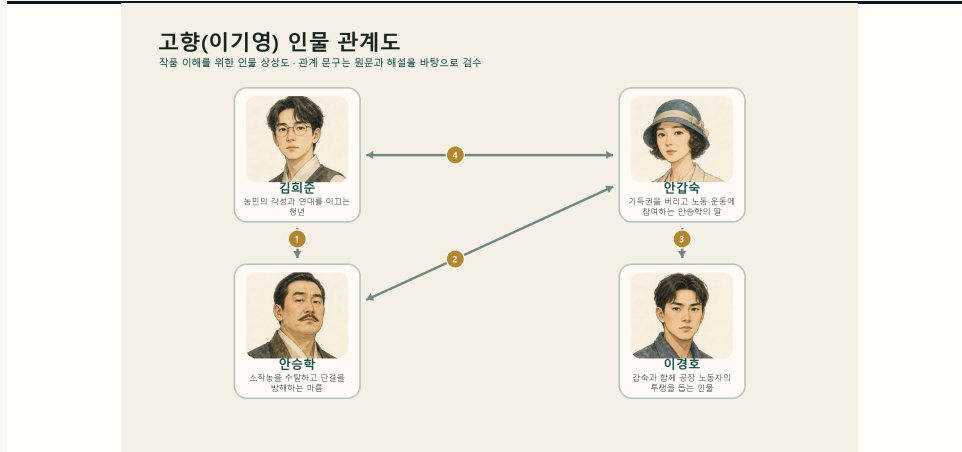
큰물이 무너뜨린 마을에서 두레가 다시 사람을 묶는다

A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식민지 농촌의 빈곤과 계급 수탈을 고발하고, 농민의 단결이 노동자 연대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 줌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김희준 ↔ 안승학: 소작료와 농민 조직을 두고 대립 / 안승학 ↔ 안갑숙: 부녀 관계이자 계급적 대립 / 안갑숙 ↔ 이경호: 애정과 노동 운동의 연대 / 김희준 ↔ 안갑숙: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의 연대

욕망·판단·변화

김희준

농민이 스스로 현실을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수탈에 맞서게 하려 한다. 위에서 가르치는 계몽보다 함께 일하며 만드는 신뢰와 자발적 단결을 중시한다. 관념적 지식인에서 농민과 농동을 나누는 실천적 조직자로 성장한다.

안승학

마름의 지위와 재산, 마을에 대한 통제력을 지키려 한다. 근대 제도와 정보를 사익과 수탈에 이용한다. 농민의 단결과 지주의 불신, 딸의 저항에 부딪치며 지배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안갑숙

아버지의 기득권과 정략결혼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함께 살고자 한다. 신분의 안락함보다 노동 현장의 연대와 인간적 권리를 앞세운다. 마름의 딸에서 옥화라는 이름의 공장 노동자로 바뀌어 정의에 참여한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희준이 귀향하다

일본 유학을 마친 김희준은 윈터 마을의 폐쇄한 현실을 보고 야학을 열어 농민 계몽에 나선다.

전개

두레를 조직하다

희준은 직접 소작농이 되어 농민과 함께 일하고, 안승학의 방해 속에서도 두레를 조직해 단결의 바탕을 만든다.

위기

수해와 이탈

갑숙은 부친의 정략결혼 강요를 거부하고 공장 노동자가 된다. 윈터 마을에는 큰물이 들어 농작물과 집이 무너진다.

절정

소작 쟁의가 번지다

소작인들이 지주와 소작료 감면을 담판하자 안승학은 밀정을 두고 대응한다. 갑숙은 공장에서 노동 쟁의를 이끈다.

결말

연대로 나아가다

희준과 농민들은 타작관의 간평에 조직적으로 맞서 소작료 인하를 끌어내고, 공장 노동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연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김희준은 귀향 뒤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소작농이 되어 야학과 두레를 조직한다. 농민들이 함께 일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의 바탕이 마련된다.
수록 핵심	큰물로 내독과 농작물이 무너지자 희준은 두렛꾼으로 이재민을 돕는다. 소작료 감면 요구가 거절되자 농민들은 안승학 몰래 지주와 담판한다. 뒤늦게 이를 안 안승학은 밀정을 두고, 전화로 농민들의 계획을 막을 궁리를 한다.
수록 후	지주가 보낸 타작관이 윈터 마을에 오지만 희준과 소작인들은 간평과 수확에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단결된 투쟁은 소작료 인하로 이어진다.
핵심 소재	두레: 공동 노동을 넘어 재난 구호와 소작 쟁의를 가능하게 하는 농민 조직으로 확장된다. 큰물: 농민의 삶을 파괴하지만 수탈 구조를 자각하고 단결하게 하는 서사적 계기가 된다.

예상 출제 축과 합정

- 재난과 수탈** 큰물 자체의 피해와 그 뒤에도 계속되는 마름·지주의 수탈을 구별해 읽는다.
- 공동체의 변화** 두레가 단순한 품앗이에서 구호와 쟁의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바뀌는 과정을 본다.
- 큰물은 농민의 단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능만 한다.** 삶을 파괴하는 재난이면서 농민이 구호와 소작 쟁의로 결속하는 계기도 된다.
- 안승학은 농민을 대신해 지주에게 소작료 감면을 적극 요구한다.** 그는 마름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민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방해한다.

LIT 058

최인호 · 수완 · 246쪽

견습 환자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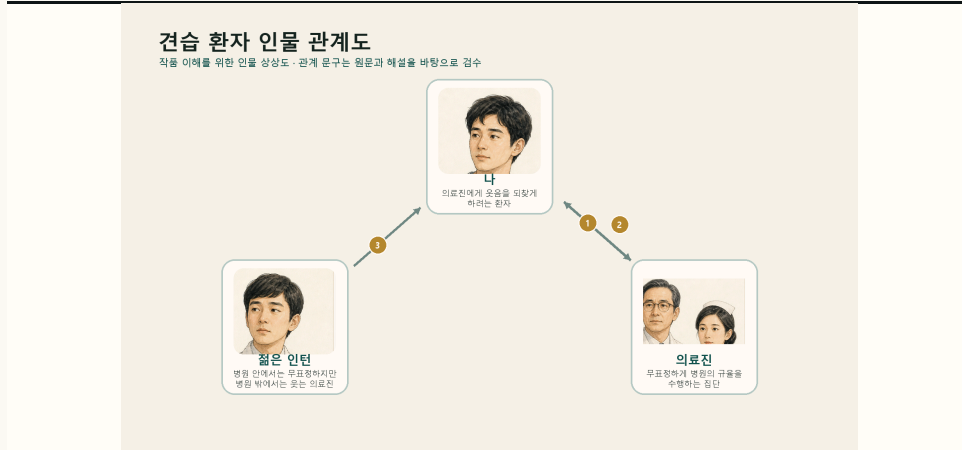
병원을 나온 뒤에도 규율은 끝나지 않는다

A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사람을 획일적인 환자로 길들이는 병원 체계를 비판하고, 웃음을 잃은 의료진과 규율에 순응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성찰함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나 → 의료진: 웃기려 하며 관찰과 진단을 시도 / 의료진 → 나: 치료 절차와 병원 규율로 통제 / 젊은 인턴 → 나: 병원 밖의 미소로 퇴원을 실감하게 함

욕망·판단·변화

나

무표정한 의료진을 웃게 해 인간적인 소통을 회복하고 싶다. 웃음이 사라진 상태를 치료가 필요한 결핍으로 본다. 모범 환자에서 의료진을 관찰하고 진단하는 주체로 바뀌지만, 체계의 견고함을 확인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의료진

병원의 치료 절차와 규칙을 빈틈없이 수행한다. 환자의 개별 사정보다 기능과 질서, 전문적 권위를 앞세운다. 나의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아 병원 체계의 견고함을 보여 준다.

젊은 인턴

병원 안에서는 의료진의 규범에 맞게 행동한다. 병원 안에서는 무표정한 전문성을 유지한다. 병원 밖에서 여인과 콜라를 마시며 웃는 모습으로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전체 즐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입원하다

나는 습성 늑막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다.

전개

환자로 길들다

환자복과 문패, 차가운 진료를 겪으며 환자임을 실감하고 병원의 규칙에 따르는 모범 환자가 된다.

위기

의료진을 관찰하다

무표정한 의료진에게 웃음이 없음을 깨닫고, 환자인 자신이 오히려 그들을 진단하고 웃기려 한다.

절정

문패를 바꾸다

웃기기 시도가 실패하자 퇴원 전날 밤 병동의 문패를 모조리 바꾸지만, 다음 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다.

결말

다른 규율로 돌아가다

퇴원 길에 병원 밖에서 웃는 젊은 인턴을 본다. 나는 통행금지, 신호등, 시민중이 지배하는 일상으로 복귀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나는 습성 늑막염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한다.

수록 핵심 환자복과 문패, 차가운 진료 속에서 환자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규칙에 길든다. 이후 웃음을 잃은 의료진을 관찰하고 그들을 웃기려 하지만 실패한다.

수록 후 퇴원 전날 모든 병동의 문패를 바꾸지만 다음 날 원상 복구된다. 퇴원 길에 병원 밖에서 웃는 인턴을 보고, 다시 사회의 규율 속으로 돌아간다.

핵심 소재 환자복과 문패: 개인의 이름과 삶을 지우고 관리되는 환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 금붕어: 제한된 공간과 정해진 시간표에 길든 환자의 안온하고 수동적인 삶을 비유한다.

예상 출제 추과 함정

1

환자 정체성 환자복, 문패, 치료 절차가 나의 자아 인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본다.

2

관계의 역전 치료받는 환자가 의료진의 웃음 부채를 진단하며 관찰 주체가 되는 장면을 파악한다.

3

나는 1병동과 2병동의 문패만 맞바꾼다. 퇴원 전날 밤 병동을 돌며 문패를 모조리 바꾸지만 다음 날 모두 복구된다.

4

젊은 인턴은 병원 안에서 나와 함께 웃음을 되찾는다. 병원 안에서는 웃지 않고, 퇴원 길에 병원 밖에서 웃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LIT 059

문순태 · 수록 · 16쪽

징 소리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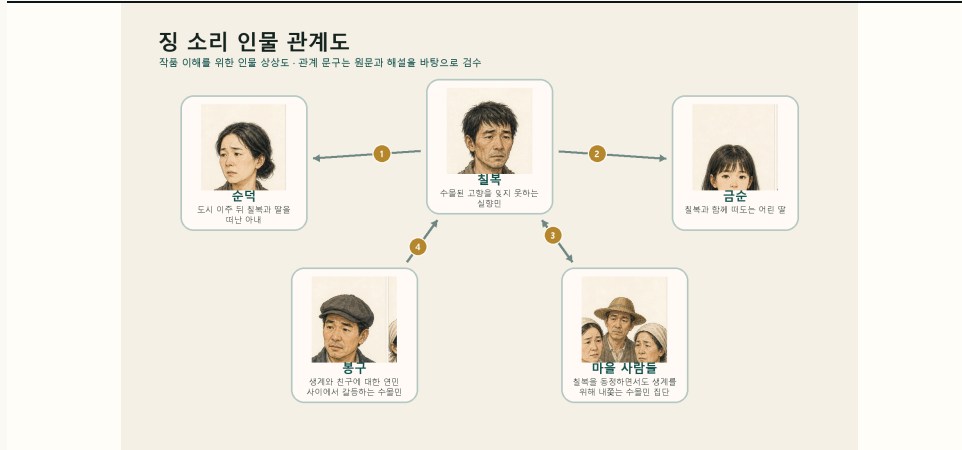
고향을 되찾으려는 징소리가 이웃의 생계를 혼든다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의 한과, 생존 경쟁 속에서 무너지는 농촌 공동체의 비극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징소리 → 순덕: 가출한 아내를 찾아 유랑 / 징소리 → 금순: 딸을 보살피며 함께 떠돌 / 징소리 ↔ 마을 사람들: 고향 귀환과 생계 문제로 충돌 / 봉구 → 징소리: 추방에 가담하지만 연민과 죄책감을 느낀

욕망·판단·변화

징소리

수몰된 방울재의 공동체와 떠난 아내를 되찾고 싶다. 도시의 생계보다 고향의 정과 징소리에 담긴 기억을 삶의 중심에 둔다. 도시와 가족을 잃고 고향에 돌아오지만 옛 이웃에게 다시 추방당한다.

봉구

가족의 생계를 지키면서도 고향 친구 징소리를 외면하고 싶지 않다. 당장의 밥벌이와 친구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판단한다. 추방에 가담한 뒤 옷과 여비를 건네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을 사람들

남시꾼을 상대로 한 장사를 지켜 살아남으려 한다. 옛 이웃의 고통보다 공동체 전체의 당장 생계를 앞세운다. 징소를 내쫓은 뒤 자신들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었다는 괴로움을 겪는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고향에 돌아오다

댐 건설로 고향이 수몰된 뒤, 징소는 방울재로 돌아와 호숫가에서 정을 치며 남시꾼들과 갈등을 빚는다.

전개

가족이 흔들리다

수몰된 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광주에서 고단하게 살던 징소는, 품팔이를 마치고 돌아와 아내 순덕의 외도를 직접 목격한다.

위기

징을 들고 헤매다

순덕이 집을 떠나자 징소는 딸 금순을 업고 아내를 찾아 헤매다. 돈을 모두 잃은 그는 징 하나만 든 채 고향으로 돌아온다.

절정

옛 이웃이 내쫓다

징소의 징소리 때문에 남시꾼이 줄자 매운탕 장사로 사는 마을 사람들은 그를 헌 버스에 태워 강제로 떠나보낸다.

결말

징소리가 남다

그날 밤 봉구와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빗소리 사이에서 징소의 울음 같은 징소리를 듣는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1973년 완공된 장성댐으로 방울재가 수몰된다. 징소는 수몰된 집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순덕의 뜻에 따라 광주로 이주하지만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수록 핵심	아내를 찾아 떠돌다 가진 것을 다 잃은 징소가 딸 금순과 호숫가로 돌아온다. 징소리로 남시꾼이 줄자 옛 이웃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징소를 버스에 태워 쫓아낸다.
수록 후	작품의 결말까지 수록된다. 마을 사람들은 친구를 내쫓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비바람 속에서 징소의 울음처럼 들리는 징소리를 떠올린다.

핵심 소재 징과 징소리: 징소리에겐 수몰된 고향과 소통하는 소리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소음이자 죄책감의 환청이다. 호수: 남시꾼에게는 여가 공간이지만 수몰민에게는 잃어버린 고향 위에서 생계를 이어야 하는 비극의 자리다.

예상 출제 축과 합정

- 징소리의 양면** 고향의 기억과 한을 되살리는 소리이면서 수몰민의 생계를 혼드는 소리라는 두 기능을 함께 본다.
- 피해자와 가해자** 마을 사람들도 개발의 피해자지만 생존을 위해 징소를 내쫓는 가해자가 되는 역설을 파악한다.
- 징소는 수몰 보상금을 받은 뒤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다.** 수몰된 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도시로 이주하고, 생계와 가족까지 잃는다.
- 마을 사람들은 징소를 미워해 아무 갈등 없이 내쫓는다.** 생계 때문에 추방하지만 연민과 죄책감에 시달린다.

LIT 060

현진건 · 수록 · 41쪽

고향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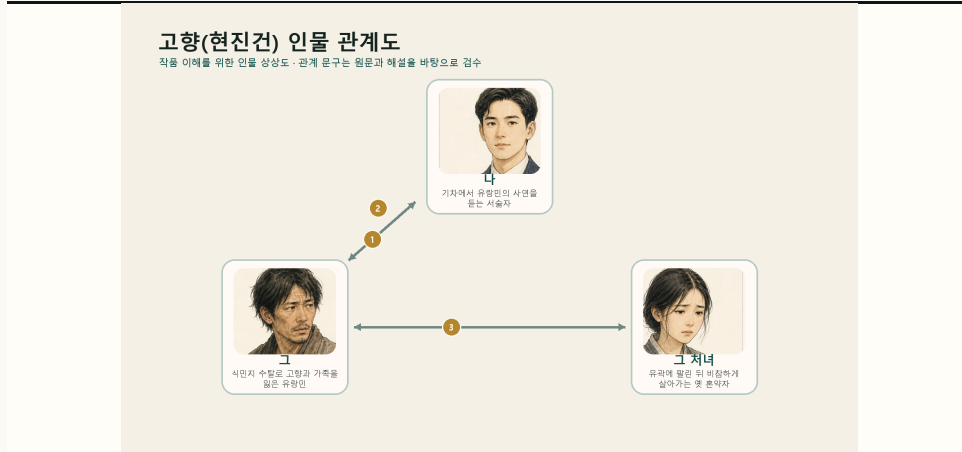
한 사람의 얼굴에서 식민지 조선의 상처가 보인다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일제의 토지 수탈로 고향과 가족을 잃고 떠도는 식민지 민중의 비참한 삶과 이에 대한 연민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그 → 나: 유랑과 고향 상실의 사연을 들려줌 / 나 → 그: 냉담함에서 연민과 공감으로 바뀜 / 그 ↔ 그 처녀: 옛 혼약자이자 같은 수탈의 피해자

욕망·판단·변화

그

고향에서 가족과 농사짓고 옛 혼약자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수탈과 가난이 삶의 선택을 빼앗아 여러 지역의 노동 현장에 떠돌게 한다. 가족과 고향을 잃은 유랑민이 되어 자신의 사연으로 조선 민중의 고통을 대변한다.

나

처음에는 조용히 기차 여행을 하고 싶어 그와 거리를 둔다. 겉모습과 행동으로 그를 판단하다가 실제 삶의 사연을 기준으로 태도를 바꾼다. 냉담한 관찰자에서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주체로 변한다.

그 처녀

그와 혼인해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가난 속에서 자신의 뜻보다 가족의 결정과 생존에 내몰린다. 유곽에 팔려 병든 뒤 일본인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살아간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기차에서 만나다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에서 나는 한국, 중국, 일본 옷이 섞인 차림의 그를 보고 처음에는 거리를 둔다.

전개

사연을 듣다

그가 서울에 막별이를 구하러 가는 유랑민임을 알게 된 나는 미안함과 동정을 느끼고 고향 이야기를 듣는다.

위기

고향을 빼앗기다

그의 가족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수탈로 땅을 잃고 서간도로 이주한다. 부모가 죽자 그는 중국과 일본을 떠돈다.

절정

폐허로 돌아오다

9년 만에 찾은 고향이 폐동이 된 것을 확인한다. 돌아오는 길에 들른 읍내에서는 유곽에 팔렸다가 병든 채 일본인 집에서 일하는 옛 혼약자와 재회한다.

결말

조선의 얼굴을 보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서 나는 조선 민중의 고통을 보고, 함께 정중을 마시며 슬픔과 연민을 나눈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작품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시작한다. 나는 처음 보는 그의 기이한 옷차림과 거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수록 핵심 그가 동척의 토지 수탈, 서간도로 이주, 부모의 죽음, 중국과 일본에서의 노동, 폐허가 된 고향과 옛 혼약자의 비극을 차례로 들려준다.

수록 후 나는 이야기 중간부터 그의 슬픈 고백을 들으며 정중을 나누기 시작한다. 이야기 끝에는 남은 술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한뼘병을 마저 비우고, 그는 식민지 조선 민중의 비참한 현실 전반을 풍자하는 노래를 읊조린다.

핵심 소재 삼국의 옷차림: 개화의 상징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떠돌아야 했던 식민지 유랑의 흔적이다. 기차: 서로 다른 삶과 계층이 잠시 마주쳐 식민지 현실을 증언하는 공간이다.

예상 출제 추과 함정

1

태도 변화 내가 그의 겉모습을 경계하다가 사연을 들은 뒤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는 과정을 본다.

2

액자 구조 기차 안의 외부 이야기 속에 그의 고향 상실과 유랑을 담은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다.

3

서술자 나는 토지를 빼앗기고 서간도로 이주한 사건의 당사자다. 수탈과 유랑을 겪은 인물은 그이며, 나는 기차에서 그의 사연을 듣는 관찰자다.

4

삼국의 옷차림은 새로운 문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던 개화 의지를 뜻한다. 중국과 일본을 떠돈 유랑의 이력과 정체성 상실을 드러낸다.

LIT 061

박경리 · 수록 · 181쪽

불신 시대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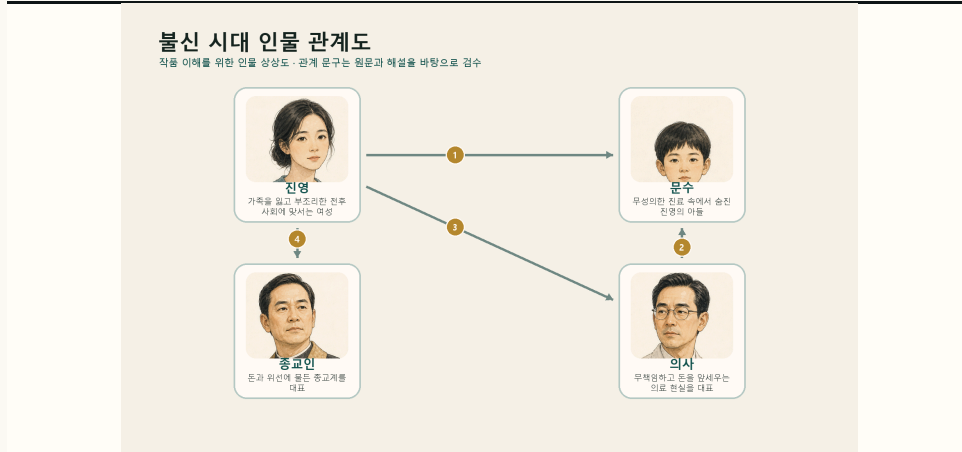
믿을 곳이 사라진 시대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항거할 생명이다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전후 사회의 이기주의와 배금주의를 고발하고, 상실과 불신 속에서도 부조리한 세계에 맞서려는 생명의지를 회복함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진영 → 문수: 상실과 애도의 대상 / 의사 → 문수: 무성의한 진료로 죽음에 이르게 함 / 진영 → 의사: 인술의 타락에 불신과 분노 / 진영 → 종교인: 의지하려다 돈 중심의 위선에 환멸

욕망·판단·변화

진영

가족 상실의 고통을 견디고 믿을 만한 삶의 근거를 찾고 싶다. 돈보다 생명과 진실성을 중시하며 의료와 종교의 위선을 비판한다. 외부의 위안에 기대던 상태에서 부조리한 세계와 스스로 맞서겠다는 주체로 바뀐다.

문수

진영이 지키고 싶었던 외아들이다. 무성의한 의료 체계가 한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지 드러내는 존재다. 죽음 뒤 위패와 사진으로 남아 진영을 과거에 묶지만, 소각을 통해 결별과 각성의 계기가 된다.

의료·종교인

생명과 믿음보다 돈과 편의를 앞세운다. 지불 능력과 이익을 사람을 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개별 인물의 변화보다 전후 사회 전반의 도덕적 붕괴를 대표한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가족을 잃다

전쟁 중 남편을 잃은 진영은 외아들 문수마저 의료진의 무성의한 진료 속에서 잃는다.

전개

종교에 실망하다

성당의 위선과 헌금 강요에 실망하고, 문수의 위패를 모신 절에서도 돈을 적게 냈다는 이유로 홀대받는다.

위기

병원도 믿지 못하다

폐결핵이 악화된 진영은 빈 약병을 사고파는 병원의 타락을 보고 치료를 포기한다. 빈민촌을 보며 자신의 슬픔을 돌아본다.

절정

위패를 되찾다

종교를 내세운 사기 이야기까지 들은 진영은 절에 돈을 더 보내려는 어머니의 말에 분노해 문수의 위패와 사진을 가져온다.

결말

불태우고 내려오다

눈 덮인 산에서 위패와 사진을 태운 진영은 타락한 세계와 결별하고, 자신에게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남았음을 느낀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남편과 아들을 잃은 진영은 성당과 절에 기대 보지만 돈과 위선에 물든 종교 현실에 실망한다. 폐결핵까지 악화되어 환각과 환청을 겪는다.
수록 핵심	병원의 빈 약병 거래와 종교인의 위선을 목격하고, 뒷산 빈민촌에서 자신의 슬픔을 상대화한다. 절에 돈을 더 보내려는 어머니의 말에 문수의 위패와 사진을 되찾는다.
수록 후	작품의 마지막까지 수록된다. 진영은 눈 덮인 산에서 위패와 사진을 태우고, 부조리한 현실에 항거하며 살아갈 생명력을 확인한다.
핵심 소재	문수의 위패와 사진: 진영을 상실의 과거와 기복적 위안에 묶어 두는 물건이며, 소각은 결별과 주체 회복을 뜻한다. 빈약병: 환자의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의료 현실의 타락을 집약한다.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공간의 연쇄** 병원, 성당, 절이 모두 돈과 위선에 물든 공간으로 이어지며 불신이 확대되는 과정을 본다.
- 빈민촌의 기능** 다른 사람의 더 큰 고통을 보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슬픔에 갇힌 태도를 반성하는 계기다.
- 위패와 사진을 태우는 행위는 삶을 포기하는 허무주의를 뜻한다.** 타락한 의료와 종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항거하며 살겠다는 결단이다.
- 진영은 빈민촌을 보고 자신의 형편이 낫다는 우월감을 느낀다.** 개인적 슬픔에 갇혀 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시야를 넓힌다.

LIT 062

이병주 · 수록 · 185쪽

관부 연락선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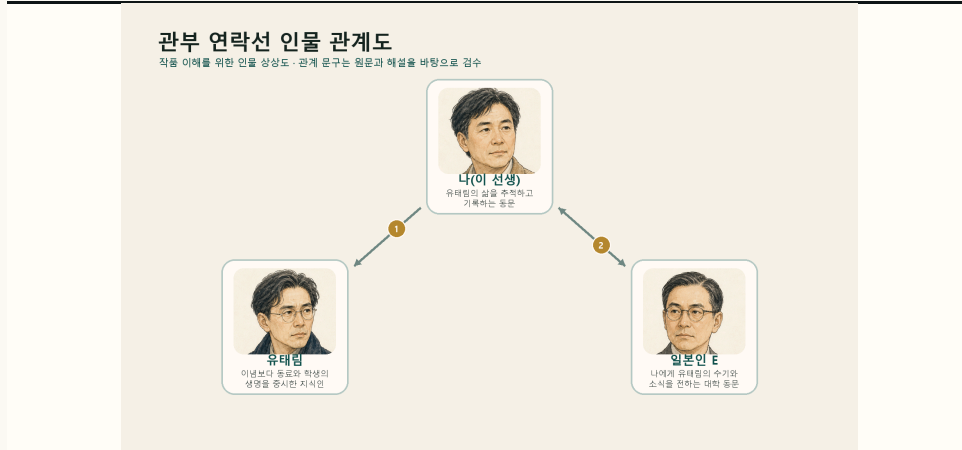
이념의 승리보다 동료의 생명을 먼저 지킬 수 있는가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해방 전후 이념 대립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려 한 지식인의 고뇌와 비극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나(이 선생) → 유태림: 실종된 동문의 행적과 수기를 기록 / 일본인 E ↔ 나(이 선생): 대학 동문으로서 편지와 수기를 전달

욕망·판단·변화

유태림

이념의 명분보다 동료와 학생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 어떤 주의도 구체적인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학병 시절의 갈등을 거쳐 해방 뒤 교사가 되지만 전쟁 속에서 실종된다.

나(이 선생)

실종된 동문 유태림의 삶과 선택을 기록하고 싶다. 수기와 편지, 증언을 모아 선부른 단정보다 사실의 맥락을 복원한다. 유태림의 삶을 따라가며 격변기 지식인의 고뇌를 역사적 증언으로 남긴다.

일본인 E

대학 동문인 나에게 유태림의 수기와 관련 소식을 전한다. 과거의 인연과 기록을 보존해 전달하는 일을 중시한다. 서사의 외부에서 나와 유태림의 기록을 이어 주는 조력자가 된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수기를 받다

나는 일본 유학 시절 동문인 일본인 E에게서 편지와 유태림의 수기를 받고, 실종된 동문의 삶을 추적한다.

전개

창고를 지키다

학병으로 중국 전선에 끌려간 유태림은 소모품 창고를 관리한다. 안달영은 공산주의 교양회를 열겠다는 창고를 빌려 달라고 한다.

위기

이념을 거부하다

유태림은 모임이 발각되면 동료 학병이 죽을 수 있다고 보고, 대의보다 생명을 앞세워 창고 대여를 거절한다.

절정

교사가 되다

해방 뒤 귀국한 유태림은 좌우 대립을 피해 고향에서 교사가 되어 이념의 광풍으로부터 학생을 지키려 한다.

결말

실종되다

6·25 전쟁 중 해인사 근처 암자에 머물던 유태림은 빨치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나는 일본인 E에게서 유태림의 수기와 소식을 받는다. 유태림이 해방 뒤 교사 부임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삶을 추적하는 틀 속에서 학병 시절 이야기가 시작된다.

수록 핵심

허봉도가 안달영의 교양회를 위해 창고를 빌려 달라고 한다. 유태림은 동료의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다고 보고 안달영의 이념적 압박을 반박하며 거절한다.

수록 후

해방 뒤 귀국한 유태림은 고향에서 학생을 가르치지만 6·25 전쟁 중 빨치산에게 끌려가 실종된다. 그의 수기는 내가 삶을 기록하게 하는 증언이 된다.

핵심 소재

소모품 창고: 이념 실천의 장소로 쓰려는 안달영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려는 유태림의 가치가 충돌하는 공간이다. 수기 관부 연락선: 유태림의 내면과 시대 체험을 직접 전하고, 나의 기록에 근거를 제공한다.

예상 출제 추과 합정

1

가치 충돌 안달영의 대의명분과 유태림의 생명 존중이 창고 대여 문제에서 어떻게 맞서는지 본다.

2

교차 서술 나의 기록과 유태림의 수기가 서로 보완하며 역사적 거리와 신빙성을 만드는 방식을 파악한다.

3

나는 학병 시절 유태림과 안달영의 논쟁 현장에 직접 참여한다. 나는 수기와 편지, 증언을 통해 과거 사건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인물이다.

4

유태림이 창고를 빌려주지 않은 까닭은 개인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서다. 모임이 발각될 때 동료 학병의 생명이 희생될 가능성을 막으려 한 것이다.

LIT 063

박완서 · 수록 · 189쪽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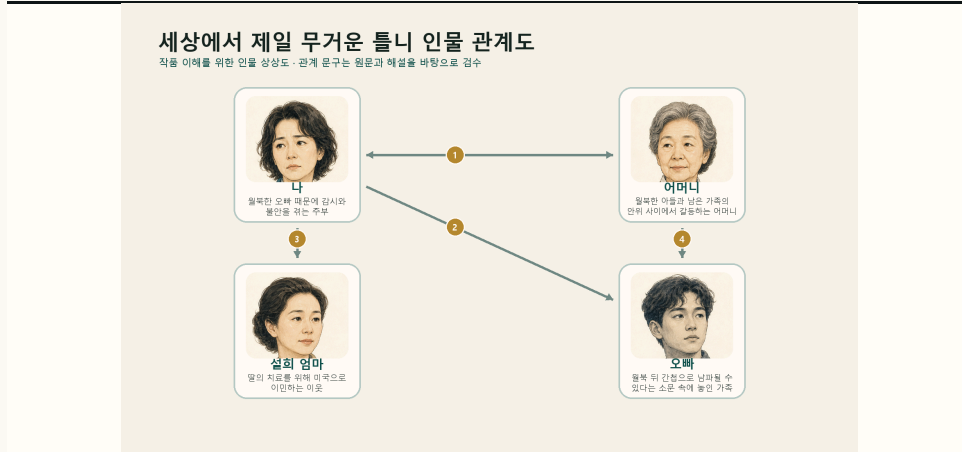
입속에 틀니가 없는데도 왜 쭉실까?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남북 분단이 초래한 이념적 억압과 소시민의 불안한 삶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나 ↔ 어머니: 오빠의 남파가 가져올 가족의 파멸을 함께 두려워함 / 나 → 오빠: 혈육에 대한 그리움보다 가족이 입을 피해를 두려워함 / 나 → 설희 엄마: 아픔에 공감하다가 이민을 떠나는 삶을 선택하고 질투함 / 어머니 → 오빠: 모정과 남은 가족의 만위 사이에서 갈등함

욕망·판단·변화

나

오빠 일로 사찰받는 현실에서 벗어나 소박한 안위를 바람 자신의 고통이 틀니 때문이라고 여기며 분단 현실이 만든 불안을 외면함 아픔이 분단의 제약과 이웃을 향한 질투에서 비롯됐음을 깨달음

어머니

월북한 아들의 소식에 불안해하며 남은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 함 아들이 찾아와 남은 가족에게 가져올 파멸을 가장 두려워함 자식을 향한 연민과 남은 가족의 만위 사이에서 불안해하는 심리를 유지함

오빠

작품에 직접 등장하지 않아 구체적인 욕망은 제시되지 않음 월북과 남파 가능성만 전해질 뿐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장면은 없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족의 불안과 분단의 상처를 환기하는 부재 인물로 남음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웃과의 만남 지체 장애를 가진 딸 설희를 씩씩하게 키우는 이웃과 가까워진다. 두 사람은 가난한 처지에 공감하지만, 나는 오빠의 월북과 이혼하고 싶은 속내를 말하지 못한다.	분단이 남긴 공포 나는 월북한 오빠 때문에 정보기관의 조사와 감시를 받은 일을 떠올린다. 그 여파로 남편과의 관계까지 거칠어져 이혼을 생각한다.	이웃의 이민 시집살이를 견디던 설희 엄마가 이민을 떠나자 공항에서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나는 틀니로 빠아픈 신경통을 느낀다.	일시적 해방 집에 오자마자 고통을 주던 틀니를 빼내며 자유를 만끽하지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오빠가 온 줄 착각하고 다시 공포에 전을 한다.	고통의 실제 자각 방문객이 월부 책 장수임을 알고 안심하지만 통증은 남는다. 나는 고통이 틀니가 아닌 억압적인 시대 제약에서 온 것임을 깨닫는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설희 엄마가 딸을 수술시키기 위해 이민을 떠나고, 공항 배웅 후 피로와 함께 틀니에서 시작된 중압감과 신경통이 고조되는 상태다.
수록 핵심	집에 돌아와 틀니를 빼냈지만, 밖에서 들리는 조심스러운 대문 소리에 간첩이 된 오빠가 찾아왔다고 오인해 파멸의 두려움을 안고 맞서려 한다.
수록 후	문밖의 사내가 오빠가 아닌 책 장수임이 밝혀져 안심하지만, 틀니가 없는 입속에서 여전한 중압감과 통증을 느끼며 아픔의 진짜 원인을 직시한다.
핵심 소재	틀니: 자신을 억누르는 시대적 제약과 공포를 감추려 만든 신체화된 고통의 껍데기 백금 틀: 실제 무게는 아주 가벼워 고통이 물리적 틀니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는 매개체

예상 출제 추과 합정

1	틀니의 상징적 의미 자각 신체 통증이 분단의 이념적 압박과 사회적 제약에서 비롯된 시대적 아픔임을 이해하기
2	공간의 이동과 심리 변화 배웅 후 공항에서 집까지 이동하며 심화되는 주인공의 불안과 육체 통증의 관계 파악
3	주인공의 만성 통증이 고가의 틀니가 지닌 신체 거부 반응 때문이라는 적절한 분석이다. 통증의 진짜 원인은 개인을 옥죄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자유로운 이웃에 대한 선행이다.
4	집에 돌아와 틀니를 뺀 직후 주인공이 만끽한 가벼움은 평생의 제약에서 탈출함을 뜻한다. 틀니를 뺀 직후의 시원함은 일시적 해방감일 뿐, 대문 소리와 함께 불안이 즉시 재발한다.

LIT 064

김원일 · 수록 · 197쪽

미망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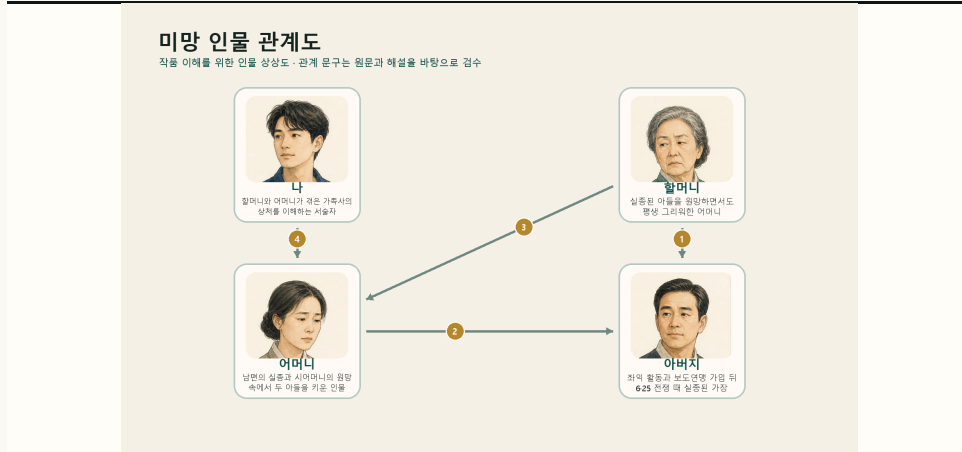
비단 꽃주머니에 숨겨둔 한과 모정의 증명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이 초래한 한 가족의 분열과 잇을 수 없는 혈육의 사랑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할머니 → 아버지: 원망과 응어리 속에서도 사진과 가입증을 간직함 / 어머니 → 아버지: 가족을 저버리고 실종된 남편에 대한 강한 원망 / 할머니 → 어머니: 집안을 망쳤다며 원망하면서 사나운 며느리를 두려워함 / 나 → 어머니: 과거의 고초를 들은 뒤 어머니의 상처를 이해함

욕망·판단·변화

나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의 깊은 갈등을 중재하고 가족사를 이해하려 함 직접 겪은 현재와 어머니에게 들은 과거를 함께 살피며 두 여성의 상처를 판단함 할머니의 유품에서 숨은 모정을 확인하고 두 여성의 애증과 비극을 함께 이해함

할머니

실종된 아들의 소식을 듣고 다시 만나기를 기다림 아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함께 품은 채 며느리를 두려워하고 원망함 아들의 가입증을 사십여 년간 간직한 채 모정과 응어리를 남기고 눈감음

어머니

남편의 부재와 핍박을 견디며 두 아들을 당당하게 키워 내려고 함 가족을 외면한 시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생전 좋아한 음식을 챙기는 애증을 보임 시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임종 무렵 간갈치를 사 오는 복잡한 태도를 드러냄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깊어진 고부 갈등 나와 합가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오랜 원망 때문에 심하게 다툰다. 나는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려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귀가와 과거 회상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의 좌익 활동으로 가족이 겪은 수난과 갈등의 뿌리를 떠올린다.	위기와 실종과 가족의 시련 아버지는 보도연맹 가입 뒤에도 좌익 자금을 대다 6·25 전쟁 때 실종된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가족은 흩어진다.	절정과 임종과 간갈치 할머니가 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둔다. 그 무렵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간갈치를 사 들고 돌아온다.	결말과 가입증 속 모정 고모가 유품을 정리하다 아들의 사진이 붙은 보도연맹 가입증을 발견한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숨겨 온 모정과 응어리를 확인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나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조퇴해 급히 집으로 돌아온다.
수록 핵심	위독한 할머니를 바라보는 나의 성찰과 고등학교 입학 날 밤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수난사가 회상된다. 이어 할머니의 임종과 장지 논의, 간갈치를 사 온 어머니, 유품 속 보도연맹 가입증 발견이 제시된다.
수록 후	소설은 할머니의 유품에서 발견된 보도연맹 가입증을 통해 아들을 향한 할머니의 애절한 모정과 한을 확인하며 끝난다.
핵심 소재	보도연맹 가입증: 아들을 향한 할머니의 애절한 모정과 역사적 비극으로 일룩진 상처의 상징 간갈치 두 마리: 할머니를 원망하면서도 생전에 좋아하던 반찬을 챙기는 어머니의 애증 어린 사랑

예상 출제 추과 합정

- 서술상 특징 파악** 1인칭 서술자가 관찰한 현재 사실과 전해 들은 과거 이야기를 독특한 서술로 전함
- 인물 갈등과 손가락 흉터** 고부간의 갈등 이면의 역사적 상처를 짚고, 어머니의 손가락 흉터에 담긴 삶의 의지를 이해함
- 어머니가 지서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은 이유는 아버지가 보도연맹 예비 검속을 피하려 도망쳤기 때문이다.** 연행되어 고초를 겪은 시기는 아버지가 좌익 운동을 하던 때로, 보도연맹 예비 검속 이전의 일이다.
- 어머니가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십자가를 그린 것은 실종된 남편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한 행동이다.** 모진 시련을 극복하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세상에 당당히 서겠다는 독한 삶의 의지를 다진 맹세이다.

LIT 065

임철우 · 수록 · 202쪽

눈이 오면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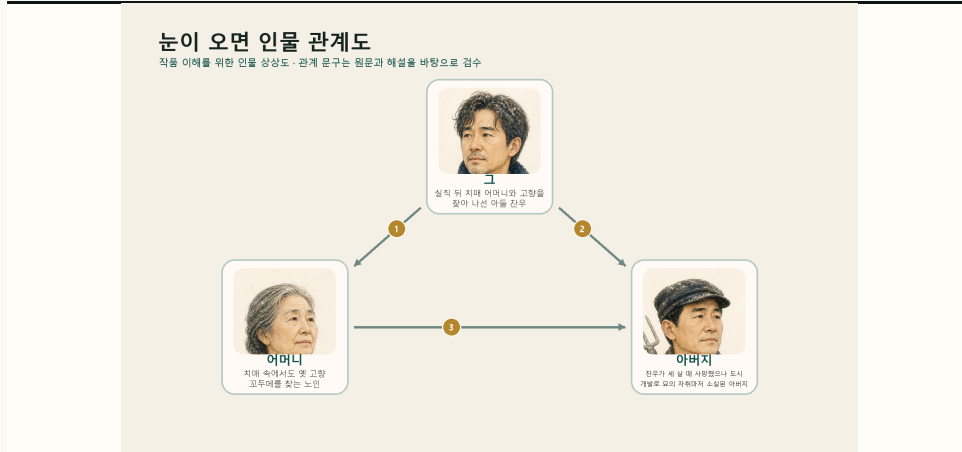
도시화로 고향을 잃은 자의 눈물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급격한 도시화로 파괴된 삶의 터전과 현대인의 상실감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그 → 어머니: 고향에 동행했다가 눈 내리는 거리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맸 / 그 → 아버지: 개발로 사라진 묘를 찾으며 오랜 무관심을 자책함 / 어머니 → 아버지: 치매 속에서 남편과 살았던 옛 고향을 되찾으려 함

욕망·판단·변화

그

실직의 좌절 속에서 어머니가 그리워하는 고향을 찾고 가족의 흔적을 되찾으려 함 고향과 부모의 기억을 현재 삶을 버티게 한 뿌리로 여김 아버지의 묘가 사라진 현실 앞에서 좌책감을 느끼고, 눈 속에서 사라진 어머니를 찾아 헤맸

어머니

치매 속에서도 기억에 남은 고향 꼬두메로 돌아가려 함 현재의 낯선 풍경보다 과거 가족과 함께 살던 고향의 기억에 의지함 변해 버린 고향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방에서 사라져 아들의 수색 대상이 됨

아버지

현재 서사에 직접 등장하지 않아 구체적인 욕망은 제시되지 않음 찬우에게 돌보지 못한 무덤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 개발로 무덤의 자취가 사라져 찬우의 좌책감과 상실감을 키움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갑작스러운 실직

그는 몇 달 동안 월급이 밀려 사표를 낸다. 실직의 고통 속에서 치매에 걸려 고향 집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충동적으로 고향 꼬두메로 향하는 기차를 탄다.

전개

기차 안의 회상

기차 안에서 그는 과거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조개탕을 훔쳤던 기억을 떠올린다. 이어서 어머니가 처음 노인성 치매 판정을 받았던 슬픈 순간을 떠올리게 되새긴다.

위기

사라진 고향과 아버지 묘

꼬두메에 도착하지만 고향의 옛 모습과 아버지의 무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절망한다.

절정

함박눈 속 어머니 수색

동사무소에 다녀온 사이 다방에서 사라진 어머니를 찾으려고 함박눈 내리는 거리를 정신없이 헤맸다.

결말

찾고개를 오르는 아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쏟아지는 함박눈을 맞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찾고개를 기어오른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실직한 주인공은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다. 치매에 걸려 꼬두메로 돌아가자는 말을 되풀이하는 늙은 어머니를 지켜보며 고향으로 갈 결심을 한다.

수록 핵심

변해버린 꼬두메에서 십 년 동안 돌보지 않은 아버지 무덤이 아파트 밑에 묻혔음을 깨닫는다. 후회와 좌책감이 밀려와 동사무소로 달려가지만 헛수고임을 알게 된다.

수록 후

어머니마저 다방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는 어머니가 눈 내리는 거리를 헤맸 것임을 예감하고 쏟아지는 함박눈 속에서 찾고개를 숨 가쁘게 기어오른다.

핵심 소재

눈(함박눈): 쓸쓸한 고향의 분위기를 이끌어내며 인물들이 겪는 이별의 비극성을 더한다. 꼬두메: 인물이 회귀하려는 따뜻한 안식처이지만 도시 개발로 흔적 없이 지워진 상실의 공간이다.

예상 출제 추과 함정

1

비유적 표현과 지시 표현 도시 생활의 피로와 기억 속 옛 고향의 전경을 비유와 지시어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그린다.

2

여로형 구조의 성격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실직한 아들의 동행을 그려 인물들의 정서적 소외감을 부각한다.

3

어머니가 고향에 다 와서도 집으로 가자고 떼를 쓰는 것은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행동이다. 아파트 단지로 가로막힌 낯선 공간에서 꼬두메의 고향 집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이다.

4

주인공이 가장 공고 소식을 몰랐던 사실에 분노하여 동사무소 사내에게 책임을 묻고 강하게 다룬다. 자신의 무관심에 깊은 좌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어쩔 줄 몰라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온다.

LIT 066

김소진 · 수록 · 207쪽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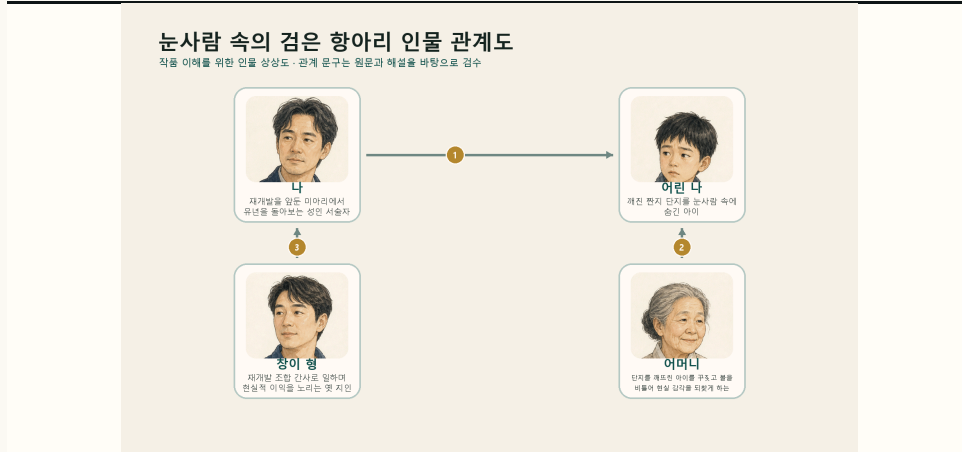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어른이 되다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세상은 자신과 무관하게 돌아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성장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나 → 어린 나: 유년 시절의 잘못과 정신적 성장 과정을 회상함 / 어머니 → 어린 나: 단지를 깬 일을 꾸짖고 불을 비틀어 현실 감각을 되찾게 함 / 창이 형 → 나: 재개발 관련 이야기를 해 줌

욕망·판단·변화

나

재개발로 사라질 유년의 공간을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려 함 현재의 개발 현장을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견주어 바라봄 큰 태도 변화 없이 사라질 유년의 공간 앞에서 서글픔을 느낌

어린 나

단지를 깬 잘못을 들키지 않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함 자신의 실수가 세상 전체를 뒤흔든다고 믿는 아이의 자기중심적 인식에 머물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집을 보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깨달음

어머니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가족을 돌보고 아이가 안정을 되찾게 하려 함 잘못된 아이를 꾸짖으면서도 불을 비틀고 웃어 보이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준 큰 변화 없이 자식에게 모성애와 안정감을 주는 태도를 유지함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재개발 소식과 귀향

성인이 된 나는 재개발 예정인 미아리 산동네를 찾아가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전개

동네 도착과 유년 기억

미아리 산동네에 도착한 나는 겨울 새벽 이웃집 잔디 단지를 깨뜨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위기

국회와 관련된 옛 기억

창이 형의 집에서 간 나는 그의 아내가 옛 지인 국회의원을 알고 국회와 관련된 과거를 떠올린다.

절정

깨진 단지 사건의 깨달음

창이 형의 집에서 나온 나는 단지를 눈사람 속에 숨기고 가출했다가 돌아와, 세상이 자신 없이도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일을 회상한다.

결말

기억의 터전 상실

어른이 된 나는 재개발로 유년의 공간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낀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나는 미아리 산동네로 가며 어린 시절의 일을 회상한다. 아홉 가구가 함께 쓰던 좁은 집에서 요강이 깨지면 큰일이 난다고 믿었던 어머니에 관한 기억이 난다.
수록 핵심	겨울 새벽 잔디 단지를 깨뜨린 실수와 가출 뒤 돌아와 세상의 무관심을 깨달은 유년의 기억,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 창이 형을 만나 나누는 대화가 이어진다.
수록 후	창이 형과 헤어진 나는 빈집에서 불일을 보며 기억의 터전인 미아리 산동네가 사라지는 일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
핵심 소재	깨진 단지: 어린 시절의 실수를 뜻하며 정신적 성장을 이끄는 매개체 눈사람: 잘못을 감추는 수단이자 언젠가 녹아 비밀이 밝혀짐을 암시하는 장치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서술상 특징** 과거를 돌아보는 서술 자아와 체험하는 경험 자아의 거리감을 중심으로 서사적 긴장을 유도함
- 피로감의 의미** 실수 후 느끼는 감각으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에 대한 불안과 고뇌를 의미함
- 빠루가 마녀 주문을 받아 움직였다는 구절에서 초자연적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는 오해** 이는 감각스러운 실수를 마주한 어린아이의 당황스러운 심리와 상상력을 표현한 진술이다
- 주인공이 단지를 깨뜨린 후 느낀 피로감을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고단함이나 성취감으로 여기는 오해** 이 감각은 정신적 혼들림에서 온 고뇌이며 어른이 되면서 마주할 고달픈 현실 인식을 상징한다

LIT 067

공선옥 · 수록 · 279쪽

한데서 울다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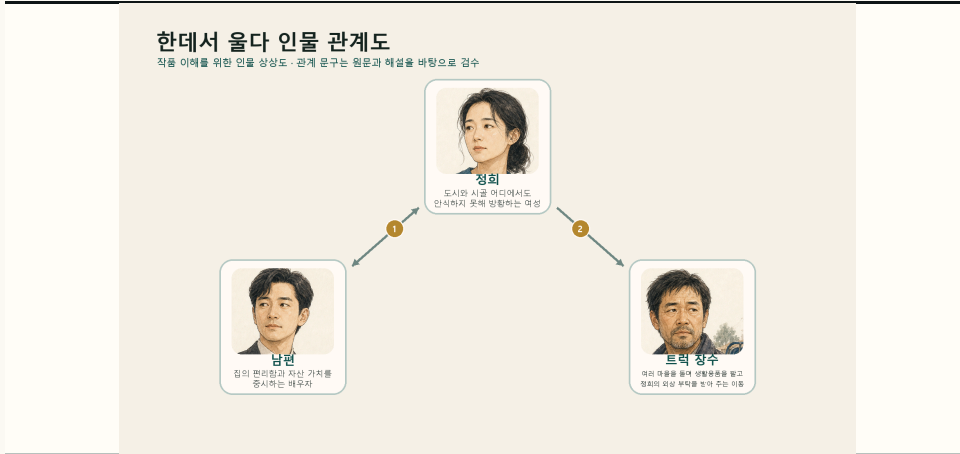
도시와 시골의 소음 속에서 방황하는 삶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도시와 시골 어디에서도 안식하지 못한 현대인의 방황과, 이웃의 온정으로 되찾는 삶의 자리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정희 ↔ 남편: 집의 가치와 이주 문제를 두고 엇갈림 / 정희 → 트럭 장수: 확성기 소음을 미워했으나 외상을 받아 준 인정에서 위안을 얻음

욕망·판단·변화

정희

소음과 위협이 없는 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함 집의 가격보다 소음과 폭력의 유무로 거처의 평온함을 판단함 트럭 장수의 따뜻한 인정을 느끼며 시골에 머물기로 결심함

남편

도시의 편리함과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중시함 경제적 효율과 생활의 편리함을 먼저 따짐 출퇴근 짜증이 줄지만, 정희는 그 까닭을 카풀 상태 때문이라고 추측함

트럭 장수

여러 식료품과 생활용품들을 트럭에 실어 판매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 가려 함 지갑이 없는 손님의 사정을 헤아려 외상 부락을 받아 준 정희의 오해와 달리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이웃으로 인식됨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음 속 방황 정희는 도시 아파트의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며 평화로운 시골집을 찾아다닌다.	시골로 이사 남편과의 갈등 끝에 아파트를 세우고 뒷마당이 있는 시골집으로 이사한다.	소란의 지속 시골 역시 트럭 확성기 소리와 사냥꾼들의 위협적인 총소리로 시끄럽다.	갈등과 봉변 시골 생활에 지친 정희는 다시 살 집을 알아보려 도시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봉변을 당한다.	위안과 정착 귀갓길에 변개탄 장수와 그의 아이를 만나 따뜻한 인정을 느끼고 정착을 결심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주차장에서 무례한 남자에게 시달린 정희는 불쾌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수록 핵심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정희는 맞은편 트럭을 피하려 차를 길가에 바짝 붙이고 기다린다. 트럭 장수의 아이가 손을 흔들며 웃는 모습을 본 정희가 클랙슨을 울리자 트럭이 멈춘다.
수록 후	장수가 외상을 주고 떠난 뒤 정희는 차를 몰아 집으로 오던 중, 시내에 나갈 일도 차도 없애겠다고 다짐한다. 감정이 북받쳐 차를 멈추고 시동을 끈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핵심 소재	도시의 아파트: 소음과 각박함으로 가득 찬 한데와 같은 부정적인 공간 뒷마당 있는 시골집: 정희가 지향하는 마음의 평안과 조요함을 상징하는 장소

예상 출제 추과 합정

- 공간의 대비적 의미** 도시 아파트와 시골집이라는 대조적 장소로 이상과 현실 사이의 방향을 부각함
- 인물들의 심리 변화** 타인에 대한 정희의 오해가 따뜻한 교감 속에서 이해와 수용으로 바뀌는 과정을 살림
- 정희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려는 주된 이유가 남편의 카풀 때문이라는 선지** 남편의 카풀에 마음이 상했지만 이는 도시로 돌아가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님
- 변개탄 장수의 확성기 소리를 처음부터 정겨운 이웃의 소리로 여겼다는 선지** 처음에는 일상의 평화를 깨는 불쾌한 소음으로 인식하며 갈등의 원인으로 여김

LIT 068

최일남 · 수록 · 314쪽

너무 큰 나무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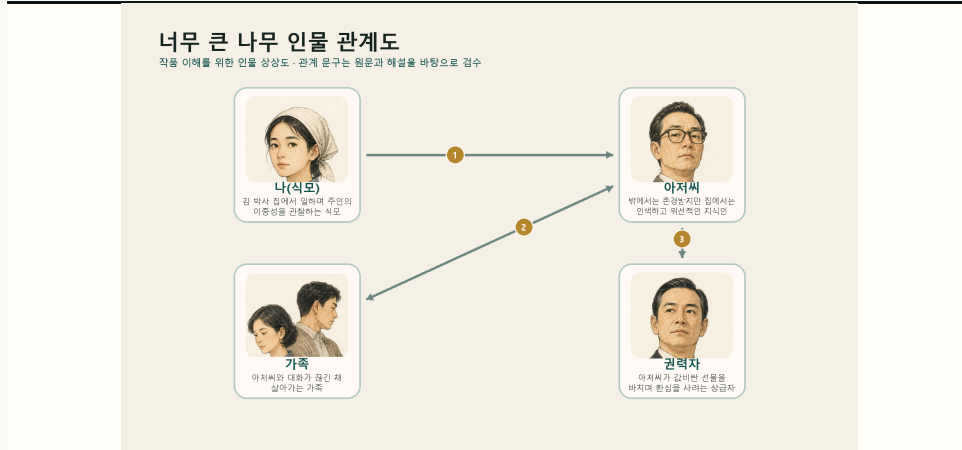
순박한 식모의 눈에 비친 명사의 이중성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지식인 계층의 표리부동한 허위의식과 이중적인 실상을 식모의 순박한 시선으로 비판함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나(식모) → 아저씨: 표리부동한 속물성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가식적인 실상에 실망함 / 아저씨 ↔ 가족: 대화와 정서적 교류가 끊긴 관계 / 아저씨 → 권력자: 값비싼 선물을 바치며 환심을 사려 함

욕망·판단·변화

나(식모)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일한 만큼 정당한 월급을 얻으려 함. 훌륭한 지식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믿음. 아저씨의 위선에 실망하지만 그의 실상을 판단하지 못해 혼란을 느낌

아저씨

밖에서는 존경받는 지식인의 명성과 위신을 유지하려 함. 약자에게는 인색하면서 권력자에게는 선물을 바쳐 자신의 이익을 챙김. 뚜렷한 변화 없이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를 유지함

가족

작품에서 가족 공동의 구체적인 욕망은 제시되지 않음. 자식들은 아저씨의 논리적 모순에 대들어 위엄의 허상을 드러내고, 아내는 그를 구박하면서도 위선과 인색함에 동조함. 뚜렷한 변화 없이 아저씨의 가정 내 고립과 언행 불일치를 드러냄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식모 생활의 시작

나는 사회적 명사인 아저씨 집에서 식모로 일한다. 훌륭한 어른 곁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

전개

이중적 면모 발견

집안에서 관찰한 아저씨는 밖의 근엄한 태도와 다르다. 가족과 대화가 전혀 없고 글과 달리 실체가 없는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위기

아저씨의 웅술함

아저씨는 고물장수와 현 책 값을 두고 30원을 더 받으려고 웅술한 임씨를 벌인다. 드러난 근엄함과 대비되는 모습에 나는 실망한다.

절정

월급 문제의 인식함

나의 월급 인상 요구에 아저씨 내외는 약자에게 양보를 강요하며 매우 인색하게 굴고, 귀찮은 일로 취급한다. 나는 깊은 서운함을 느낀다.

결말

나의 혼란과 성찰

나무의 밀동에서는 꼭대기를 볼 수 없듯, 아저씨와 너무 가까이 있어 정체를 판단하기 어렵다. 나는 그의 이중성에 깊은 혼란을 느낀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나는 대외적으로 존경받는 유명 인사인 아저씨 집의 식모가 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훌륭한 어른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리라 기대한다.

수록 핵심

가식적인 전화 예절과 거짓 독서 습관, 가족 간 대화 단절이 드러난다. 식모의 월급에는 인색한 부부가 권력자에게 줄 값비싼 선물은 정성껏 챙기는 모습도 이어진다.

수록 후

별도의 후속 사건 없이 작품이 끝난다. '나'는 주인의 속물성에 서운함을 느끼지만, 너무 큰 나무 바로 밑에서는 꼭대기를 볼 수 없다는 비유처럼 그의 실상을 판단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핵심 소재

큰 나무: 대외적인 위신과 권위를 가진 아저씨를 비유하며 너무 가까이서 관찰하면 실상을 알 수 없음을 의미함. 천방산: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들어가면 뿔뿔산처럼 평범하듯 겉과 속이 다른 아저씨의 위선을 상징함.

예상 출제 추과 함정

1

서술자의 제한된 시각과 효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식모의 눈을 빌려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인물의 이중성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한다.

2

지식인 계층의 표리부동 비판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권력에는 아부하며 약자에게는 인색한 지도층의 가식적인 실상을 예리하게 짚어낸다.

3

나의 아둔한 성격을 들어 그가 아저씨의 본질과 사회적 위선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본다. 나는 세상 물정에 어두워 의도를 바로 파악하지 못해 오히려 독자가 스스로 그 실체를 추론하게 만든다.

4

큰 나무는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대상이며, 나무의 꼭대기는 내가 성취해야 할 목표를 상징한다고 해석한다. 큰 나무는 결만 거대해 보이는 대상을 뜻하며,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실상을 알기 어려움을 상징한다.

LIT 069

오정희 · 수완 · 148쪽

동경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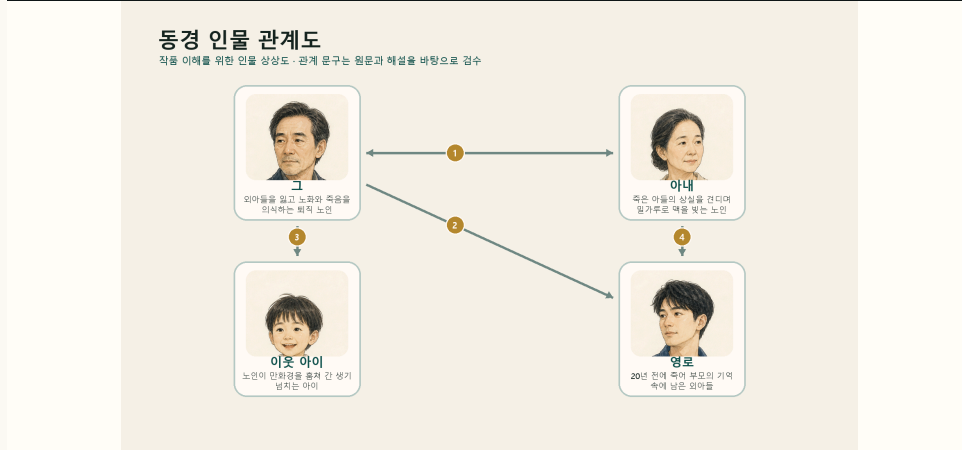
외아들을 잃은 노부부가 노화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생명을 바라본다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자식을 잃은 노부부의 고독과, 노화와 죽음 앞에서 확인하는 인간의 유한성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그 ↔ 아내: 외아들을 잃은 상실과 죽음의 불안을 함께 견뎌 / 그 → 영로: 죽은 외아들을 그리워하며 매장 장면을 떠올림 / 그 → 이웃 아이: 아이의 생명력을 동경해 그가 두고 간 만화경을 훔침 / 아내 → 영로: 죽은 아들의 상실감을 안고 살아감

욕망·판단·변화

그

아이의 생명력을 동경하며 잃어버린 활력과 아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싶어 함. 죽은 아들과 늙어 가는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현재의 결핍을 바라봄. 자신이 옛사람처럼 죽음 가까이에 놓인 존재라는 서늘한 인식을 받아들임.

아내

죽은 아들을 잃은 고독을 견디며 일상의 적막과 상실감을 다스리려 함. 조부의 맥 이야기를 떠올리며 잠과 죽음에 얽힌 전승적 관념을 받아들임. 큰 변화 없이 남편과 함께 자식의 상실과 죽음의 불안을 견뎌.

영로

현재 서사에 직접 등장하지 않아 구체적인 욕망은 제시되지 않음. 부모의 기억과 매장 장면 속에서만 떠오르는 죽은 외아들 20년 전 죽은 뒤 부모의 상실감과 죽음 인식을 불러오는 부재 인물로 남음.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앞부분 상황 시청 하급 관리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그는 20년 전 외아들 영로를 잃었다. 늙은 아내와 적막한 노년을 보낸다.	만화경 훔치기 놀이터에서 아이가 두고 간 만화경을 훔친다. 아이의 생명력을 빌려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퇴행적 행동이다.	만화경 속 분열 그는 훔친 만화경을 돌린다. 색종이 조각이 모이고 흩어지는 모습에서 노년의 불안과 흩어진 기억을 느낀다.	틀니와 거울 틀니를 닦은 뒤 거울을 본다. 청년 같은 검은 머리와 늙고 무너진 얼굴이 어긋나며 몸의 부조화가 선명해진다.	맥 제작과 수용 아내는 밀가루 반죽으로 나쁜 꿈을 먹는 맥을 빚으며 조부 이야기를 꺼낸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잠에 빠져든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정년퇴직한 노인은 20년 전 외아들 영로를 잃고 아내와 쓸쓸하게 살아간다. 교인들의 방문이 취소된 날, 아내 몰래 서랍에 숨겨 둔 이웃집 아이의 만화경을 꺼내어 들여다본다.
수록 핵심	노인은 만화경을 돌리며 색종이의 분열을 바라본다. 거울 속 검은 머리와 늙은 얼굴의 부조화를 확인한 뒤, 아내가 맥을 빚는 모습을 보며 조부의 유언과 죽음의 공포를 생각한다.
수록 후	이웃집 아이가 찾아와 꽃을 꺾자 아내가 제지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죽은 아들 이야기를 꺼내고, 아이가 거울 빛을 눈에 비추자 그 빛을 피하며 눈물을 흘린다.
핵심 소재	만화경: 아이가 가진 생명력에 대한 동경과 결핍을 메우려는 퇴행적 매개체 거울: 검은 머리와 노쇠한 얼굴의 대비로 신체적 부조화를 비추는 자아 확인 도구

예상 출제 추과 합정

- 서술상 특징과 시선** 전지적 시점이면서도 노인 '그'의 시선과 감각에 초점을 맞춰 내면의 불안을 좇는다.
- 거울의 다각적 의미** 노화의 자아 확인, 죽음의 질서, 사별의 기억을 잇는 여러 거울의 의미를 구분한다.
- 구리거울이 주인공에게 죽음의 질서를 거스르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구리거울은 죽은 사람의 부장품으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냉혹한 죽음의 질서를 뜻한다.
- 맥 이야기는 먼 과거의 일이므로 현재 인물의 불안이나 죽음 공포와 무관하다고 본다.** 아내가 조부의 두려움에 공감하듯, 과거 전승은 현재 인물의 불안과 죽음 인식에 이어진다.

LIT 070

현기영 · 수완 · 170쪽

도령마루의 까마귀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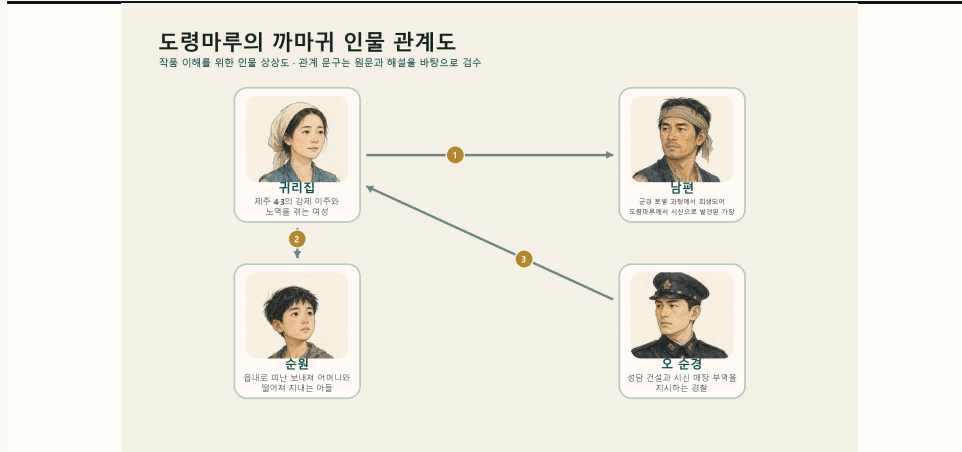
국가 폭력에 짓밟힌 제주 양민의 눈물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제주도 양민이 겪은 강제 부역과 가족 상실의 비극 고발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귀리집 → 남편: 시체 더미에서 남편을 발견하고 시신을 지키려 함 / 귀리집 → 순원: 읍내로 보낸 아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다림 / 오순경 → 귀리집: 성담 건설과 시신 매장 부역을 강제로 지시함

욕망·판단·변화

귀리집

성담 노동이 끝나면 읍내로 보낸 아들 순원을 다시 만나고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려 함 강제 이주와 굶주림 속에서도 가족을 다시 만날 희망으로 버텨 도령마루에서 남편의 시신을 발견한 뒤 시신이라도 지키려고 애씀

남편

군경의 탄압을 피해 살아남아 가족과 다시 만나기를 바램 군경과 무장대의 탄압을 피해 해변에도 산에도 가지 못한 채 중산간 동굴에 숨어 지냄 불잡혀 도령마루에서 희생된 뒤 귀리집에게 시신으로 발견됨

순원

작품에서 구체적인 욕망은 제시되지 않으며 읍내로 피난 간 아들로 언급됨 어머니가 성담 노동을 버티게 하는 재회의 희망으로 기능함 현재 장면에 직접 등장하지 않고 강제로 흩어진 가족의 처지를 드러냄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마을 전소와 강제 이주

군경의 토벌 작전 아래 중산간 노형리의 전소와 주민들의 해변 서호마을로 강제 이주가 다급하게 이루어진다.

전개

성담 건설 강제 노역

귀리집은 마을을 둘러싸고 통제하는 성담을 쌓는 울력에 동원되어 손에 흉측한 상처를 입는다.

위기

바다 봉쇄와 굶주림

군경이 입어 금지령을 내려 바다가 막히고 전구가 압수되자 주민들은 끼니를 거르며 굶주린다.

절정

남편 시신 발견

도령마루에서 돌을 나르는 부역을 하던 귀리집은 구덩이의 시체 더미 속에서 남편의 시신을 발견한다.

결말

남편 시신 보존 노력

귀리집은 감시하는 순경의 눈을 피해 남편의 시신을 성담 밖으로 던져 보존하려고 애쓴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귀리집은 군경의 토벌 작전으로 고향 노형리가 전소되고 해변 서호마을로 강제 이주되는 일을 겪는다. 남편과 헤어진 채 아들을 만날 통행 허가를 기다리며, 손이 조막손이 되도록 한 달 동안 성담 건설 울력에 동원된다.

수록 핵심

굶주린 귀리집은 봉쇄된 바다를 바라본다. 중산간 동굴이나 불탄 집터에 숨은 양민들의 위태로운 처지가 드러나고, 토벌군의 몰이사냥 속에서 닥칠 비극이 암시된다.

수록 후

귀리집은 도령마루의 시신 구덩이에서 남편의 시신을 찾아낸다. 다른 시체들 밑에 있어 까마귀 부리에 쏘이지 않은 남편의 온전한 얼굴을 확인하고, 시신을 보존하려 성담 밖으로 던진다.

핵심 소재

성담: 보호라는 구실 아래 주민을 가두고 통제하며 손을 상하게 하는 강제 노동의 수단 바다: 갈치 떼의 기억이 서린 생계의 터전이지만 입어 금지로 꼭 막혀버린 봉쇄선

예상 출제 추과 함정

1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현재형 시체의 진술을 써서 상황의 생동감과 현장감을 전달하는 서술자의 방식을 묻는다.

2

공간의 다각적 의미 성담의 보호와 통제라는 양면성, 생계와 봉쇄가 겹쳐진 바다 공간의 특징을 파악한다.

3

성담의 두 배 높이를 근거로 하여 그곳을 양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보호 공간으로 해석함. 성담은 표면상 보호 시설이지만 실제로는 강제 부역의 상징이자 주민의 이동을 차단하는 통제 장치임.

4

귀리집이 겪는 굶주림과 허기를 역사적 상황이 아닌 게으름 같은 개인의 탓으로 한정하여 이해함. 굶주림은 강제 이주로 재산을 잃고 입어 금지령으로 바다 생계가 꿈꿨던 막힌 역사적 탄압의 결과임.

LIT 071

김성한 · 수완 · 196쪽

무명로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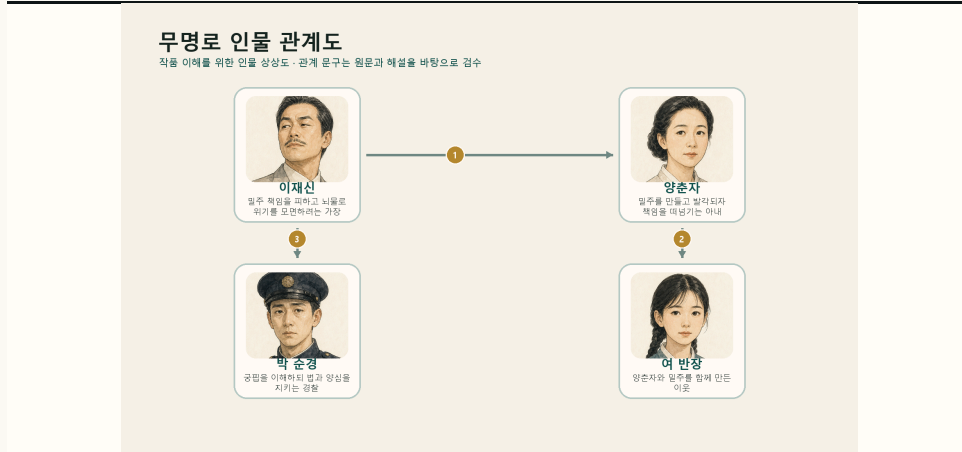
가난 뒤에 숨은 위선과 뇌물 세태의 고발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가난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뇌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인간의 위선 비판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이재신 → 양춘자: 밀주가 팔각되자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김 / 양춘자 ↔ 여 반장: 밀주를 함께 만들었으나 단속 뒤 서로 책임을 다툼 / 이재신 ↔ 박 순경: 뇌물로 매수하려 하지만 법을 지키라는 경고와 함께 거절당함

욕망·판단·변화

이재신

겉으로는 체면을 차리면서 뇌물로 불법적인 위기를 손쉽게 해결하려 함 모든 문제는 돈과 뇌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깨끗한 척하는 자는 어리석음 처음에는 책임을 피하려다 일이 해결되자 앞날을 대비해 뇌물 공세를 펼침

양춘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웃 여 반장과 함께 밀주를 만들어 이득을 취하려 함 밀주 제작이 걸리자 모든 잘못을 동업자인 여 반장의 유혹 탓으로 돌림 단속에 걸리자 곧바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함

여 반장

양춘자와 함께 밀주를 만들어 팔아 가난한 처지에서 이익을 얻으려 함 단속이 되자 자기가 잘했다며 잘못의 책임을 전부 양춘자에게 돌림 순경이 단속할 때는 이불 밑에서 떨고만 있다가 삼자 회의에서 욕심각심함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가난과 밀주 제작 이재신은 세를 놓는 집주인이지만 배급 탈 돈도 없다. 가난을 이기려 아내 양춘자와 이웃 여 반장이 밀주를 만든다.	밀주 발각과 변명 야간 순시 중인 박 순경에게 밀주가 걸린다. 이재신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철없는 아내 탓을 한다.	삼자 회의와 다툼 양춘자와 여 반장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싸운다. 이재신은 박 순경을 뇌물로 매수하면 된다고 큰소리를 친다.	순경의 이해와 경고 다음 날 파출소에서 박 순경은 궁핍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법을 지키라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한다.	뇌물 시도와 거절 해결된 일에 안심한 이재신은 앞날을 위해 포도주 세 병을 사서 박 순경에게 준다. 하지만 박 순경은 거절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해방 뒤 시작동에 집을 장만해 세를 놓은 이재신은 배급 탈 돈도 없을 만큼 가난하다. 아내 양춘자와 이웃 여 반장이 밀주를 만들고 이재신도 이를 돕는다.
수록 핵심	밀주가 박 순경에게 발각되자 이재신은 아내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경고만 받고 풀려난 뒤에는 앞으로의 청탁을 생각해 포도주 세 병을 건네지만 박 순경은 거절한다.
수록 후	이재신은 뇌물을 거절당하고도 집으로 돌아와 동네 사람들에게 박 순경에게 포도주를 선물받았다고 큰소리치며 허세를 부린다.
핵심 소재	밀주: 배급 탈 돈조차 없는 궁핍한 생활고를 상징하며, 동시에 인물들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 포도주 세 병: 이재신이 미래의 청탁을 위해 건네는 뇌물이며, 이를 거절하는 박 순경의 청렴함을 증명함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인물의 대조적 갈등 구조** 뇌물로 타협하려는 이재신과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법과 정의를 지키는 박 순경의 대조를 이해한다.
- 인물의 위선과 속물성 풍자** 가난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며 서로 남 탓을 하는 몰염치한 인물들의 행동에 담긴 풍자성을 파악한다.
- 박 순경이 이재신의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그것이 밀주라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박 순경은 뇌물을 받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거절했을 뿐 밀주로 의심한 것은 아니다.
- 박 순경은 이재신의 사정을 이해하고 사법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을 묵인했다.** 사정을 헤아리면서도 법이 있으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며 제발 방식을 경고했다.

LIT 072

염상설 · 수완 · 220쪽

양과자갑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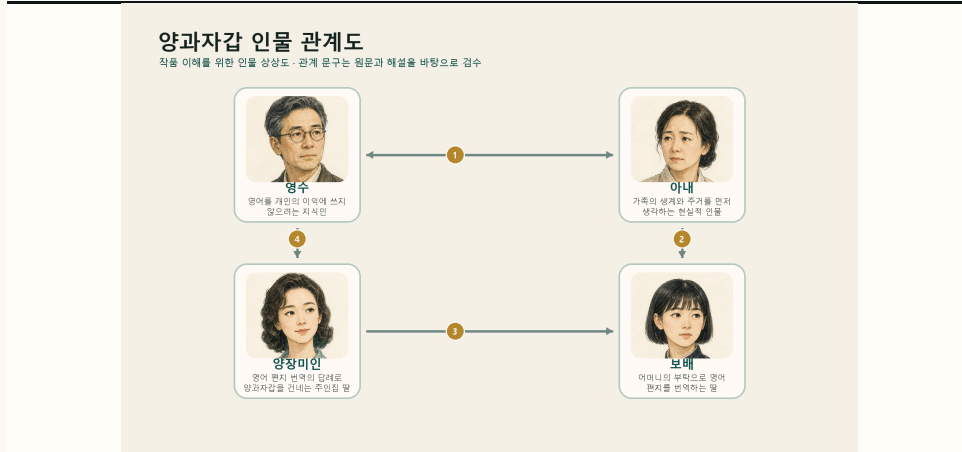
원칙을 지키려는 지식인과 살아남으려는 가족의 갈등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미군정 시기 영어의 위세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지식인의 신념과 생존을 위한 현실적 압박 사이의 대립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영수 ↔ 아내: 지식인의 신념과 가족의 생계를 두고 충돌함 / 아내 → 보배: 퇴거 압박을 누그러뜨리려 딸에게 영어 편지 번역을 맡김 / 양장미인 → 보배: 영어 편지 번역을 부탁하고 양과자갑을 건넨 / 영수 → 양장미인: 외세에 기대어 이익을 쫓는 세태에 반감을 품음

욕망·판단·변화

영수

민족 국가 건설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며 영어 능력을 사리사욕에 쓰지 않기를 원한다. 출세나 개인의 이익 대신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도덕적 지조를 기준으로 행동한다. 과거 유치장에 갇히고 파산하는 수난을 겪은 후, 타협을 거부하며 세상에 냉소한다.

아내

겨울철에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생존과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명분보다 당장의 생계 해결과 자식 부양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다. 집을 구하려다 사기를 당한 분함과 주거 불안 속에서 남편의 무능에 점차 분노한다.

보배

어머니의 뜻에 따라 주인공 딸이 가져온 영어 편지를 군말 없이 번역해 준다. 부모님의 갈등 속에서 중간에 놓인 자녀의 준종적인 태도를 지닌다. 부모의 갈등 속에서 큰 가치관 변화 없이 수동적이고 준종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결말

과자갑을 내던짐

영수는 주인공 딸이 서양 사람과 거래하는 편지를 딸에게 읽게 한 사실에 분노한다. 아내와 다투던 영수는 결국 과자갑을 마당에 내팽개친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영수 부부의 궁핍

미국 유학을 다녀온 영수는 시간 강사로 일한다. 과거 미국 출신이라는 트집으로 갇혔고 집을 팔아 소개를 간 뒤 살림이 기울어 셋방을 전전한다.

전개

주인집의 퇴거 요구

주인집은 둘째 딸 양장미인이 뒤채로 들어와야 한 다며 방을 비우라고 재촉한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새 방을 구하지 못한 아내의 걱정이 커진다.

위기

딸 보배의 번역

양장미인이 영어 편지 번역을 부탁해 오자 영수는 거절한다. 아내는 주인집의 퇴거 압박을 면해 보려 고 딸 보배에게 대신 편지 번역을 시킨다.

절정

양과자갑의 선물

편지 번역을 마친 뒤 양장미인은 보배를 찾아와 고맙다며 사탕 알갱이가 든 양과자갑을 선물한다. 아내는 집 걱정을 덜까 싶어 미소를 짓는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영수는 미국 유학을 다녀왔지만 영어를 현실적 이익과 바꾸지 않는다. 수감과 소개 뒤 가산을 잃고 시간 강사로 일하며 셋방을 전전한다. 주인집의 퇴거 독촉에 아내의 생계 걱정이 커진다.

수록 핵심

주인집 딸인 양장미인이 가져온 서양인의 편지를 번역해 준 대가로 딸 보배가 양과자갑을 받아 온다. 아내는 이 일을 계기로 주인집의 퇴거 성화가 잦아들기를 기대하며 미소를 띤다. 하지만 영수는 딸에게 그런 더러운 편지를 번역하게 했 다며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른다.

수록 후

아내가 남편의 무능을 탓하며 맞서자 영수는 붉어진 얼굴로 과자갑을 들어 올린다. 서양 문물에 기대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세태에 반감을 품은 영수는 이 과자 상자를 땅바닥에 툼씩 내던진다. 이로써 부부의 가치관 대립은 마침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핵심 소재

양과자갑: 영어 번역의 대가로 얻은 물질적 보상이자 부부의 가치관 대립을 폭발시키는 매개체
영어 편지: 외세와 거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실태를 영수가 확인하게 되는 계기

예상 출제 추과 합정

1

이상과 현실의 부딪침 명분을 중시하는 남편과 생존을 앞세우는 아내의 갈등이 가치관의 대립에서 비롯됨을 파악한다.

2

해방 공간의 어두운 세태 미군정에 기생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기회주의 세력과 이에 침 빠는 지식인의 태도를 이해한다.

3

영수가 뛰어난 영어를 구사하므로 해방 공간에서 뛰어난 현실 적응력을 보인다고 판단한다. 영수는 영어 능력을 세속적 이익에 쓰기를 거부하며 시간 강사로 일하며 여전히 가난하다.

4

남편의 지조를 꺾어내리는 아내의 불평을 개인의 끝없는 사욕과 물질적 탐욕으로 해석한다. 아내의 불만은 당장 겨울철에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서 놓인 가족의 생계와 주거 걱정에서 비롯된다.

LIT 073

작자 미상 · 수록 · 125쪽

서해무릉기

AA · 표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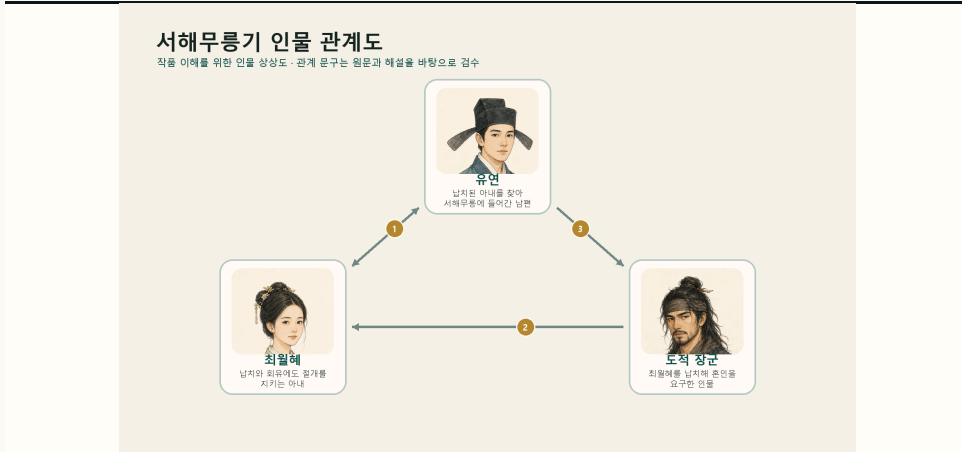
88

여장하고 서해를 누빈 신랑의 애절한 추적기

한 문장
핵심

시련과 유괴를 극복하며 이뤄내는 남녀의 변치 않는 애정 성취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유연 ↔ 최월혜: 이별 뒤 고난을 넘어 다시 만나는 부부 / 도적 장군 → 최월혜: 납치한 뒤 혼인을 요구하며 회유함 / 유연 → 도적 장군: 아내를 되찾으려 정체를 숨기고 장원을 살림

욕망·판단·변화

유연

납치당한 아내 최월혜를 찾아 혼인을 회복하려 한다. 아내를 찾아 3년을 방랑하고, 3년째 되던 해 여승으로 변장해 서해무릉에 들어간다. 섬에서 추방된 뒤에도 장원 밖을 살피며 최월혜와 탈출을 약속한다.

최월혜

혼인 회유를 거부하고 유연과의 약속과 절개를 지키려 한다. 장군이 제시한 혼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굽히지 않는다. 기다리는 데 머물지 않고 가짜 죽음을 꾸며 홀로 장원을 빠져나온다.

도적 장군

최월혜를 납치해 자신의 아내로 맞으려 한다. 즉시 강제로 혼인하지 않고 10년의 기한을 두어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유연을 수상히 여겨 쫓아내지만 최월혜가 꾸민 가짜 죽음에는 속는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혼인을 이루다

유연은 여러 곡절 끝에 친척인 최월혜와 혼례를 올린다.

전개

신부를 빼앗기다

혼삿날 밤 도적 장군이 최월혜를 서해무릉으로 납치한다.

위기

여승으로 재회하다

유연은 아내를 찾아 3년을 방랑한 뒤 여승으로 변장해 섬에 들어간다. 최월혜와 우물가에서 처음 대면하고, 추방된 뒤에는 담장 너머 목소리로 탈출을 약속한다.

절정

죽음을 꾸미다

최월혜는 가짜 죽음으로 감시를 벗어나 홀로 장원을 빠져나온 뒤 유연과 재회하고,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온다.

결말

귀향해 해로하다

유연의 가솔로 화병이 나 있던 아버지는 마음을 풀어 두 사람을 맞아들인다. 부부는 해로하며 부처의 은혜에 보답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최월혜를 빼앗긴 유연은 3년 동안 방랑하다가, 3년째 되던 해 여승으로 변장해 서해에 배를 띄우고 서해무릉에 들어간다.
수록 핵심	유연과 최월혜는 우물가에서 직접 대면한다. 유연이 추방된 뒤에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목소리로 탈출을 약속한다. 서해무릉은 아름답지만 최월혜에게는 감금지다.
수록 후	최월혜가 가짜 죽음을 꾸며 홀로 장원을 빠져나온 뒤 유연과 재회한다. 귀향하자 유연의 아버지는 마음을 풀어 두 사람을 맞아들인다.
핵심 소재	서해무릉: 겉으로는 아름다운 경치이나 최 씨에게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금처다. 여승 변장: 문약한 선비가 적대자의 감시를 피하고 아내의 내당까지 숨어드는 방책이다.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배경 묘사의 역사적 대비** 아름다운 서해무릉의 자연과 인물의 비통한 상황이 대비되는 표현상 특징을 묻는다.
- 초월적 조력의 서사적 기능** 금산사 부처의 조력이 남주인공의 결점을 메우고 결연에 정당성을 보태는 방식을 다룬다.
- 도적 장군은 최 씨를 납치한 첫날밤에 강제로 혼례를 치르고 아내로 삼았다.** 장군은 최 씨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10년의 기한을 두어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렸다.
- 최 씨는 꿈속 부처에게 전수받은 도술과 도력을 발휘해 장군을 직접 응징하며 도망쳤다.** 부처는 탈출 소식만 예언했고 실제로는 최 씨가 가짜 죽음을 꾸미는 기지를 발휘해 도주했다.

LIT 074

작자 미상 · 수록 · 129쪽

반씨전

AA · 표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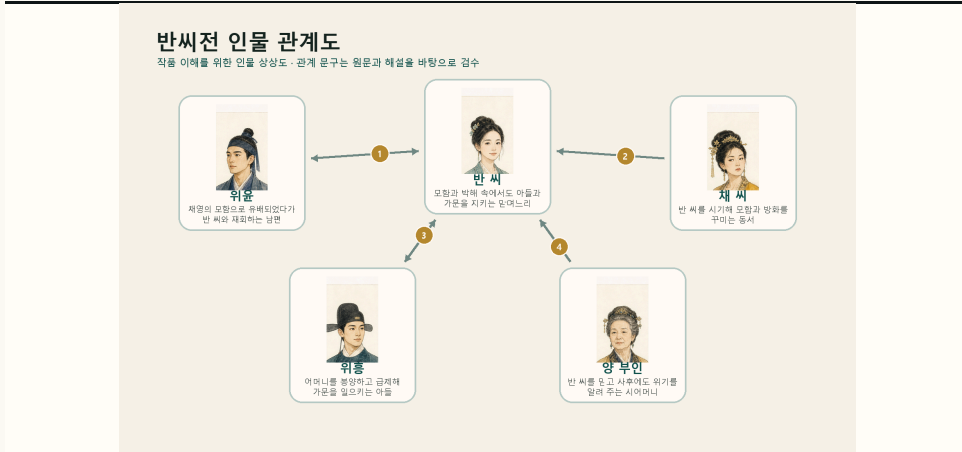
89

동서 간의 시기에서 시작된 가문과 조정의 싸움

한 문장
핵심

선인의 고난 극복과 동서 갈등 해결로 실현되는 권선징악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반 씨 ↔ 위윤: 모함으로 헤어졌다가 시련 끝에 재회하는 부부 / 채 씨 → 반 씨: 시기와 모함 끝에 방화까지 꾸밈 / 반 씨 ↔ 위훈: 박해를 함께 견디며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모자 / 양 부인 → 반 씨: 생전에는 믿고 보호하고 사후에는 위기를 알림

욕망·판단·변화

반 씨

유교적 효행과 절개를 지키며 가문과 아들을 보전할 효와 예라는 봉건적 가치와 가문의 도리를 중시함 시련 속에서도 뜻을 꺾지 않고 수난을 극복하며 복권됨

채 씨

반 씨를 제거하고 가문의 재산과 권력을 독점할 친정의 막강한 세세와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따름 악행을 거듭하다 복권된 가문에 의해 가혹하게 처벌됨

위훈

학업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 효도와 가문 재건이라는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함 선관의 학업 조력을 얻어 급제한 뒤 직접 악인을 징치함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동서들의 시기와 모함

절강의 위씨 가문 만머느리 반 씨는 행실이 어질지만 동서인 채 씨와 맹 씨는 반 씨를 시기하여 모함하기 시작한다.

전개

남편의 유배와 박대

채 씨는 친정 아버지 채영과 모의하여 위윤을 유배 보낸다. 시어머니 양 부인이 죽자 두 동서는 반 씨를 내쫓고 박대한다.

위기

방화 음모와 피신

묘막에서 지내는 반 씨 모자를 죽이려 위진과 채 씨가 방화를 꾀하나 양 부인의 혼령과 산신의 도움으로 반 씨는 피신한다.

절정

투신과 초현실적 구원

위진 무리의 위협으로 반 씨는 강에 투신하지만 거북의 도움으로 살아나 유배에서 풀려난 남편 위윤과 재회한다.

결말

장원 급제와 악인 처벌

과거에 장원 급제한 아들 위훈이 가문을 복권시키고 황제의 명으로 악독한 동서 채 씨와 맹 씨를 처벌하며 갈등을 끝낸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채 씨의 악행으로 남편 위윤과 친정아버지 반옥이 억울하게 유배를 떠나고 시어머니 양 부인이 슬퍼하다 세상을 떠난 상황이다.
수록 핵심	시어머니의 삼년상을 치르기 위해 묘막에 머물던 반 씨 모자를 죽이려 위진과 채 씨가 하인들을 보내 묘막에 불을 지른다.
수록 후	양 부인의 혼령이 미리 알려준 덕분에 반 씨 모자는 산으로 피하고 산신이 준 음식을 먹어 기력을 회복한 뒤 외가로 향한다.
핵심 소재	채 승상의 상소: 사적인 원한과 갈등을 조정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도구 묘막의 불: 악인들이 선인을 살해하려는 사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상징함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갈등의 확장 양상** 집안 며느리들의 갈등이 형제 대립을 거쳐 조정의 권력 투쟁으로 번지는 과정을 이해한다.
- 초월적 존재의 역할**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여러 초현실적 대상들이 인고하는 주인공을 구원하는 방식을 파악한다.
- 양 부인이 살아있을 때 반 씨의 진심을 몰라 채 씨를 갇혔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양 부인은 반 씨의 지극한 효심을 이미 알고 두 며느리를 크게 꾸짖은 바 있다.
- 위진이 자객을 보낸 명분이 선관과 반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모함 때문임을 간파한다.** 위진은 밤마다 남자를 만난다는 채 씨의 왜곡된 고발을 신뢰하여 위협을 가하려 했다.

LIT 075

작자 미상 · 수록 · 133쪽

현몽쌍룡기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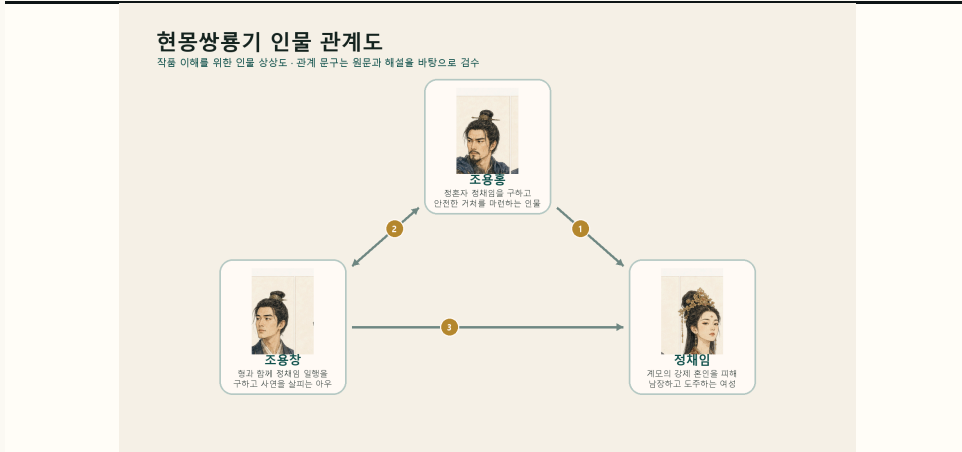
남장 소저와 정혼자의 기적 같은 구출과 인연

AA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조 공자와 정 소저의 만남과 가문의 갈등 및 국가적 위기 극복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조용홍 → 정채임: 정혼자로서 구출 뒤 안전한 거처를 마련함 / 조용홍 ↔ 조용창: 정채임 일행을 함께 구하고 보호하는 형제 / 조용창 → 정채임: 형을 도와 물에 빠진 정채임 일행을 구출함

욕망·판단·변화

정채임

정혼자를 향한 절개를 지키고 가문의 허물을 감추려 함 남녀유별의 교훈과 조용홍과의 백년가약 약속 구출된 후 부끄러움에 몸을 절간에 의탁하려 결심함

조용홍

정혼자인 정 소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연을 맺으려 함 정 소저의 굳은 절개에 대한 감복과 측은지심 정 소저의 정체를 모르는 채하며 강정에서 안전하게 지키도록 배려함

벽란

정 소저의 진짜 신분을 조 공자에게 알려 평생 안위를 지키려 함 주인의 평생이 묻히지 않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주인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용기를 내어 조 공자에게 모든 사연을 고백함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형제의 탄생과 정혼

조 상국 부부가 태몽을 꾸고 용홍과 용창 형제를 얻은 뒤, 용홍을 정채임과 정혼시킨다.

전개

도주와 극적 결연

계모의 모함을 피해 남장 도주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정채임을 조씨 형제가 구하고, 용홍과 정채임은 결연을 맺는다.

위기

음해와 거란 침입

계모 박 씨와 양세, 금선 공주의 흉계로 두 가문이 거둬 고초를 겪는 가운데 거란까지 침입한다.

절정

국가 위기 극복

조용홍은 대원수로서 거란을 물리치고, 조용창은 양세와 초왕이 일으킨 역모를 진압한다.

결말

악인 처벌과 화합

황제는 계모 박 씨와 양세, 금선 공주를 처벌하고, 억울함을 풀 두 가문은 화목과 부귀를 되찾는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정 소저는 계모 박 씨의 모함과 강제 혼인을 피해 시녀들과 남망하고 도주하다가 도적에게 쫓겨 강물에 몸을 던진다.
수록 핵심	조 공자 형제는 강에서 정 소저 일행을 구하고 남망한 여인임을 알아챈 뒤 시녀들의 고백으로 정혼자임을 알게 된다.
수록 후	조 공자는 정 소저를 강정에 머물게 하여 보호하고 형제가 함께 도성으로 가며 이후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는 영웅이 된다.
핵심 소재	남장: 강제 혼인 위기를 피하는 수단이자 두 정혼자가 만나는 매개체 강정: 정 소저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은신처이자 부끄러움을 느끼는 공간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정보 불균형의 서사적 효과** 정 소저와 조 공자, 시비들이 가진 정보 격차가 자아내는 오해와 긴장감을 이해한다.
- 유교적 절개관의 내면화** 남녀유별과 가문 허물에 대한 수치심으로 자신을 감추려는 여주인공의 심리를 분석한다.
- 정 소저가 물에 몸을 던진 이유는 조 공자와 파혼을 당해 슬퍼했기 때문이다.** 계모 박 씨의 강제 혼인 강요와 도적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 투신한 것이다.
- 조 공자는 춘앵과 벽란이 주인의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해 추궁했다.** 정 소저의 억울한 사연과 절행에 감복해 모르는 채하며 처소를 마련해 주었다.

LIT 076

작자 미상 · 수록 · 322쪽

금환기봉

AA · 표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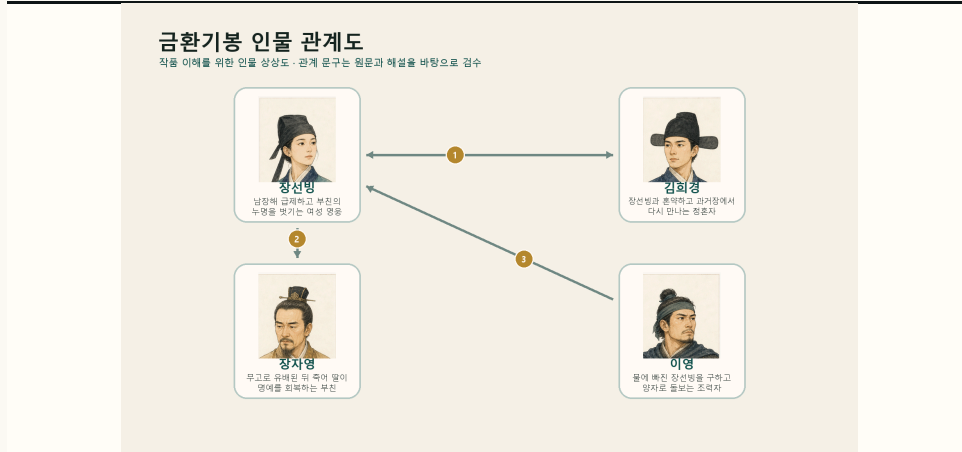
91

남장의 벽을 넘어 가문의 명예를 세우다

한 문장
핵심

여성 주인공의 남장과 주도적 실천을 치하하고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해소하는 영웅적 활약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장선빙 ↔ 김희경: 천상 인연의 정혼자로 이별과 오해 뒤 혼인함 / 장선빙 → 장자영: 상소로 부친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함 / 이영 → 장선빙: 물에서 구해 양자로 들보고 과거길을 열어 줌

욕망·판단·변화

장선빙 (장수정)

남장으로 과거에 급제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일 효심과 가문의 명예 회복을 행동의 우선 가치로 삼음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벼슬길에 올라 뜻을 성취함

김희경

과거 급제와 장선빙과의 혼약 맹약을 지키는 일 과거장에서 들은 이름에 의구심을 품고 진실을 찾음 장수정을 질투하지 않고 그 뛰어난 풍격에 호감을 가짐

이영

물에 빠진 비범한 인재 구해 세상에 보탬이 되게 함 장선빙의 신신 같은 비범한 품모와 재능을 증시함 상황을 구출하는 조력자에서 과거 응시를 권하는 조언자가 됨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적강과 혼약 천상의 문창성과 월국 선녀가 김희경과 장선빙으로 태어나 형조 땅에서 만나 혼약을 맺는다.	피난과 남장 생활 아버지 장자영이 유배된 후 장선빙은 강에 투신한다. 용왕 시녀와 이영의 도움으로 살아나 장수정이라 이름하고 남장한다.	급제와 위왕 평정 장선빙은 김희경과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긴 뒤 위왕의 모반을 평정한다.	정체 고백과 혼인 장선빙은 임금에게 자신이 여성이고 김희경의 정혼자임을 밝힌 뒤 김희경의 첫째 부인이 된다.	태평성대와 승천 김희경과 다섯 부인은 화목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손을 번성시킨 뒤 함께 선계로 올라간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장선빙은 가문의 화를 피하는 과정에서 물에 빠진다. 남해 용왕의 시녀가 나타나 환혼주를 전하고, 배 위의 노인 이영이 그녀를 구해 돌본다. 장선빙은 함께 투신한 설랑과 영춘을 다시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수록 핵심	장선빙은 남장을 한 채 과거에 응시한다. 시험장에서 약혼자인 김희경을 마주친다. 김희경은 동명이인인지 의심하며 장수정의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도 기뻐한다. 두 사람은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조정의 벼슬을 나란히 제수받는다.
수록 후	급제하여 돌아온 장선빙은 앞날을 걱정하는 시비들을 안심시킨다. 다음 날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장자영의 누명을 벗기는 데 성공한다. 임금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 주며 관작을 내린다.
핵심 소재	환혼주: 용왕 시녀가 준 술로 죽음의 위기에서 정신을 수습하고 기운을 차리게 함 남장 (남복): 여성의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 공적 영역에 나아가는 전략적 도구

예상 출제 축과 함정

- 여성 영웅의 영웅적 면모** 초월적 존재인 용왕 시녀의 도움과 남장을 활용한 주도적인 극복 과정을 출제함
- 인물의 내면과 심리 파악** 과거장에서 장수정이라는 이름을 듣고 의구심을 갖는 김희경의 혼란상을 묻곤 함
- 노인 이영이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환혼주로 선빙을 구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환혼주를 준 초월적 주체는 용왕의 시녀이며 이영은 세속의 조력자이다.
- 김희경이 과거장에서 만난 장수정의 비범함을 보고 질투를 느껴 경계했다고 오해한다.** 김희경은 장수정의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하였다.

LIT 077

작자 미상 · 수완 · 146쪽

창선감의록

AA · 표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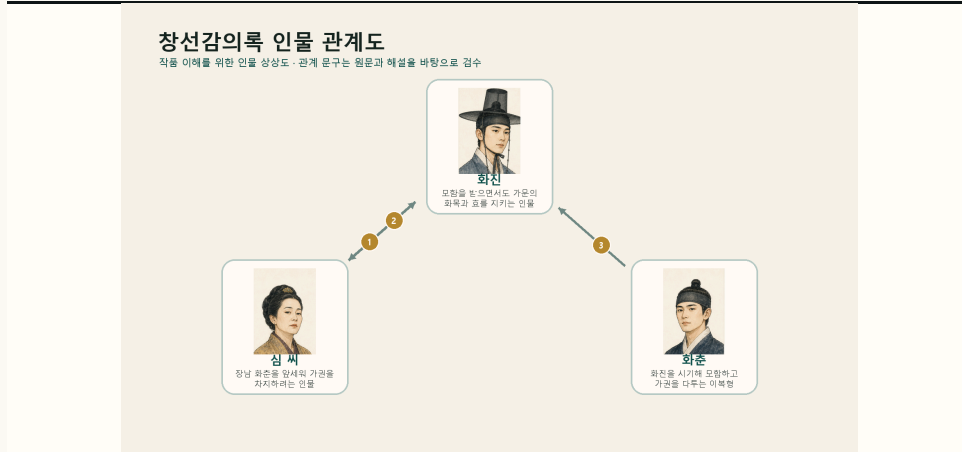
92

가권과 부귀를 노린 허위 고소에 맞선 효자의 희생

한 문장
핵심

가문 내부의 욕망과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시련을 유교적 효성과 가족애로 극복한다.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욕망·판단·변화

화진

가족을 보호하고 집안의 질서를 안정시키는 것. 유교적 효 사상과 불의에 맞서는 의로운 성품. 허위 고소로 유배되나 백의 종군하여 국난을 극복함.

심 씨

가권을 장악하여 장남을 집안의 후계자로 삼는 것. 차남인 화진에 대한 시기심과 사적인 원한. 화진의 한결같은 효성에 감화되어 개과천신함.

화춘

화진을 제거하고 집안의 권세와 부귀를 독차지하는 것. 장남으로서의 상속 권리와 화진에 대한 열등감.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음.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성 부인의 송별 성 부인은 심 씨 모자의 불의한 성품을 걱정하며 남기를 원했으나, 아들 성춘의 봉양 간청과 화진의 권유로 눈물을 흘리며 임지로 떠난다.	심 씨 모자의 모의 성 부인이 떠나자 심 씨는 한숨을 쉬며 안도한다. 심 씨는 대를 이으려는 욕망과 상춘정의 원한으로 화진에게 곤욕을 주기로 아들과 모의한다.	위기 조 씨의 음모와 위기 화춘의 아내 조 씨는 범한과 내통하여 재산을 노린다. 범한이 보낸 자객은 실패하지만, 심 씨를 죽이려던 칼에 시비 난항이 죽고 화진이 누명을 쓴다.	절정 허위 자백과 투옥 범한이 작성한 지독한 고소장을 들고 관가로 가고, 화진은 어머니와 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죄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혐의를 인정한다.	결말 최형의 신문과 대처 소흥 지부 최형은 무고임을 알고 분노하여 범한을 찾아내며, 화진을 옥에 가둔다. 범한은 옥졸을 매수하여 화진을 독살할 음모를 꾸민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성 부인은 심 씨 모자의 악한 심성을 알고 화진 부부를 격정하여 떠나기를 망설인다. 하지만 아들 성춘이 봉양을 간청하고 화진이 간곡히 권유하자 결국 동행을 허락하며 길을 떠난다.
수록 핵심	성 부인이 떠나자 심 씨 모자는 가권과 부귀를 차지하려는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화춘의 처 조 씨와 내통한 외부인 범한이 음모를 꾸미고, 결국 난항이 살해된 사건을 빌미로 화진을 허위 고소한다.
수록 후	화진은 가족의 해를 막으려고 거짓 자백을 하고 옥에 갇힌다. 소흥 지부 최형은 무고를 의심해 범한을 쫓아내지만 화진은 옥에 갇히고, 범한은 옥졸을 매수해 화진을 독살하려는 음모를 계속 진행한다.
핵심 소재	성 부인의 부재: 집안의 보호막이 사라져 심 씨 모자의 음모가 본격화되는 외부 조건이다. 고소장: 정당한 법적 절차의 탈을 썼으나 실제로는 화진을 해치려는 무고의 수단이다.

예상 출제 추과 합정

- 1 인물의 태도 파악** 성 부인의 우려 섞인 당부와 이에 대처하는 심 씨의 이중적 면모를 이해한다.
- 2 서술자의 시선 분석** 작가의 목소리가 개입하는 부분을 찾아 인물의 고통과 비극적 상황을 감상한다.
- 3 심 씨가 성 부인이 떠날 때 내신 한숨을 화진 부부의 미래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태도로 해석한다.** 이는 성 부인이라는 제약이 사라져 안도하는 마음과 음모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 4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청이 개입한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단정한다.** 외형은 고소권 행사이나 본질은 허위 사실을 꾸며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는 고소권 남용이다.

LIT 078

작자 미상 · 수록 · 20쪽

임진록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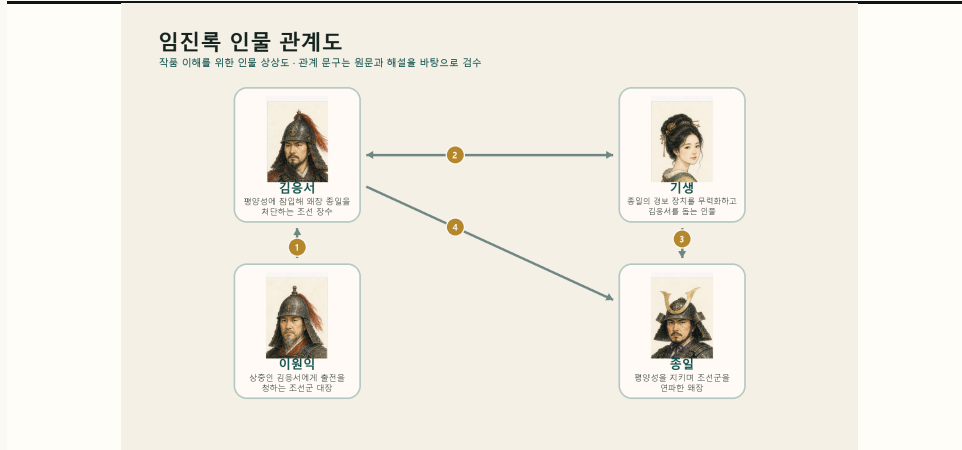
역사의 아픔을 허구로 달래는 영웅담

A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왜란의 참상을 이겨내려는 민중의 의지와 민족적 자부심 고취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이원익 → 김응서: 상종인 김응서에게 나라를 위해 출전에 달라고 청함 / 김응서 ↔ 기생: 종일 처단을 함께 꾀하고 희생을 줌 / 기생 → 종일: 수청을 들며 경보 방울을 무력화함 / 김응서 → 종일: 평양성에 갇히게 된 종일을 기습해 처단함

욕망·판단·변화

김응서

나라의 국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왜장 종일을 처단하고 왜란을 진압함 가문의 부친상 상중 의리보다 국가의 대의명분과 안위를 우선함 출전을 주저하는 처지에서 영전 아래 통곡한 후 구국의 영웅으로 분투함

기생

조선인이라는 자각 하에 목숨을 걸고 조선의 장수를 도와 적장을 뺨 천민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선 민족적 연대감과 조국애 왜장 종일의 수청을 들다가 김응서의 대의에 적극 조력하는 주체로 활약함

종일

조선 장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평양성을 확실하게 방비함 장막 사면에 귀와 눈의 교차 경계 체제와 경보 방울을 장치함 치밀하게 조선군을 연파하다가 방심하여 참수되고 머리만으로 들보로 쥘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조선의 연패와 위기 왜장 종일에게 선봉 이원과 이원익이 크게 패한다. 도사가 도술로 이원익을 구하고 종일은 평양성으로 들어간다.	김응서의 참전 결정 상종이던 김응서는 나라의 위태로움을 전하는 이원익의 청을 받는다. 가문의 도리보다 국가를 우선해 영전에 울고 동참한다.	기생과의 극적 연대 홀로 성에 잠입한 김응서는 기생을 만났다. 조선인임을 자각한 기생은 종일의 경보 장치인 방울을 숨으로 막아 침입을 돕는다.	왜장 종일의 처단 김응서가 잡든 종일의 목을 벤다. 종일은 잘린 상태에서 일어나 들보를 치며 비범한 무력을 저항으로 표출한다.	기생의 희생과 귀환 김응서는 기생을 데리고 성을 넘으려 하나 평수맹에게 기생을 잃는다. 평수맹을 뺨 김응서는 성의 매복군의 도움으로 귀환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선봉장 이원과 대장 이원익은 왜장 종일의 부대에 크게 패해 달아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도사가 도술을 부려 이원익의 목숨을 구해주자, 종일은 군사들을 이끌고 평양성으로 물러나 수비에 전념한다.
수록 핵심	홀로 평양성에 잠입한 김응서는 수청을 들던 기생을 만나 조선인으로서 연대할 것을 청한다. 기생은 이에 동참하여 종일의 방비책인 방울들을 숨으로 막아 김응서가 침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수록 후	종일을 뺨 뒤 기생을 데리고 탈출하던 김응서는 기력이 다해 왜장 평수맹에게 기생을 잃는다. 김응서는 평수맹을 처단한 뒤 성 밖에 매복해 있던 안일봉의 부대와 접응하여 무사히 아군 진영으로 복귀한다.
핵심 소재	방울: 종일이 성안 군막 사면에 삼엄하게 장치해 둔 비상 경보 도구 숨: 기생이 방울 소리를 조용하게 차단하기 위해 준비한 재료

예상 출제 추과 함정

1	편집자적 논평 파악 서술자가 개입해 김응서의 무용을 추종낙엽에 비유하여 주관적으로 극찬하는 표현을 묻는다.
2	설화적 상상력의 효과 도사의 등장과 종일의 시신 저항 등 초현실적 묘사가 당대에 부여한 정신적 위안을 이해한다.
3	기생이 끝까지 김응서의 등에 업혀 성을 무사히 탈출한 뒤 전공을 상으로 인정받았다고 봄 기생은 탈출 도중 왜장 평수맹의 기습적인 한칼에 희생되어 슬픔과 애도의 대상이 됨
4	김응서가 국가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아껴서 이원익의 요청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함 부친상 상중이라는 예법과 가문 도리를 지키려던 사적인 정으로 인해 참전을 처음에 망설인 것임

LIT 079

작자 미상 · 수록 · 142쪽

금방울전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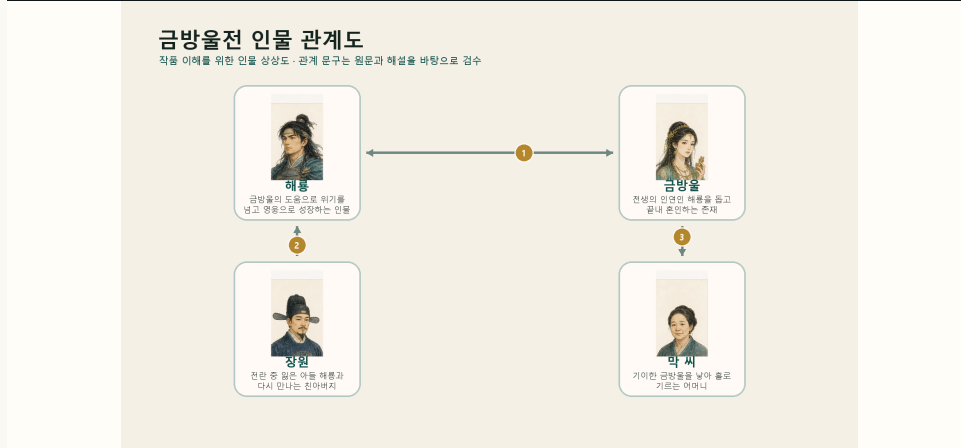
금방울의 신통력으로 엮어낸 전생의 인연과 부자 상봉

A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금령의 영웅적 활약과 고난을 극복하며 전생의 인연을 되찾는 과정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금방울 ↔ 해룡: 위기마다 구하고 끝내 혼인하는 전생의 인연 / 장원 ↔ 해룡: 전란 중 헤어졌다가 표지로 서로를 확인하는 부자 / 금방울 ↔ 막씨: 기이한 모습으로 태어나 어머니를 봉양함

욕망·판단·변화

해룡

전란 중에 헤어진 친부모를 찾아 자식의 효도를 실천하고 싶어 함 백발노인의 꾸짖음이 담긴 꿈을 꾸 후 자신을 가다듬음 위왕과 어사가 되고 부모를 찾아 벼슬과 효도를 모두 성취함

금령

신통력을 발휘해 해룡을 지키고 전생의 부부 인연을 지상에서 완성함 천상의 지시와 전생의 연분에 따라 행동을 결정함 방울의 허물을 벗고 절색의 여인으로 변신해 해룡과 혼인함

사또

전란 때 피란길에서 잃어버린 외아들을 평생 그리워하며 찾고 싶어 함 금령이 전한 족자와 복두칠성 모양의 일곱 개 사마귀로 아들을 관별함 어사로 찾아온 해룡이 친아들임을 확인하고 평생의 한을 풀

어냄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기이한 출생과 이별

장원 부부는 해룡을 낳고 전란 중에 헤어진다. 막 씨는 비인간 형상인 금방울을 낳아 기른다.

전개

신통력과 보은

금방울은 뛰어난 능력으로 막 씨를 돕는다. 죽은 장원 부인을 살려내고 금령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위기

박해와 피신

해룡은 양어머니의 박해를 피해 금령과 집을 떠난다. 금령은 요괴에게 삼켜진다.

절정

요괴 퇴치와 구출

해룡은 지하국으로 내려가 요괴를 물리치고 금선 공주와 시녀들을 구출한 뒤 부마가 된다.

결말

가족 상봉과 결합

어사가 된 해룡은 족자와 사마귀를 표식 삼아 부모를 찾는다. 금령은 허물을 벗고 해룡과 혼인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지하국에서 요괴를 물리치고 금선 공주를 구출한 해룡은 황성으로 돌아와 황제의 환대를 받는다.
수록 핵심	해룡은 공주의 꿈 이야기에 따라 부마가 된다. 이후 어사가 되어 뇌양현 객사에서 사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꿈에서 백발노인의 꾸짖음을 듣고 다시 사또를 찾아가 벽에 걸린 족자를 보게 된다.
수록 후	두 사람은 각자 가진 족자가 일치함을 확인한다. 사또가 아들의 신체 특징을 말하자 해룡은 자신임을 깨닫고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상봉한다.
핵심 소재	금방울: 비인간적 형상으로 신통력을 발휘해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여성 영웅의 매개체 꿈: 앞날을 예고하거나 부모를 찾도록 일깨워 인물들에게 행동 방향을 제시함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여성 영웅 서사의 사회적 의미** 여성이 방울이라는 형태로 비범한 능력을 펼치는 모습에는 주체적 활약을 열망하는 당대 여성 독자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 서사 장치로서 꿈의 기능** 공주의 예언적 꿈이나 해룡의 남가일몽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사건 전개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또는 해룡이 객사에 머물며 대화를 나눌 때 그의 얼굴만을 보고 친아들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사또는 해룡의 외모만으로 알아보기 못했다. 두 개의 족자가 일치하고 해룡 등의 일곱 사마귀를 확인한 후에야 확신했다.
- 천자와 황후는 해룡이 납치된 공주를 구해왔으나 그의 신분이 비천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혼인을 반대했다.** 천자는 공주가 꾸민 꿈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하늘이 정한 배필임을 인정하고 크게 기뻐하며 부마로 삼아 혼인을 명했다.

LIT 080

작자 미상 · 수록 · 146쪽

적벽가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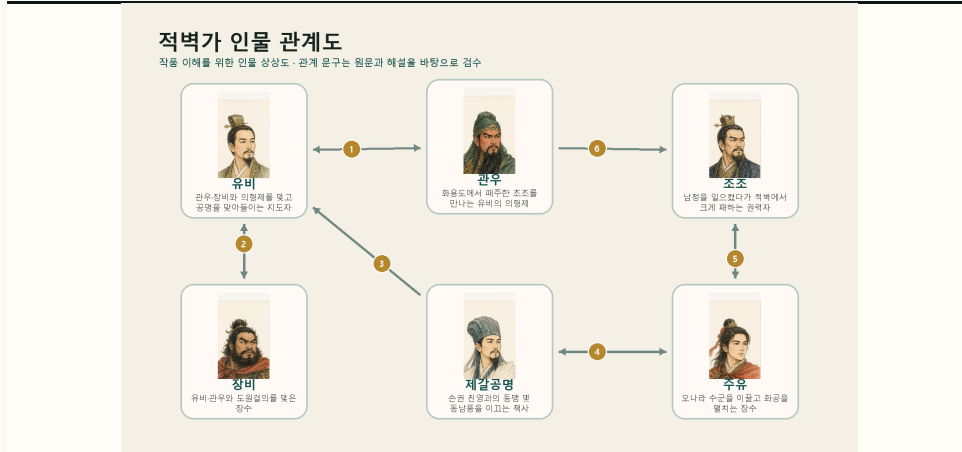
영웅들의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민중의 서러운 목소리

A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전쟁에 동원된 군사들의 슬픔과 애환을 드러내며 권력자의 교만과 위선을 날카롭게 풍자함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유비 ↔ 관우: 도원결의로 맺어진 의형제 / 유비 ↔ 장비: 도원결의로 맺어진 의형제 / 제갈공명 → 유비: 삼고초려로 맞아들인 군사와 주군 / 제갈공명 ↔ 주유: 조조에 맞서 화공을 준비하는 동맹 / 주유 ↔ 조조: 적벽 대전에서 맞서는 적대 관계 / 관우 → 조조: 화용도에서 지난 은혜를 생각해 길을 열어 줌

욕망·판단·변화

조조

천하를 무력으로 평정하고 강남의 절세 미인들을 소유하려 함. 위엄과 영웅적 권위를 중시하나 사리사욕에 이끌려 행동함. 승리를 장담하며 교만했으나 불길한 징조에 분노를 이기지 못함.

유복

군대의 안위를 살피고 조조의 불길한 발언을 바로잡으려 함. 충직한 신하로서 상서롭지 못한 징조를 정직하게 고쳐 잡으려 함. 승상의 교만과 분노를 사서 정직한 충고의 대가로 살해당함.

화병

고향 집에 정성껏 기르며 두고 온 새끼 까치와 다시 만나려 함. 지배층의 거창한 명분보다 개인의 소박하고 일상적인 애환을 중시함. 병거지에 숨어 울다가 조조의 경망한 시 읊기를 대놓고 비판함.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도원결의와 공명 영입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맺고, 유비는 삼고초려 끝에 제갈공명을 군사로 맞아들인다.	전개 유비와 손권의 동맹 제갈공명은 조조의 대군에 맞서기 위해 오나라로 건너가 손권 진영과 동맹을 이끈다.	위기 잔치를 군사의 설움 조조는 승리를 장담하며 잔치를 벌이고 간단한 유복을 죽인다. 징집된 군사들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설움을 토로한다.	절정 적벽 대전의 대패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려오자 주유가 화공을 펼친다. 쇠사슬로 묶인 조조의 함대는 불타고 대군은 무너진다.	결말 화용도의 구걸 화용도로 달아난 조조는 관우에게 지난 은혜를 내세워 목숨을 구걸하고, 관우가 길을 열어 주자 간신히 살아난다.
---	---	--	---	--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적벽 대전을 앞두고 조조는 아군 전선들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결속한다. 강물이 잔잔하고 날씨가 맑은 좋은 날을 택해 대대적인 군사 진작 행사를 준비하며 양편에 수백 척의 배를 벌려 군대의 위용을 갖추어 둔다.
수록 핵심	조조는 큰 잔치를 베풀어 음식을 풍성하게 나누고 사방의 경치를 보며 교만함에 젖는다. 달밤에 나는 까마귀를 핑계 삼아 노래를 지었으나 유복이 불길함을 간언하자 그를 죽사시키고, 병거지 밑 화병을 시작으로 군사들은 각자 서러움을 말한다.
수록 후	적벽 대전에서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려와 주유의 화공이 성공하고, 조조의 백만대군은 불살당하며 조조는 간신히 화용도로 도망쳐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한다.
핵심 소재	이교녀: 조조가 전쟁을 일으킨 사리사욕과 인륜을 무시하는 위선적 본질을 드러내는 소재 까마귀: 조조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게 만들며 장차 다가올 패전의 불길함을 암시하는 소재

예상 출제 추과 함정

1	영웅 소설의 주체적 변용과 비판 의식 원작의 영웅적 중심 서사에서 벗어나 이름 없는 군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지배층을 풍자함
2	판소리 사설의 독특한 서술상 특징 말을 건네는 어조와 서술자 개입을 활용하며 어휘를 나열하고 반복해 장엄하거나 우스꽝스러운 국면을 이끌어냄
3	작중에서 '개가향할는지, 소가향할는지'라는 표현은 서술자가 인물의 미래 신세를 직접 평한 구절로 오해하게 만든다. 이 대목은 서술자의 개입이 아니라 현실찬 군사의 호전적 주장에 대해 다른 군사가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해 조롱한 말장난이다.
4	조조가 읊은 '아침 이슬 같은 삶'이라는 가사는 승리를 장담하는 호전적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노래는 감상적인 무상감을 담고 있으며, 조조가 보여주는 호기로운 모습과 대비되어 앞으로 직면할 비극적 패배를 반어적으로 암시한다.

LIT 081

작자 미상 · 수록 · 262쪽

인현왕후전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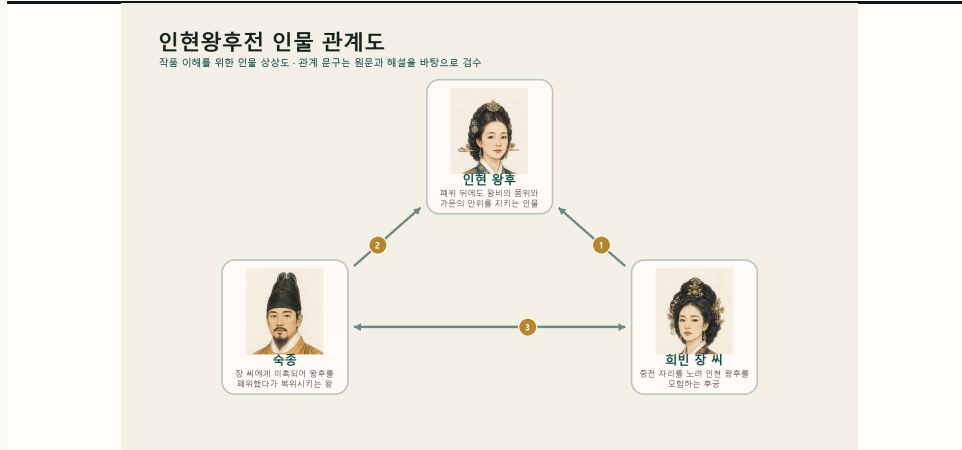
시련 속에서도 빛나는 유교적 정조

A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인현 왕후의 고결한 덕성과 시련을 극복하는 인내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회빈 장 씨 → 인현 왕후: 중전 자리를 노려 모함하고 폐위를 부추김 / 숙종 → 인현 왕후: 장 씨에게 미혹되어 폐위했다가 뒤늦게 복위시킴 / 회빈 장 씨 ↔ 숙종: 교태와 모함으로 미혹했으나 악행이 드러나 처벌받음

욕망·판단·변화

인현 왕후

유교적 덕성을 바탕으로 국모의 책임을 다하고 가문의 안위를 보존함 삼강오륜과 열녀전의 법도를 지키며 어떠한 시련에도 근신하고 인내함 폐비의 절망적인 운명 속에서도 원망 없이 품위를 고수하며 복위함

회빈 장씨

왕비를 밀어내고 중전의 권력을 차지하여 자신의 가문을 번창시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모함하며 사리사욕과 총애에 집착함 왕비가 되어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다가 음모가 발각되어 파멸함

숙종

후사를 얻고 왕실을 안정시키며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통치함 총애하는 후궁의 참소에 흔들려 국가의 기강과 사리분별을 잃음 장 씨의 요사스러운 음모를 깨닫고 과거를 후회하며 인현 왕후를 복위시킴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간택과 입궐 어려서부터 성품이 덕행을 갖춘 인현 왕후는 간택을 거쳐 국모로 즉위한 후 효성을 다하며 소임을 수행한다.	회빈의 모함 후사가 없자 후궁 간택을 권유했으나, 숙종의 은총을 입은 회빈 장씨가 왕자를 낳은 후 왕후를 참소하여 해치려 한다.	폐위와 사가 장 씨에게 미혹된 숙종이 중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왕후를 폐위하자, 안국동 사가에서 좌인처럼 근신하며 지낸다.	복위와 서거 숙종이 장 씨의 악독함을 깨닫고 왕후를 다시 복위시키나, 장 씨의 저주로 인해 왕후는 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다.	장씨 처단 신당을 차려 저주한 사실이 밝혀져 장 씨는 사약을 받고 처단되며, 이후 영조가 즉위하여 왕실의 기강이 바로 선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인현 왕후가 회빈 장씨의 참소로 인해 폐위되어 안국동 사가로 쫓겨난 후, 집안에 풀이 우거지고 귀신이 나타날 정도로 황폐한 환경에서 구차한 생활을 이어가며 스스로 좌인이라 칭하고 근신한다.
수록 핵심	가을날 친정에서 가져온 송이를 보며 궁중에서 시부모께 효도하던 때를 떠올려 눈물을 흘리고, 사가로 들어온 큰 개를 내치지 않고 돌보아 도깨비를 물리치며 조카에게 소학과 열녀전을 가르치며 지낸다.
수록 후	숙종이 마침내 장 씨의 간사한 모략을 깨닫고 왕후의 무죄를 밝히며 어찰을 보내고, 왕후가 거듭 겸양하며 사양한 끝에 대문을 열어 어찰을 받아 읽고 비로소 궁으로 복위하라는 명을 수용한다.
핵심 소재	송이: 과거 궁궐에서 시어른들을 모시며 효도를 다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큰 개: 잡귀를 쫓아 가정을 수호하며 무지한 금수조차 의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존재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1 인물의 심리와 태도** 폐위 시 원망하지 않고 근신하는 태도와 어찰 수령 시 보인 침착한 감정 조절을 비교 이해한다.
- 2 소재의 상징적 기능** 송이의 매개체 기능, 큰 개의 조력자 역할, 어찰에 담긴 참회의 의미를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 3 인현 왕후가 안국동에서 색깔 있는 옷 대신 무명옷을 입은 것은 임금에 대한 무언의 저항이다.** 이는 불만이 아니라, 좌인의 신분으로서 사치를 멀리하고 엄격하게 근신하려는 덕성을 실천한 행동이다.
- 4 인현 왕후가 친정에서 가져온 송이를 보며 눈물을 흘린 것은 누렸던 권력에 대한 미련 때문이다.** 과거 궁중에서 시어머니들을 지성으로 모시며 송이를 진상하던 때를 회상하며 흘린 효심의 눈물이다.

LIT 082

작자 미상 · 수록 · 304쪽

황새결송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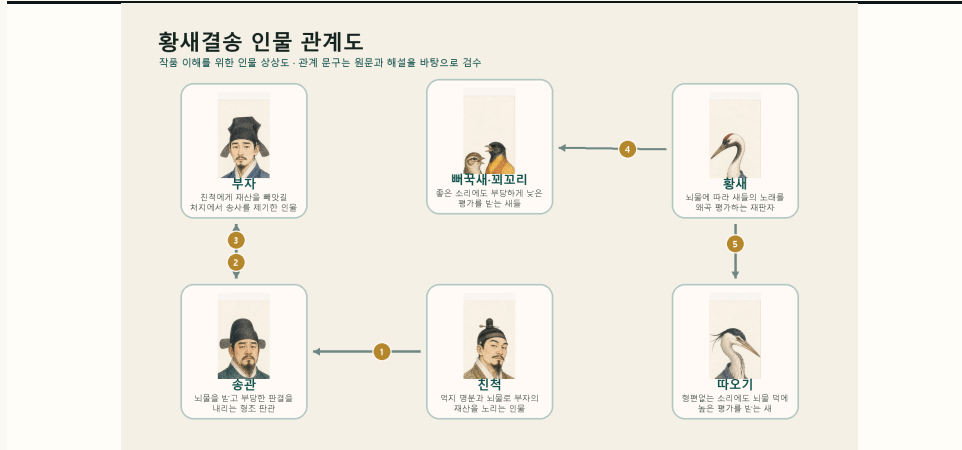
너물로 얼룩진 재판을 날짐승의 송사로 풍자하는 소설이다.

A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너물에 흔들리는 법 집행에 대한 비판과 부패한 세태 풍자.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친척 → 송관: 뇌물을 건네 부당한 판결을 끌어냄 / 송관 → 부자: 재산 송사에서 친척 편을 들어 패소시킴 / 부자 → 송관: 새들의 결송 우화로 부당한 판결을 비판함 / 황새 → 삿갓새·피꼬리: 좋은 노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함 / 황새 → 따오기: 뇌물을 받고 형편없는 노래를 높게 평가함

욕망·판단·변화

부자

정당한 재산을 지키고 무도한 친척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일 자신의 도덕적 행동과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합법적 재산 소유권 법을 고지식하게 신선했으나 판결 후 우화로 관원을 풍자함

친척

억지 주장을 펼쳐 부자의 가산 중 절반을 빼앗는 일 돈과 연줄만 있으면 어떤 재판이든 이길 수 있다는 시속 물정 변함없이 간사한 태도로 관리들을 매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함

송관

재판관의 위엄을 세우며 사적인 청탁과 이익을 행기는 일 사실 여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들어온 뇌물과 사적인 연줄 위세를 부리며 부자를 꾸짖었으나 우화를 듣고 수치심을 느낌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일가친척의 행패 경상도 부자에게 한 친척이 찾아와 가산의 절반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다. 동리 사람들은 부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유한다.	부자의 상송과 청탁 부자는 법의 공정함을 믿고 상송하지만, 친척은 형조 서리와 판관을 찾아가 미리 뇌물을 바치고 청길을 뚫어 둔다.	부당한 패소 판결 매수당한 판관은 부자가 친척을 돕지 않는 불의한 자라며,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부당한 결송을 내린다.	우화의 제안 부자는 직접 항의하다가 매를 맞을까 염려하여, 대신 송관을 풍자하기 위해 새들의 소리 다툼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청한다.	관원들의 부끄러움 따오기가 뇌물로 황새를 매수해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형조 관원들은 자신들을 비꼬는 것임을 알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경상도 부자에게 패악무도한 일가친척이 찾아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을 강제로 요구한다. 부자는 억울함을 풀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한양 형조로 가서 송사를 제기한다.
수록 핵심	부자는 자신의 정당함을 믿고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지만 친척은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한다. 송관은 부자가 지친을 구제하지 않는 무도한 자라며 재산을 나누라는 판결을 내리고, 부자는 직접 항의하는 대신 황새결송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록 후	뇌물을 받은 황새가 따오기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형조 관원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불공정한 판결을 비꼬는 비유임을 깨닫는다. 관원들은 대답할 말이 없어 부끄러워한다.
핵심 소재	개구리와 우렁이: 따오기가 황새에게 바친 음식으로, 공정함을 무너뜨리는 뇌물을 상징한다. 녹비(사슴 가죽):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글자가 변하듯 주관 없이 왜곡되는 법 집행을 뜻한다.

예상 출제 측과 함정

- 역사적 구성과 인물의 대응 관계** 외화의 인간 세상 사건과 내화의 동물 우화가 지닌 일대일 상징적 대응을 묻는다.
- 조선 후기 송사 제도의 부패상** 돈과 뇌물에 따라 판결이 왜곡되는 당대 사법 현실의 부조리를 파악하는지 묻는다.
- 부자는 형조에 소송을 올린 후 이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은밀한 인맥을 찾았다**였다. 부자는 자신의 정당함만 믿고 고지식하게 기다렸으며, 뇌물을 쓴 쪽은 친척뿐이다.
- 황새는 따오기, 피꼬리, 삿갓새의 소리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교하여 심사했다**. 황새는 전날 밤 따오기에게 받은 개구리와 우렁이 때문에 부정한 왜곡 판결을 했다.

LIT 083

작자 미상 · 수완 · 68쪽

장풍운전

98

장풍운이 신물로 헤어진 가족을 단원사에서 만나 가문을 재건하는 이야기

A · 표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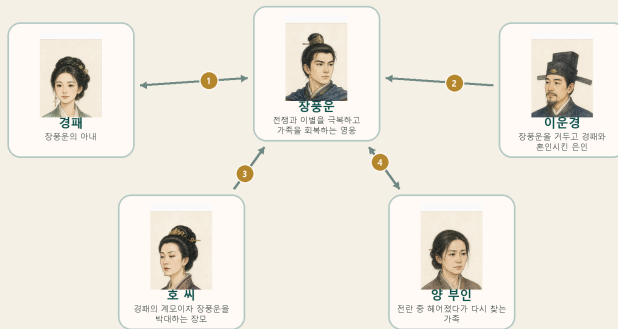
한 문장
핵심

전란으로 흩어진 가족이 정절과 효성을 지키며 초월적 인도로 다시 만나 가문의 질서를 회복함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장풍운전 인물 관계도

작품 이해를 위한 인물 상상도 · 관계 문구는 원문과 해설을 바탕으로 검수



장풍운 ↔ 경패: 부부-이별 뒤 재회 / 이운경 → 장풍운: 양육·혼인 후원 / 호 씨 → 장풍운: 장모의 박대 / 장풍운 ↔ 양 부인: 모자 관계-이별 뒤 상봉

욕망·판단·변화

장풍운

국란을 평정하고 헤어진 가족을 다시 찾아 효도와 부부의 정을 다함 천자에 대한 충의를 지키고 부인과 나눈 신뢰를 끝까지 소중히 여김 대원수의 위엄을 떨치다가 가족을 찾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절에 오름

경패

박대를 피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남편과 다시 만나는 것 남편이 남긴 신물을 평생 고이 간직하며 정절과 효성을 지킴 모진 시련을 묵묵히 견디다 신물을 전해 받고 격렬히 오열하며 기절함

양 부인

난리로 잃은 남편과 아들을 다시 만나 무너진 가정을 되살림 불가에 귀의해 불공을 드리며 헤어진 아들을 그리워하는 지극한 모성 절에서 세월을 버티다 아들의 신물을 확인하고 기절할 만큼 감격함

전체 즐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가족의 이산과 시련

송나라의 장풍운은 가달의 침략으로 부모와 헤어진다. 그는 이운경에게 구조되어 성장하고 경패와 혼인한다.

전개

박대로 인한 가출

이운경이 죽자 계모 호 씨가 박대한다. 풍운은 처남 경운과 가출하고 경패도 떠돌다 단원사에서 시어머니를 만난다.

위기

과거 급제와 출정

풍운은 과거 급제해 한림 학사가 된다. 서번과 서달이 침공하자 천자가 대원수로 임명해 군사를 보낸다.

절정

승전과 꿈속 계시

풍운은 지략으로 적을 물리치고 변왕의 항복을 받는다. 회군 길에 꿈에서 노승을 만나 여남 소리로 행군한다.

결말

단원사에서의 재회

풍운은 단원사에서 노승을 만나 내력을 밝힌다. 이별할 때 나누어 주고리와 진주투심을 맞춰보며 가족과 상봉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서번과 서달의 침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승상 이진이 장풍운을 천거한다. 천자는 장풍운을 불러 대원수로 임명하고 백만 대군을 내어주며 출정을 명한다.

수록 핵심

장풍운은 계교를 써서 적장 번달을 쳐부수고 변왕의 항복을 받는다. 회군 중 꿈에서 노승의 계시를 받아 여남으로 간다. 죽장마해 차림으로 단원사에 올라가 현실의 노승을 만나고, 저고리와 진주투심을 대조해 경패 및 모친과 상봉한다.

수록 후

신물을 확인한 경패와 양 부인은 슬픔과 기쁨에 겨워 통곡하다 기절한다. 승려들이 이들을 붙들어 정신을 차리게 하고, 풍운은 헤어졌던 가족과 눈물로 재회한다.

핵심 소재

오방기치: 풍운이 전장 지휘대에서 군사를 이끌 때 쓰인 도구로 그의 뛰어난 지략을 비춤 여남 소로: 대로와 대비되는 좁은 길로 공적 복귀에서 사적 가족 탐색으로 방향을 틀게 함

예상 출제 추과 함정

1

영웅 소설과 가정 소설의 결합 구조 국가적 위기를 평정하는 영웅담이 개인의 이산가족 상봉과 가문 수습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이해한다.

2

초월적 조력자와 꿈의 기능 노승이 꿈속에서 예시를 남기고 현실의 단원사에서 이를 검증해 사건을 이끄는 흐름을 살핀다.

3

장풍운은 전란 속에서 도술이나 초현실적인 능력을 부여 적장 번달을 손쉽게 베고 대승을 거두었다. 장풍운은 도술을 쓰지 않았으며 선봉장의 유인책과 오방기치를 다룬 군사 지휘 지략으로 적을 이겼다.

4

장풍운은 고을 태수로부터 가족들의 은거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구출을 결심하여 단원사를 방문했다. 태수는 단지 경치 좋은 승방으로 단원사를 추천했을 뿐이며 풍운은 우연히 들렀다가 가족을 만났다.

LIT 084

작자 미상 · 수완 · 172쪽

운영전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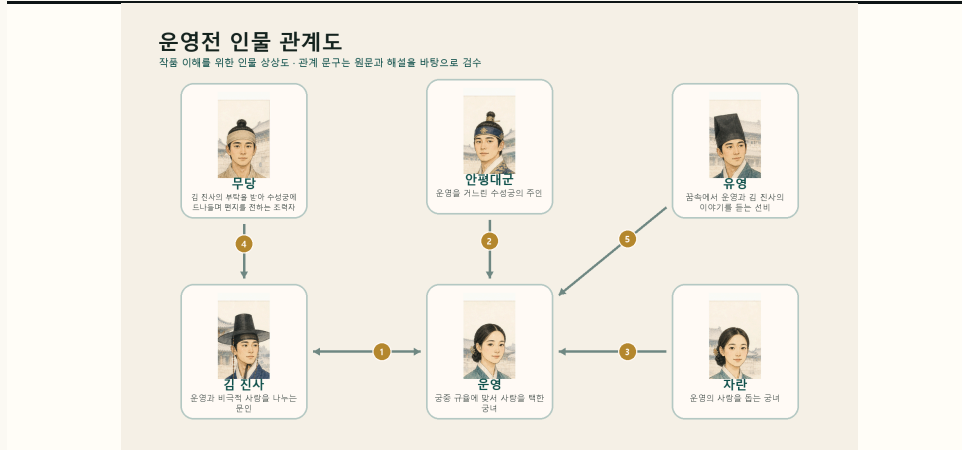
수성궁 담장 아래 금기를 넘어 사랑을 도운 궁녀들의 눈물겨운 연대기

A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신분 제약과 궁궐 규율이라는 억압을 극복하려는 본원적 사랑과 인간적 욕망의 성취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운영 ↔ 김진사: 비극적 사랑 / 안평대군 → 운영: 주군-궁중 규율 / 자란 → 운영: 친구-만남을 도움 / 무당 → 김진사: 편지를 전해 운영과의 소통을 도움 / 유영 → 운영: 꿈속 이야기를 들음

욕망·판단·변화

운영

궁궐의 수직적 장벽을 벗어나 김 진사와의 자유로운 애정을 성취하는 일 김 진사를 향한 굳은 정조와 자신을 지켜주는 동료 궁녀들과의 신뢰 자신의 마음을 숨기다 동료들의 지지를 깨달은 뒤 솔직하게 이실직고한다

김진사

안평 대군이라는 절대 권력의 눈을 피해 수성궁의 운영과 평생을 함께함 운영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신의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태도 문인의 모습에서 편지를 몰래 건네고 궁궐 탈출을 시도하는 주체로 변한다

자란

연모의 열병을 앓으며 다 죽어가는 단짝 운영을 구하고 사랑을 돕는 일 고집을 꺾지 않고 상황에 발맞춰 융통성을 도모하는 권도의 지혜 다들이 장소 변경이 만대에 부딪히자 권도의 논리로 남궁 사람들득을 설득한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수성궁에서의 만남 유영이 수성궁 폐허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꾸다. 그는 꿈속에서 궁녀 운영과 문인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슬프고 아름다운 과거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자란의 빨래터 계획 운영과 김 진사는 우연한 만남 후 편지로 연정을 나눈다. 동료 궁녀 자란은 추석 빨래 장소를 소격서동으로 변경해 운영이 김 진사에게 편지를 보낼 계획을 짤다.	궁녀들의 대립과 경고 경치 좋은 탕춘대를 고집하는 남궁 사람들과 소격서동을 제안한 서궁 사람들이 맞선다. 금련은 주역 점괘를 쳐서 외간 사람에게 이름이 알려질 때 닥칠 위험을 경고한다.	비경의 눈물과 권도 비경이 운영의 깊은 사랑병을 눈물로 전해 궁녀들의 마음을 흔든다. 자란이 형편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권도를 설득의 논리로 제시하자 남궁 궁녀들이 일제히 찬성한다.	사랑의 파국과 유영 계획이 성공해 뜻을 이어나가나 결국 안평 대군의 추궁과 문책을 받는다. 운영은 자결하고 김 진사도 굶다가 뒤따라 세상을 떠나며, 유영은 그 사연이 적힌 책을 보며 잠에서 깬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유영이 꿈속에서 만난 운영과 김 진사로부터 그들의 사연을 듣는다. 수성궁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비밀리에 편지를 교환하며 마음을 키우고, 동료 자란은 이들이 밖에서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추석 빨래 장소를 바꾸는 영리한 제안을 던진다.
수록 핵심	빨래 장소를 두고 남궁의 탕춘대 고집과 서궁의 소격서동안이 충돌한다. 금련이 주역 점괘로 죽음의 위험을 경고해 계획이 좌초될 뻔하나, 비경이 운영의 야윈 모습과 연모의 고통을 눈물로 증언하고 자란이 형편에 따른 융통성인 권도의 이치를 주장해 만장일치를 끌어낸다.
수록 후	장소를 변경해 무사히 편지를 전하고 사랑을 잊지만, 시에 묻어낸 애정 탓에 대군의 추궁을 받는다. 가혹한 궁궐 금기와 처벌의 위협 앞에서 탈출 계획마저 어그러지자 운영은 자결을 선택하고 김 진사 또한 곡기를 끊고 슬퍼하다 요절하는 비극을 맞이한다.

핵심 소재

수성궁: 대군의 엄격한 규율이라는 수직성과 궁녀들의 연대라는 수평성이 마찰하는 폐쇄적 공간 소격서동: 탕춘대라는 예전의 관계를 거부하고 김 진사에게 편지를 건낼 수 있는 기회의 공간

예상 출제 추과 합정

1	수성궁의 공간적 특성과 갈등의 다층성 안평 대군으로 상징되는 수직적 질서와 궁녀들 간의 수평적 연대가 일으키는 복합적 갈등 양상을 파악하는지 묻는다.
2	장소 선택을 둘러싼 설득과 말하기 방식 주역괘의 인용, 비경의 쇠약함 묘사, 자란의 권도 주장 등 다양한 말하기 방식을 바탕으로 설득의 흐름을 이해한다.
3	남궁 궁녀들이 소격서동 장소에 반대하고 불참하려 한 이유는 자란의 편지 계획을 회방하고 안평 대군에게 충성하기 위함이다. 남궁 사람들은 애초에 자란의 은밀한 목적을 알지 못했고, 금련은 궁을 나섰을 때 처해질 가혹한 사죄의 벌을 두려워했을 뿐이다.
4	자란의 설득을 거쳐 궁녀들이 일제히 소격서동 나들이에 찬성한 것은 수성궁의 폐쇄적 수직 질서가 허물어졌음을 나타낸다. 수직적 규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운영을 향한 공동체의 연민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두려움을 넘어서기로 선택한 화합의 결과다.

LIT 085

작자 미상 · 수완 · 252쪽

이춘풍전

100

남장 아내의 지혜로 무능한 남편을 구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판소리계 소설

A · 표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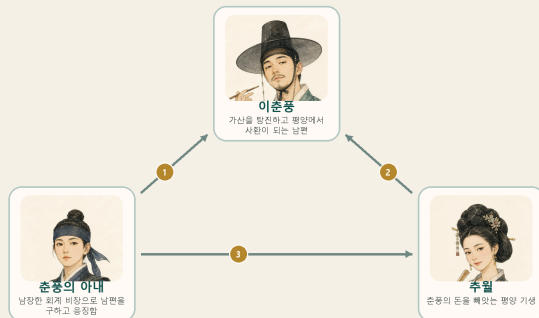
한 문장
핵심

가부장제 허위의식과 방탕한 세대 풍자 및 주체적 여성상에 대한 긍정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이춘풍전 인물 관계도

작품 이해를 위한 인물 상성도 · 관계 문구는 원문과 해설을 바탕으로 검수



춘풍의 아내 → 이춘풍: 부부·구출과 응징 / 춘풍 → 이춘풍: 재산을 빼앗고 사환으로 부림 / 춘풍의 아내 → 춘풍: 비장으로 문책·돈 회수

욕망·판단·변화

이춘풍

가정을 돌보지 않고 즐기는 사치스러운 유흥과 가장의 권위 체면과 허세 및 돈의 소유 상태에 따른 비굴하거나 교만한 태도 사환에서 비장의 도움으로 풀려난 후 개과천선하여 방탕함을 청산함

춘풍의 아내

몰락한 가산의 재건과 방탕한 남편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 주체적인 문제 해결과 가정을 수호하려는 강한 책임감 수동적 아내에서 남장 회계 비장이 되어 주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함

춘풍

남성을 유혹하여 얻어내는 재물의 착취와 물질적 사치 철저한 배금주의로 돈의 유무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함 춘풍의 돈을 편취해 부리다가 비장의 처벌에 굴복하고 돈을 반납함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선대 재산 탕진

서울에 사는 방탕한 이춘풍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방탕하게 놀아 모두 탕진한다.

전개

아내의 재건

춘풍 아내가 살림을 어렵게 일구지만, 춘풍은 다시 가산과 호조 나맛돈 이천냥을 들고 평양으로 떠난다.

위기

춘풍의 전락

춘풍은 평양 기생 춘풍의 유혹에 빠져 모든 돈을 잃고 춘풍의 집에서 사환 신세로 전락한다.

절정

남장 아내의 벌

아내가 남장하여 회계 비장이 되어 평양에 간다. 아내는 비장으로서 춘풍과 춘풍을 엄히 문책하여 빚진 오천냥을 회수한다.

결말

춘풍의 회개

춘풍이 서울에서 허세를 부리자 아내는 다시 비장 복장으로 나타나 그의 허위의식을 깨우치고, 춘풍은 잘못을 반성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춘풍이 가산을 날린 후 아내의 만류를 무시하고 호조 나맛돈 이천냥을 빌려 평양으로 간다. 춘풍은 기생 춘풍에게 빠져 전 재산을 날리고 춘풍 집의 사환으로 전락한다. 남편의 소식을 들은 아내는 회계 비장으로 남장하여 평양 감사를 따라 평양으로 내려간다.

수록 핵심

남장한 회계 비장은 춘풍의 집에서 초라한 춘풍에게 차담상을 내어준다. 이후 춘풍을 잡아들여 형틀에 매고 호조 돈을 탕진한 책임을 엄히 추궁하며 매질한다. 이어 기생 춘풍도 잡아와 별태장으로 매질하며 문책하여 오천냥을 바치겠다는 자백을 받아낸 후 풀어준다.

수록 후

춘풍은 돈을 싣고 서울로 가 가솔에게 큰돈을 번 척 허세를 부리며 상차림을 타박한다. 아내가 황혼에 비장 의복을 입고 나타나 그의 교만함과 이중성을 질타하자, 춘풍은 마침내 아내가 비장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여 회복한 가정을 이룬다.

핵심 소재

남장(비장 의복): 여성의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 공적 권력을 얻고 가정 내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수단 호조 돈: 춘풍의 방탕을 처벌하는 사법적 명분이자 춘풍을 단죄하는 합법적인 근거

예상 출제 축과 함정

1

남장 여성 서사의 주체적 성격 파악 제한된 사회적 조건에서 남장을 활용해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여성상을 파악한다.

2

춘풍의 이중적 태도 대비와 풍자 효과 평양 비장 앞에서의 비굴함과 서울 아내 앞에서의 허세를 대조하여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회화화하는 방식을 묻는다.

3

아내의 남장은 당대 사회의 남성 우위 가부장적 신분 질서를 긍정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남장은 제한된 당대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건의 해결사로서 주체적인 활약을 펼치도록 돕는 능동적인 장치이다.

4

형틀에 묶여 매질을 당하는 이춘풍을 향해 아내가 품은 연민은 그의 죄와 사법적 책임을 전부 면제했음을 알린다. 처벌 과정에서 느낀 부부간의 사사로운 안타까움일 뿐이며, 호조 돈의 회수와 춘풍의 단죄 과정은 계속 진행된다.

LIT 086

작자 미상 · 수록 · 150쪽

웅고집전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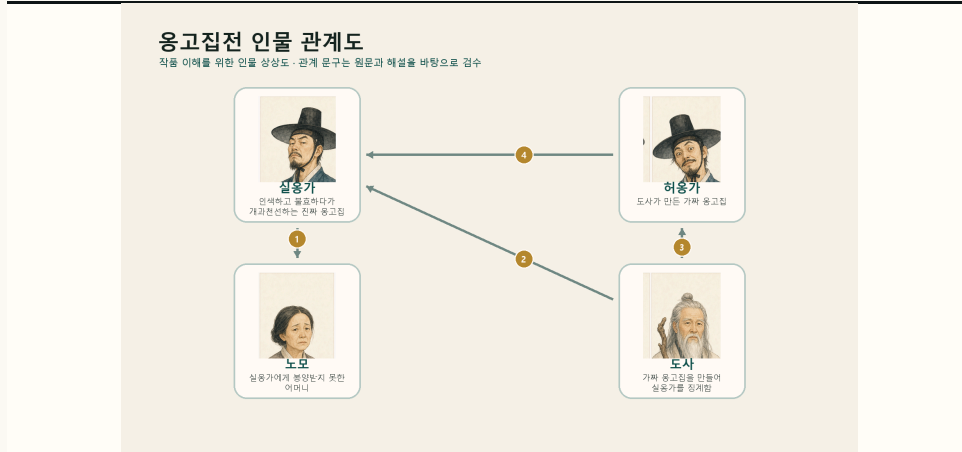
가짜에게 집을 빼앗긴 웅고집이 고난 끝에 참된 인간성을 찾는 소설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개과천선을 요구하는 당대 민중의 윤리 의식과 이기적 인물 풍자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실용가 → 노모: 모자·불효 / 도사 → 실용가: 징계·개과천선 유도 / 도사 → 허용가: 신통술로 창조 / 허용가 → 실용가: 진짜 자리를 빼앗음

육망·판단·변화

실용가

가족과 재산을 지키고 사리사욕을 무한히 채우고 싶어 함 눈앞의 물질적 부와 혈연적 지위 획득한 시련 뒤 잘못을 깨닫고 개과천선함

허용가

실용가의 자리를 점령하고 진짜 행세를 유지할 도사의 신통력과 집안 살림살이 내력에 대한 지식 역할을 다한 뒤 부적에 의해 쫓겨 뉘우침으로 되돌아감

백발 도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을 일깨움 불도 존중과 부모에 대한 효라는 도덕 가치 별을 내린 후 뉘우침을 보이자 구원의 길을 열어 줌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웅고집의 불효와 악행 인색한 웅고집이 병든 노모를 박대하고 시주를 하려 온 승려들을 모욕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도사의 가짜 분신 창조 취암사 도승이 웅고집을 정치하려고 짚에 부적을 붙여 외모가 똑같은 가짜 허용가를 만들어 보낸다.	진가쟁주와 실용가의 패소 두 웅고집이 진짜 다툼을 벌이고 관가 송사에서 사또의 오판으로 진짜가 곤장을 맞고 쫓겨난다.	실용가의 방황과 개과천선 쫓겨난 실용가가 산속을 헤매며 지난 죄를 눈물로 회개하자 백발 도사가 나타나 부적을 건넨다.	진짜의 복귀와 악인 교화 실용가가 도사의 말대로 부적을 몸에 붙이고 집에 돌아가자 가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진짜는 착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도승이 가짜 웅고집을 만들어 사랑방에 앉혀 진짜 행세를 하게 한 뒤 두 웅고집이 진짜 싸움을 시작하여 송사에 이른다.
수록 핵심	사또의 재판으로 가짜가 이겨 안방에 들어가고 진짜는 곤장을 맞고 쫓겨나 울며 산에서 방황하다 도사를 만나 회개하고 부적을 받는다.
수록 후	부적을 몸에 붙인 진짜가 집에 돌아오자 가짜와 자식들이 짚으로 환원되고, 진짜는 노모에게 효도하고 불도를 존중하며 살아간다.
핵심 소재	쫓겨 허수아비: 도승의 주술로 탄생해 진짜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를 소외시키는 도구 부적: 도술을 가동하고 해제하며 사건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신이한 장치

예상 출제 축과 함정

- 진가쟁주 화소와 사회 풍자** 가짜가 재산 세간을 외우는 것만으로 진짜가 패배하는 송사 모습을 지표 삼아 당시 불합리한 법 체계를 판단한다.
- 판소리계 문체와 해학의 활용** 비극적 퇴출 상황을 '도야지 새끼 낳듯' 등 과장되고 상투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웃음을 자아내는지 살핀다.
- 실용가는 사또의 매질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잘못을 자백하며 자신이 진짜임을 부정하였다.** 진정한 개과천선이 아니라 가혹한 형벌 밑에 목숨을 보존하려 임시방편으로 거짓 고백을 한 것뿐이다.
- 부적은 가짜 웅고집을 짚으로 돌려놓고 다시 사람으로 되살릴 수도 있는 변신의 양면성을 지닌다.** 백발 도사가 건넨 부적은 주술로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환원 장치이다.

LIT 087

작자 미상 · 수록 · 154쪽

옥단춘전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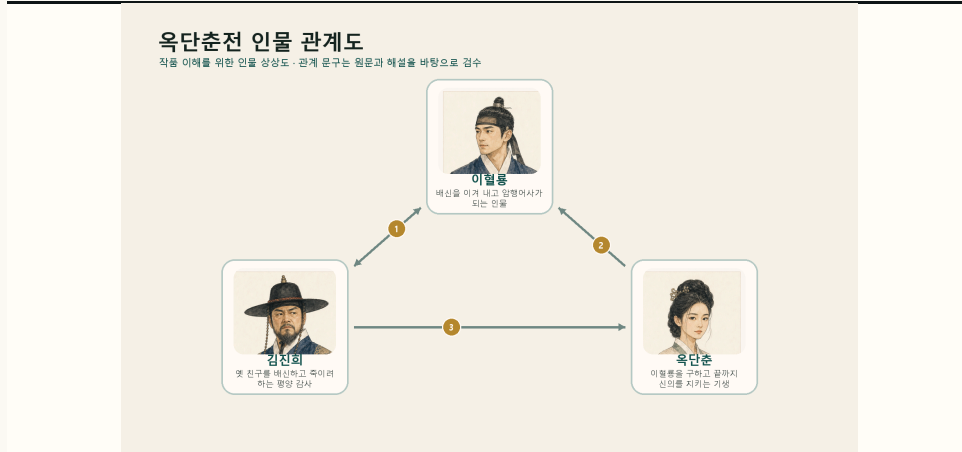
배신자 김진희를 단죄하고 변치 않는 신의와 참된 보은을 성취하는 이야기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지배층이 내세운 유교 윤리의 허구성을 고발하고 신분을 초월한 인간적 신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이혈룡 ↔ 김진희: 옛 친구에서 배신·응징으로 / 옥단춘 → 이혈룡: 구출·사랑·혼인 / 김진희 → 옥단춘: 이혈룡을 도운 일로 위협

옥망·판단·변화

이혈룡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고 은인인 옥단춘에게 보은하는 것 과거의 형제적 약속인 봉우유신과 자신을 구해준 연인에 대한 도덕적 의리 김진희의 배신에 탄식하다가 어사로 출두하여 악인을 응징하고 사랑을 이룸

옥단춘

신분 한계를 넘어 낭군과의 진정한 사랑과 신의를 완성하는 것 겉모습이 아닌 비범함을 알아보는 안목과 목숨을 건 희생적인 절개 걸인 행색의 낭군을 따뜻하게 위로하다 죽음의 위기에서 대속을 애원함

김진희

평양 감사로서 부귀영화를 수호하고 개인적 이익을 지키는 것 유교적 맹세보다 눈앞의 권세와 지배층으로서의 이익을 앞세움 옛 친구를 해치며 끝없이 탐욕을 부리다 암행어사 출두로 파멸을 맞이함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우정과 동맹의 약속 이혈룡과 김진희는 어린 시절 함께 수학하며 장차 출세하면 서로를 돕기로 굳게 맹세하고 형제의 정을 약속한다.	김진희의 배신 과거에 급제하여 평양 감사가 된 김진희는 굶주림 끝에 찾아온 친구 이혈룡을 모질게 박대하고 대동강에 던져 죽이라 지시한다.	옥단춘의 구원과 원조 기생 옥단춘이 이혈룡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목숨을 구한 뒤 그가 과거 공부에 매진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정성껏 뒷바라지한다.	거지 변장과 수장 위기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된 이혈룡은 거지꼴로 돌아와 옥단춘의 신의를 시험하고 연광정 잔치에서 김진희에 호통치다 수장 위기에 처한다.	악인 처벌과 보상 은혜를 저버린 김진희는 처벌받고 이혈룡은 우의정에 오른다. 옥단춘은 정덕 부인에 봉해져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동문수학한 김진희가 평양 감사가 된 뒤 찾아온 친구 이혈룡을 대동강에 빠뜨려 죽이려 한다. 이를 본 기생 옥단춘이 이혈룡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구해낸다. 옥단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이혈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평안도 암행어사로 제수된다.
수록 핵심	이혈룡은 어사 신분을 감추고 걸인 행색으로 나타나 과거를 보지 못했다고 옥단춘에게 거짓말을 한다. 연광정 잔치에서 이혈룡은 김진희에게 호통치다 대동강에 다시 빠질 위기에 처한다. 옥단춘은 자신은 죽을 테니 낭군을 살려달라 울부짖으며 변함없는 신의를 증명한다.
수록 후	이혈룡은 마패를 들고 어사출두를 감행한다. 신의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한 김진희를 죄상에 따라 징벌하여 파직한다. 이혈룡은 평양 감사를 거쳐 우의정에 오르며 옥단춘은 정덕 부인으로 봉해져 이혈룡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핵심 소재	대동강: 이혈룡과 옥단춘이 죽을 뻔한 수난지이자 어사 출두로 응징이 벌어지는 전환점 연광정: 지배층의 호화로운 잔치가 열리는 장소이자 이혈룡의 남무함이 시각적으로 대조되는 무대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유교 윤리의 허구성과 참된 신의의 대비** 배신한 양반 김진희와 목숨 바쳐 정절을 지킨 기생 옥단춘의 행적 대비에 초점을 맞추어 출제한다.
- 자연 묘사의 서사적 기능과 시각적 대조** 호화로운 연광정 잔치의 아름다운 경치와 이혈룡의 초라한 걸인 꼴을 대비해 비극성을 고조하는 기법을 다룬다.
- 대동강에서 울리는 북소리는 이혈룡이 어사 출두를 감행하기 위해 역졸들에게 보낸 사전 약속 신호이다.** 북소리는 김진희의 명령에 따라 사공들이 두 인물을 물에 빠뜨리기를 독촉하며 치는 소리로 긴장감을 고조한다.
- 이혈룡이 빗장에게 쫓겨 가산을 팔고 과거를 보지 못했다고 탄식하자 옥단춘은 과거 제도의 모순을 고발한다.** 옥단춘은 과거 실패를 단순한 개인적 운수로 돌리며 서방님의 상처받은 체면을 지켜주고 다정하게 위로할 뿐이다.

LIT 088

작자 미상 · 수완 · 193쪽

두꺼비

B · 표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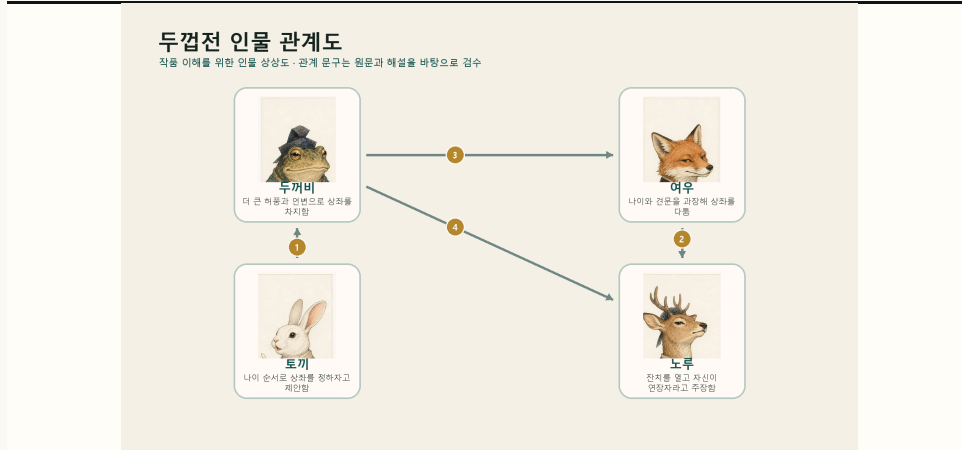
103

허풍 가득한 동물들의 서열 다툼을 두꺼비의 말재주로 풍자한 우화 소설이다.

한 문장
핵심

허례허식과 신분적 체면에만 매달려 서열 다툼을 벌이는 당대 사대부층의 허위의식과 위선적 세태를 해학적으로 비판함.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토끼 → 두꺼비: 두꺼비의 사연에 감복해 상좌로 영접함 / 여우 ↔ 노루: 나이·허풍 경쟁 / 두꺼비 → 여우: 언변으로 조롱·제압 / 두꺼비 → 노루: 상좌를 빼앗음

욕망·판단·변화

두꺼비

상좌를 차지해 자신의 지적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욕망 상대의 허풍을 부정하지 않고 더 큰 허구로 덮어씌우는 재치 구석에 엮여 있다가 눈물 연기로 판을 주도하는 승자로 변화함

여우

노루와 두꺼비를 누르고 상좌에 앉아 지식을 인정받으려는 욕망 수면 상태, 천지개벽 시기 가래 사역 등 신비한 경험과 지식 상좌를 빼앗기자 분노하여 온갖 질문으로 공격하려다 망신당함

노루

잔치 주최자로서 다른 동물들보다 높은 대접을 받으려는 욕망 굵은 허리 외양과 천지개벽 당시 별자리 도수를 분간했던 이력 자신만만하게 상좌에 앉았으나 두꺼비의 말솜씨에 밀려 양보함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노루 잔치와 좌석 다툼 명나라 옥포산에서 노루가 산속 동물들을 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나, 모인 짐승들이 예법도 없이 서로 높은 상좌에 앉겠다며 요란하게 다투기 시작한다.	전개 토끼의 제안과 나이 자랑 토끼가 나이를 뜻하는 연치를 기준으로 좌석을 정하자고 청한다. 그러자 노루와 여우가 천지개벽 시기의 일화와 자신들의 겉모습을 내세우며 나이 자랑을 벌인다.	위기 두꺼비의 거짓 나무 사연 두꺼비가 건넌것의 고향나무를 보고 슬피 우는 척한다. 자기 아들들이 그 나무로 노루와 여우가 찼다는 창조 연장을 만들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 상좌를 얻는다.	절정 여우의 구경담과 두꺼비 역공 상좌를 빼앗겨 분한 여우가 하늘에 올라 직녀성과 남극노인성을 구경했다며 허풍을 떠다. 두꺼비는 남극노인성에서 여우를 도적개로 취급해 장대로 쫓아냈다고 조롱한다.	결말 여우의 굴복과 모임 해산 두꺼비의 재치 있는 답변과 조롱에 밀려 여우의 허풍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난다. 여우는 망신만 당하고 두꺼비가 잔치를 끝내자 짐승들은 술을 마시고 흩어진다.
---	---	--	--	---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중국 명나라 옥포산에서 노루가 백호산군을 제외한 동물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베풀다. 하지만 참석한 동물들이 정해진 예법 없이 서로 높은 상좌를 차지하기 위해 소란스럽게 갈등을 겪는다.
수록 핵심	토끼의 연치 제안에 노루와 여우가 천지개벽 허풍으로 맞선다. 두꺼비가 거짓 가족사로 상좌에 오른 뒤, 여우가 직녀성과 남극노인성 구경담을 파시하자 두꺼비는 남극노인성에서 여우를 도적개라며 쫓아낸 일화로 반격하여 조롱한다.
수록 후	말재주에 밀려 망신당한 여우가 두꺼비의 외모를 깎아내리고 천문, 의학 등 학식 질문을 던지며 반격한다. 두꺼비가 이를 막힘없이 해명하여 여우를 굴복시키고 잔치를 끝내자 동물들이 해산한다.
핵심 소재	고향나무: 두꺼비가 지어낸 가상의 소재로, 아들들의 죽음을 엮어 연장자임을 속이는 도구 호패: 노루가 요구한 증표로, 분실했다는 핑계로 거짓말을 덧붙이게 하는 계기

예상 출제 추과 합정

1	동물 우화의 풍자 효과와 대상 인간의 언행을 투영한 동물들의 나이 다툼으로 당대 양반층의 권위 의식을 비판하는 방식
2	상대 논리를 역이용하는 말재주 상대가 말한 근거를 수용하면서도 한 시간대 앞선 거짓말로 우위를 점하는 두꺼비의 대화법
3	두꺼비의 눈물은 고향나무를 향한 그리움과 자식을 잃은 슬픔을 드러낸 전통적 비장미의 순간이다. 두꺼비의 눈물은 노루와 여우의 거짓 다툼에 더 큰 거짓말로 대응해 좌절을 피하는 영악한 연출이다.
4	여우의 천상계 여행담은 구술을 얻어 신체가 변화하는 영웅적 모험의 여정을 기록한 사실적 경험담이다. 여우의 하늘 구경은 두꺼비에게 패배한 후 자신을 다시 과시하고 상대를 조롱하려 꾸며낸 허구적 자랑이다.

LIT 089

황석영 원작 / 김석만·오인두 각색·수완 · 77쪽

한씨 연대기

104

전쟁과 분단 속에서 의사로서 신념을 지키고자 한 인물의 비극적인 삶.

AA · 표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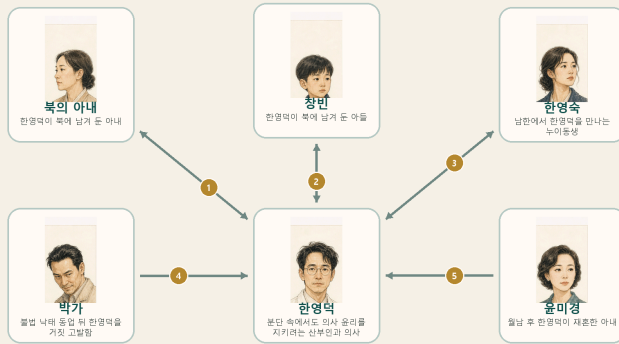
한 문장
핵심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모순 속에서 환자의 생명을 먼저 살리려 했던 의사의 직업의식과 비극.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한씨 연대기 인물 관계도

작품 이해를 위한 인물 상상도 · 관계 문구는 원문과 해설을 바탕으로 검수



한영덕 ↔ 북의 아내: 부부·분단으로 이별 / 한영덕 ↔ 창빈: 부자·분단으로 이별 / 한영숙 ↔ 한영덕: 남매·남한에서 재회 / 박가 → 한영덕: 돌입 뒤 간첩 누명 고발 / 윤미경 → 한영덕: 옥중의 한영덕에게 휴전 소식 전달

욕망·판단·변화

한영덕

이념에 굴하지 않고 눈앞의 환자를 살리는 의사의 소임 완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상태의 위급성. 북에서는 원장의 협박에 맞서고 남에서는 군의관 입대 제안을 거절한다.

원장

당의 규범과 명령에 복종하며 특별동 환자를 우선 치료하는 것. 치료 대상이 체제와 조직 안에서 지닌 이념적 계급과 정치적 지위.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한영덕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대립한다.

심문관

안보 수호를 위해 월남한 사람들 중 적의 공작 첩자를 색출하는 것. 피의자가 북한 체제에서 일했던 직책과 공산당 활동의 연관성. 군의관 입대 제안을 거절한 한영덕을 요시찰 인물로 분류해 인계한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의사 한영덕의 사명과 반동 낙인 의사 한영덕은 인민병원 특별동 담당의로 발령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보통 병동의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만 몰두한다. 이로 인해 그는 당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반동분자로 몰린다.	월남과 남한 당국의 의심 한영덕은 전쟁 중에 극적으로 살아남아 가족을 북에 남겨 둔 채 홀로 월남한다. 하지만 남한 당국은 그가 북에서 특별동에 근무했다는 이력을 구실로 삼아 그를 의심한다.	박가와 의 동업과 거짓 고발 한영덕은 월남한 누이동생을 만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무면허 의사인 박가와 동업한다. 그러나 가책을 느껴 그만두자 박가는 한영덕을 간첩으로 고발한다.	간첩 혐의 탈피와 실행 선고 한영덕은 고문 끝에 간첩 혐의는 벗는다. 하지만 불법 수술 혐의로 실행을 산다. 북역 중에 재혼한 아내에게서 휴전 소식을 듣고 절망한다.	방랑과 외로운 죽음 만기 출소한 한영덕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집을 나간다. 그는 떠돌다가 지방 소도시에서 장의사로 생을 마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EBS 지문 전반부 내용이다. 6·25 전쟁 시기 평양 인민병원에서 동료 의사 서학준은 한영덕에게 피난을 가자고 제안한다. 그는 명령을 어기면 처형된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한영덕은 의사의 사명을 내세우며 환자 결을 지킨다.
수록 핵심	교제 수록 장면이다. 미국 마셜 대장이 한반도를 자의적으로 38선으로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인민병원에서 한영덕이 원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의 수술을 강행한다. 이후 남한에서 첩자로 의심받으며 수사받는 내용이다.
수록 후	수록 장면 이후 내용이다. 한영덕은 처형 위기를 피해 홀로 월남한다. 남한에서 누이를 만나지만 박가의 거짓 고발로 고문을 받는다. 그는 실행을 살고 출소한 뒤 방랑하다가 소도시에서 장의사로 생을 마친다.
핵심 소재	마취제: 보통 병동에는 없고 특별동에만 있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상징한다. 무척조각: 아이의 몸에서 꺼낸 파편으로 전쟁의 폭력성과 비정함을 상징한다.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서사적 기법과 관객의 태도** 해설자, 차트, 역할 바꾸기 등의 장치가 관객의 감정 몰입을 막고 냉정한 관찰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양상을 이해한다.
- 인물의 가치관과 갈등의 양상** 특별동 우선을 내세우는 원장의 명령은 리와 환자의 위급성을 중시하는 한영덕의 인도주의적 신념이 충돌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 한영덕이 남한 심문관의 군의관 입대 제안을 거절한 것은 의사로서의 신념을 버린 패배주의적 행동이다.** 군의관 거절은 전쟁에 영합하여 개인의 안위를 보장받지 않겠다는 올곧은 인간 존중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선택이다.
- 마셜이 참모와 지도 위에서 동등으로 선을 긋는 장면은 분단이 초래할 개인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강대국의 자의적인 경계선 획정을 희극적으로 재구성하여 관객에게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하려는 장치일 뿐이다.

LIT 090

김민정 · 수록 · 24쪽

길삼봉언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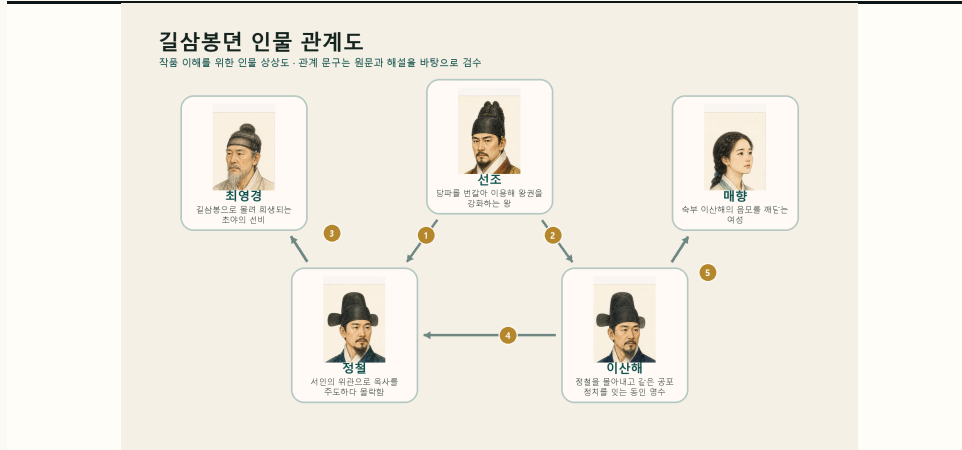
지배층의 탐욕이 빚어낸 가공의 역적 소동.

A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당쟁의 비정함과 군주의 허약한 왕권을 지키려는 공포 정치 고발.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선조 → 정철: 위관 임명 뒤 파직 / 선조 → 이산해: 새 위관 임명 / 정철 → 최영경: 길삼봉 몰아 국문 / 이산해 → 정철: 조작 서찰로 제거 / 이산해 → 매항: 숙부·정치적 이용

욕망·판단·변화

선조

신하들의 세력 갈등을 이용해 군주로서의 통제력을 얻고 왕권을 강화한다. 어떤 정파의 갈등과 소모적 전쟁이 자신의 권위 유지에 이로운가 판단한다. 정철을 사냥개처럼 부리다 효용이 다하자 유배하고 이산해를 새로 통제한다.

정철

역모 수사를 빌미로 동인 정파를 척결하고 서인 집단의 권세를 보장받는다. 자신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국가 수호라는 허상의 충정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국청에서 가혹한 심문을 이끌다 정적인 이산해의 함정에 빠져 몰락한다.

이산해

정적인 서인 세력을 일소하고 동인이 조정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권세를 잡는다. 사제 간 의리와 가문의 혈연마저 수단으로 삼을 만큼 정치적 독질을 앞세운다. 계략으로 정철을 쫓아내지만, 진실을 감추려고 조카 매항을 처형하고 최영경의 제자 임파의 허를 찌르는 등 파멸의 길로 나아간다.

결말

공포 정치의 반복과 파멸

선조는 이산해에게 다시 공포 정치를 부추기고 결국 갈육의 저항과 환영 속에 미쳐 파국을 맞이한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흥흥한 민심과 변란의 전조

조선 전역에서 기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민심이 크게 흔들린다.

전개

정여립 모반과 동인 숙청

정여립 역모 사건이 발발하자 선조는 정철에게 수사를 맡기고 동인 세력을 가혹하게 처벌하기 시작한다.

위기

최영경의 무고한 체포

정철은 실적과 봉당의 승리를 위해 실제 없는 가공의 인물인 길삼봉으로 최영경을 지목하여 투옥한다.

절정

이산해의 독살과 침수

이산해는 정철을 몰아내려고 최영경을 독살하고 진실을 폭로하려 한 매항을 죽이고 임파의 허를 자른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정여립 역모 사건을 핑계로 정철은 실체가 불분명한 역적 길삼봉을 내세워 죄 없는 동인 선비들을 가혹하게 처형하기 시작한다.
수록 핵심	정철은 최영경을 길삼봉으로 국문하나 도리어 꾸밈음을 듣고 이산해는 서찰을 위조해 정철을 내쫓은 뒤 비밀을 아는 자들을 참혹하게 입막음한다.
수록 후	위관이 된 이산해는 선조의 어명에 따라 공포 정치를 펼치며 갈육은 스스로 길삼봉이라 칭하며 저항하고 선조는 환영에 시달리다 파멸한다.
핵심 소재	길삼봉: 지배층이 정적을 숙청하고 죄 없는 선비를 주살하려 만든 가짜 역적 우두머리다. 조작된 서찰: 이산해가 정철을 매장하려 꾸민 가짜 증거로 간교한 당쟁 조정을 요약한다.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사건의 유기적인 짜임새 분석** 실제 기록육사에 길삼봉이라는 가공의 역적 설정을 녹여 지배층의 탐욕을 우의한다.
- 무대 지시문과 인물의 외양 행동을 통한 이념적 대조 이해** 만취해 국문하는 정철과 초연히 백성을 위하는 최영경의 상반된 상태를 파악한다.
- 최영경은 서인 세력의 선비로 동인의 영수 정철이 자행하는 가혹한 박해에 항거한다.** 최영경은 당파를 떠나 은거한 처사이며 정철은 서인의 대표다. 정파 이익이 아닌 민생을 위해 당쟁 자체를 꾸짖는다.
- 이산해는 가문을 수호하기 위해 정철의 간첩으로 일하며 자신을 해치려 한 매항을 법으로 처단했다.** 매항은 첩자가 아니며 이산해는 자신의 은밀한 최영경 독살 음모가 밝혀질까 봐 진실을 숨기려 조카를 무참히 살해했다.

LIT 091

박지원 · 수록 · 274쪽

능양시집서

A · 표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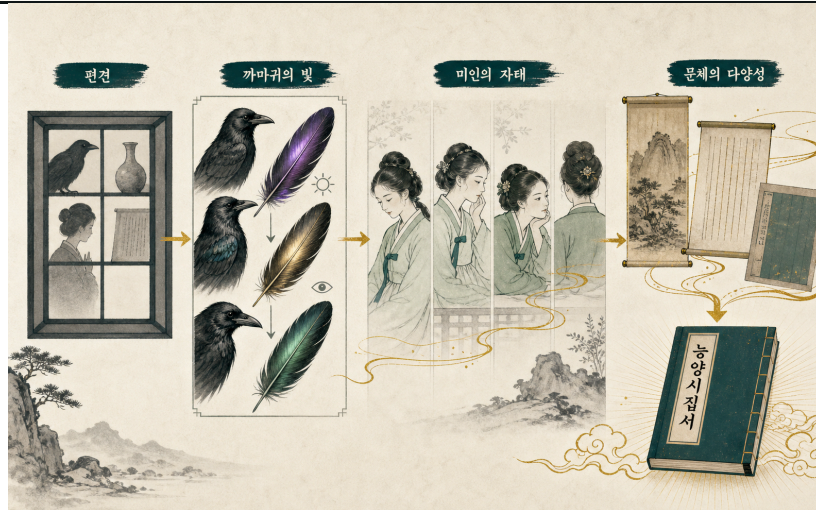
106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대상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달사의 안목.

한 문장
핵심

선입견을 극복하여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의 중요성.

생각의 이동을 한 장면으로 THOUGHT MAP



대상의 일면적인 모습을 넘어 각도와 상황에 따른 다채로운 본질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다.

발상

인식의 차이

이치에 밝아 만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달사와 달리 본 것이 적어 의심만 품는 속인의 인식을 대조한다.

관찰

속인의 편협성

백로와 물오리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까마귀를 비웃고 학의 긴 다리를 걱정하는 속인의 오류를 지적한다.

성찰

대상의 다채로움

까마귀 깃털이 빛의 각도에 따라 여러 색으로 변함을 보며 검은색으로만 고정하려는 태도를 성찰한다.

확장

예술관의 확장

미인의 자태를 단정함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억압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며 문체의 다양성 옹호로 나아간다.

결론

종선의 시 예찬

어느 한 가지 법에 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를 두루 갖춘 조카 종선의 독창적 시 세계를 긍정하며 마무리한다.

대상은 이렇게 기능한다

까마귀의 날개	대상을 고정된 카테고리로 재단하려는 편견을 깨는 사물의 입체적인 다양성과 개성이다.
미인의 자태	정형화된 가부장나 엄숙주의에 구속되지 않는 실재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이다.
조카 종선의 시	특정 격식이나 복고적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물의 조화에 순응한 유연한 창작의 경지다.

표현과 함정

달사와 속인의 대조	편협한 사물 인식의 문제점을 부각하여 독자의 반성을 이끌어낸다.
구체적인 예시와 비유	선입견 타파라는 추상적인 주장을 독자가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글쓴이는 까마귀 날개 색이 변하는 것을 들어 대상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색의 가변성은 정체성 상실이 아니라 사물이 지닌 무궁무진한 실제적 다양성을 뒷받침한다.
조카 종선이 여러 시대의 시체를 넘나드는 것을 규칙 없는 문란한 방황이라 비판하고 있다.	한 가지 법에 매이지 않고 다양한 문체의 특성을 고루 갖추어 우뚝 섰다며 매우 높이 예찬한다.

배경과 맥락

18세기 조선 후기는 성리학적 절대주의와 정통 복고 양식만을 추종하는 흐름이 거셌다. 박지원은 사물을 선입견 없이 참되게 응시하고 확립성에 저항하는 주체적 문예 사상을 지향했다.

LIT 092

윤태호 원작 / 정윤정 각색 · 수완 · 255쪽

미생

107

기본기 훈련으로 조급함을 이겨내며 성장의 참된 의미를 배우는 직장 드라마.

A · 표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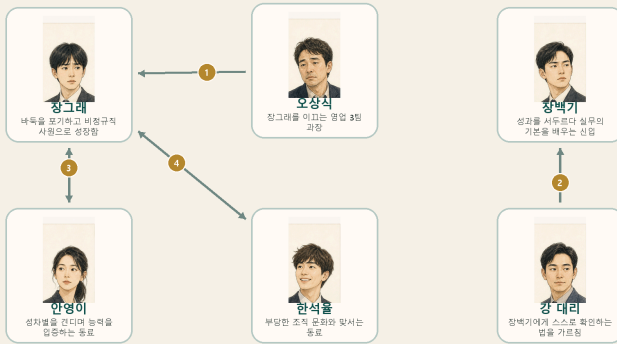
한 문장
핵심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제 몫을 다하는 기본 업무의 가치와 성찰을 통한 진정한 직장인의 자세.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미생 인물 관계도

작품 이해를 위한 인물 상상도 · 관계 문구는 원문과 해설을 바탕으로 검수



오상식 → 장그래: 상사-멘토 / 강대리 → 장백기: 선임-실무 교육 / 장그래 ↔ 안영이: 동료 인턴 / 장그래 ↔ 한석울: 동료 인턴

욕망·판단·변화

장백기

동기들과의 비교에서 뒤처지지 않고 화려한 성과를 올려 빠르게 인정받고자 한다. 신속한 기획서 제출과 화려한 성과 창출을 우선하며 선임의 기본기 훈련을 불만으로 여긴다. 실무 반려 사태를 겪으며 오만을 누우치고 사수의 따뜻한 조언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강대리

신입 사원이 과욕을 부리지 않고 목적하게 기본 파일부터 성실하게 공부하기를 바란다. 철강 팀원으로서 기본 자료를 먼저 숙지하고 정확한 서식과 줄 간격을 지키는 태도를 요구한다. 조급한 장백기에게 일관된 교육을 건넸으나 결국 야외에서 고민을 들어주며 감싸안는다.

오상식

실무에서 좌절하는 사원들의 미비점을 예리하게 포착해 해결을 돕는 선배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일정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구조화하고 식물의 인력 계산을 위해 맨먼스 수치를 정확히 기재한다. 타 부서 장백기 ~~의~~ 제안에 찬반을 반려 원인을 명확하게 돕는다. **주새로운 회사에서의 재회와 협력**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바둑 꿈의 좌절과 대기업 인턴 입사

바둑 기사 꿈을 접은 고졸 청년 장그래가 원인터내셔널에 인턴으로 들어간다. 그는 학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소외되지만 성실히 극복하려 힘쓴다.

전개

인턴 평가와 채용 결과의 명암

인턴 발표 회의를 거쳐 안영이, 장백기 등은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된다. 하지만 뛰어난 노력을 보였던 장그래는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다.

위기

부서 배치와 선임들과의 갈등

장백기는 철강 팀에 배치되었으나 선임 강대리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못한다. 그는 장그래의 성취와 비교해 소외감을 느끼며 이직을 결심한다.

절정

중국 사업의 위기와 과장위조

영업 3팀이 진행하던 중국 사업이 중간에 멈추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다. 결국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오상식 과장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떠난다.

오상식 과장이 독립하여 설립한 회사에 계약 기간이 끝난 장그래가 합류한다. 두 인물은 같은 공간에서 상생하며 함께 새로운 직장 생활을 개척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장그래와 동반 입사한 장백기는 선임 강대리로부터 하찮은 잡무만 지시받으며 소외감을 느낀다. 계약직 장그래가 인정받는 상황과 대비되자 그는 불만을 느끼고 이직을 준비한다.

수록 핵심

장백기는 자신을 미워하느냐며 강대리에게 항의한다. 강대리는 공부 없이 보고서만 내밀었던 그의 조급함을 꾸짖는다. 결재 반려를 겪은 장백기는 오상식의 세부 지적으로 기본의 중요성을 자각한다. 한강 둔치에서 강대리의 격려를 들으며 갈등을 해소한다.

수록 후

선임의 격려와 지도에 편안함을 얻은 장백기는 조급함을 버리고 철강 팀의 소중한 일원으로 정착한다. 이후 오상식 과장이 설립한 작은 회사에 장그래가 합류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핵심 소재

엘리베이터: 기본기를 수용하지 않는 장백기를 뒤로한 채 닫히며 인물 간 소통의 단절을 시각화한다. 사업 보고서: 공부 없이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려고 성급하게 들이밀어 조급한 실수를 자초하게 한 매개물.

예상 출제 측과 함정

1

장면 전환 기법을 통한 서사적 인과성의 이해 과거 장면을 삽입하는 기법이 인물의 현재 행동과 실패 원인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명하는지 감상한다.

2

인물의 공통된 침묵 행동에 드러난 심리 분석 두 장면에서 백기가 보이는 침묵이 실수의 자각과 마음의 위로라는 상이한 내면 상태를 보임을 추론한다.

3

사무실은 장백기가 상사들과 대등하게 의견을 펼쳐 위계가 사라진 민주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기여한다. 사무실은 직급의 엄격한 위계가 시작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므로 대등한 민주적 공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4

오상식 과장의 날카로운 충고는 장백기에게 무의미한 불만으로 남으며 장그래에 대한 질투를 영구화한다. 백기는 충고를 들으며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강대리가 지적한 기본기의 진정한 가치를 자성하는 계기가 된다.

LIT 093

백문보 · 수록 · 29쪽

울정설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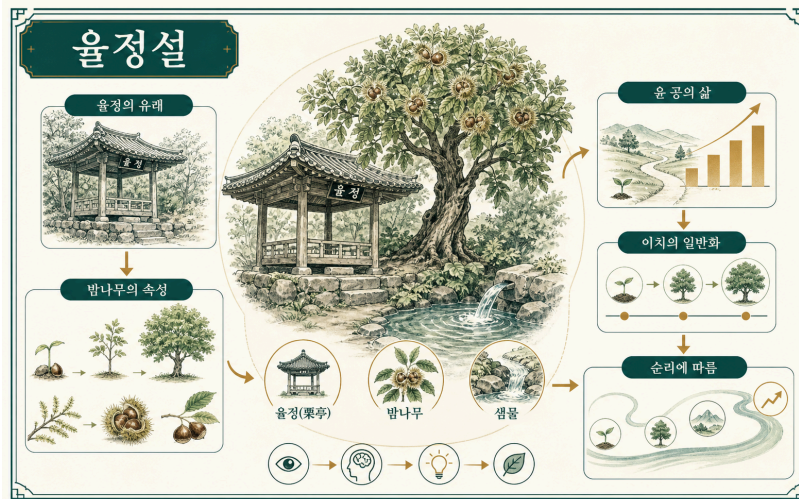
밤나무의 생태에서 대기만성의 이치를 배운다.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시작이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면 결국 큰 성취에 이를 수 있다는 이치.

생각의 이동을 한 장면으로 THOUGHT MAP



글쓰기와 울 공의 관계로, 울 공은 밤나무의 실용성을 증시하고 글쓰이는 그 생태와 삶의 유사성을 포착한다.

발상 울정의 유래 울 공이 밤나무 숲을 골라 집과 정자를 마련하고 밤나무를 고집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관찰 밤나무의 속성 가장 늦게 나고 기르기 어렵지만 일단 자라면 쉽게 성장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속성을 본다.	성찰 울 공의 삶 과거 급제와 벼슬 진출이 늦었지만 결국 빠르게 승진하여 큰 책임을 맡은 울 공의 행적을 살핀다.	확장 이치의 일반화 흙 속에 깊이 묻혀 늦게 올라오는 싹과 가득 차야 흐르는 샘물을 통해, 더디더라도 끝내 목적지에 이르는 원리를 이끌어 낸다.	결론 순리에 따름 벼슬에서 나아가 일하는 것과 물러나 삶을 수양하는 것을 자연의 순리에 따라 마무리한다.
--	---	---	--	--

대상은 이렇게 기능한다

울정(栗亭)	자연과 인간의 삶이 이치로 연결되는 성찰의 공간
밤나무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큰 결실을 이루는 대기만성적 존재
샘물	꾸준한 내실 축적을 통해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는 점진적 과정

표현과 함정

유추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을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역설적 표현	초기의 정체나 느림이 훗날 더 큰 성취를 만든다는 점을 알려준다.
글쓰이는 울 공이 마흔이 넘도록 벼슬을 하지 못한 것을 세상의 이치에 어긋난 행동이라 비판했다.	글쓰이는 울 공의 늦은 출발이 내실을 다지는 자연의 순리이며 훗날의 영달을 돕는 정당한 과정이라 긍정했다.
글쓰이가 불과 물의 예시를 든 것은 울 공이 밤나무만 고집하는 편협한 행동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불과 물의 흐름은 같은 기운끼리 만나는 필연적 현상으로, 울 공과 밤나무의 조화를 긍정하기 위한 근거다.

배경과 맥락

사물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한 기운을 공유한다는 신유학적 자연관과, 웅덩이를 채운 뒤에야 나아간다는 유교적 수양 사상을 담았다.

LIT 094

차법석 · 수록 · 217쪽

불모지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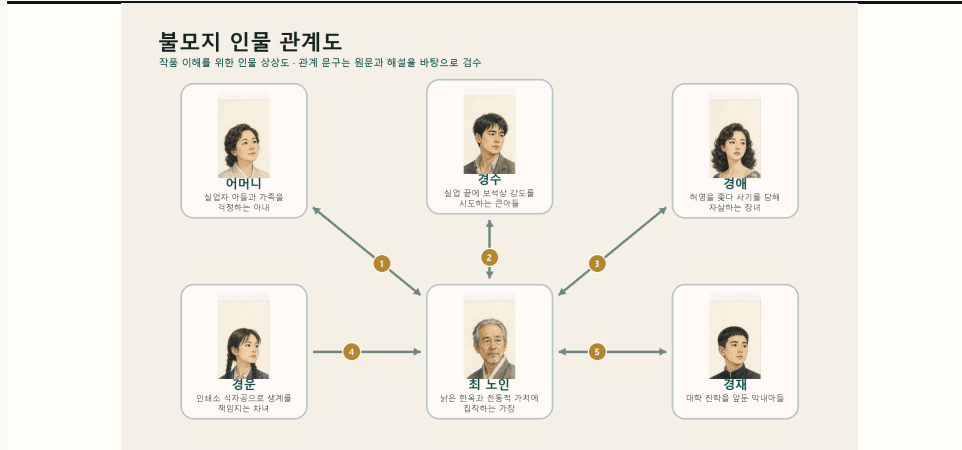
급격한 도시화로 몰락하는 가족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그린 현대 희곡이다.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관의 대립과 전통적 가족 공동체의 해체와 비극적 몰락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최 노인 ↔ 어머니: 부부·가족 부양 / 최 노인 ↔ 경수: 부자·생계 갈등 / 최 노인 ↔ 경애: 부녀·비극 / 경운 → 최 노인: 가족 생계 도움 / 최 노인 ↔ 경재: 부자·진학 문제

욕망·판단·변화

최 노인

전통적인 삶의 터전인 낡은 집을 보존하고 스스로 사업을 일으켜 자립하고자 함
대대로 내려온 기와집의 보존과 이웃 사이의 정통적인 가치 유지 자녀들이 집만 처분하려 한다고 원망하다 자립 노력이 꺾이자 희망을 포기함

경수

실업자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루빨리 취직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함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가치 획득을 최우선으로 두는 현실적인 판단 아버지가 헐 값에 집을 판다고 오판해 행패를 부린 뒤 절망하며 가출함

경재

좁고 초라한 계막지 집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하고자 함
전통적 명분보다는 개인주의적 실용성과 자신만의 학업 성취 우선 낡은 집에 냉소를 보내며 가사를 회피하다가 편의만 쟁기고 도서관으로 피한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최 노인의 한옥에 대한 애착

최 노인은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햇볕이 들지 않는 오래된 기와집을 지키려 고집한다.

전개

자녀들의 이사 요구

경제적 곤란을 겪는 자녀들은 낡은 집을 팔고 편리한 곳으로 이주하자고 아버지를 설득한다.

위기

최 노인의 자립 계획

최 노인은 집을 파는 대신 전세를 주어 마련한 돈으로 오락 게임 매장을 차리려 한다.

절정

오해로 인한 갈등 폭발

전셋값을 매매가로 착각한 장남 경수가 행패를 부려 계약이 깨지자 최 노인은 화초밭을 짓밟는다.

결말

가족의 해체와 몰락

딸 경애는 사기를 당해 자살하고 아들 경수는 강도죄로 감형가며 가족은 비극적 종말을 맞는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최 노인의 집 마당에서 막내 경재는 불편한 낡은 기와집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다. 누나 경운과 어머니는 갈등을 증대하려 애쓰지만 최 노인은 집을 보존해야 한다며 자녀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절한다.
수록 핵심	최 노인은 집을 전세 주어 게임장을 차리려 하지만 경수가 이를 매매 계약으로 오해하고 행패를 부려 무산된다. 뒤늦게 오해를 안 가족들은 허탈해하고 최 노인은 절망하여 화초밭을 짓밟는다.
수록 후	경애는 사기꾼에게 속아 좌절한 끝에 방 안에서 약을 먹고 목숨을 끊고, 경수는 무장 강도죄로 체포된다. 경운이 경애를 발견하자 최 노인을 비롯한 가족은 비통하게 절규하며 비극을 맞는다.
핵심 소재	화초밭: 최 노인이 정성 들여 키웠으나 빛을 못 본 대상으로, 좌절된 희망을 상징한다. 고층 건물: 기와집의 일조권을 빼앗는 현대식 가옥으로, 이기적인 근대화를 의미한다.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행동 지시문에 나타난 인물의 내면 파악** 과거를 회상하며의 아련함과 좌우의 높은 집을 쏘아보며의 불만 섞인 노여움의 태도 변화를 비교한다.
- 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오해 구조 분석** 이백오십만 환이라는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판단한 아들의 잘못된 태도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 경재는 허리를 쓰기 힘든 어머니의 사정을 크게 염려하여 자신이 밤늦게 직접 물을 길렀다며 약속했다.** 경재는 당장 가사를 피한 것에 기뻐할 뿐 다친 모친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려 하지는 않았다.
- 최 노인은 전세 자금으로 현재 사는 한옥 기와집의 내부 가계를 확장해 최신 오락실을 열 계획이었다.** 최 노인은 현재 기와집 전체를 전세로 내놓고 다른 공간인 종로 4가에 가게를 차리려고 생각했다.

LIT 095

윤대성 · 수록 · 222쪽

노비 문서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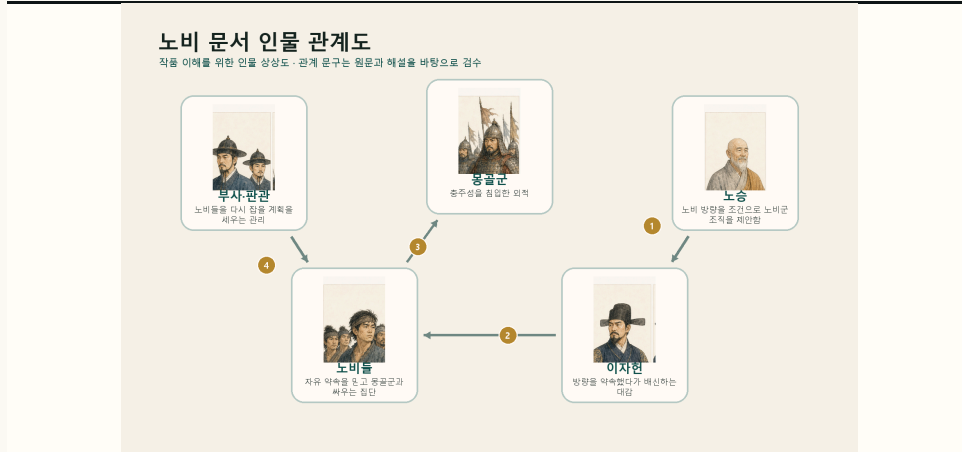
만적의 난을 모티프로 지배층의 위선과 민중의 좌절을 비판한 우의극이다.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신분 해방과 인간 존엄을 향한 민중의 열망과 기만적인 권력층에 의한 비극적 좌절을 고발한다.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욕망·판단·변화

노승

노비들이 신분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대우를 받으며 사는 세상.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과 약속을 이행하는 신의와 도덕적 인덕. 처음엔 대화로 설득하려 했으나 이자현의 배신에 좌절하며 항거한다.

이자현

사대부 기득권 보존과 천 년의 신분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함. 힘에 의한 철저한 통제와 국록을 받는 신하로서의 제도적 한계. 전쟁 때는 방랑을 허용하는 척했으나 승전 후 차갑게 약속을 저버린다.

부사

왕조의 절대적 권력 유지와 피지배층의 영구적인 희생과 복종. 왕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과 신분제를 당연시하는 기득권 의식. 방랑 제안에 격분하며 반대하다 결국 국 관군을 이끌고 항거를 진압한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몽골군의 침략과 위기 몽골군이 충주성으로 침입하자 양반과 사대부들은 성을 버리고 도망친다. 충주성은 고립될 위기에 처한다.	노비 방랑의 약속 노승은 성을 지키기 위해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는 방랑을 제안한다. 이자현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 제안을 승인한다.	승전과 장터 잔치의 금지 노비들은 힘을 모아 몽골군을 무찌른다. 이자현은 신분 질서가 혼란해진다며 노비들의 축제와 장터 놀이를 금지한다.	약속 파기와 무장 항거 이자현과 지배층은 호구조사를 빌미로 노비들을 다시 속박하려 한다. 배신감을 느낀 노비들은 분노하여 무장 봉기를 일으킨다.	관군의 진압과 투쟁의 좌절 노비들의 저항은 관군의 무력진압으로 실패한다. 강쇠의 죽음과 함께 노비 해방 투쟁은 비극적인 좌절로 끝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가혹한 노동을 겪던 노비들에게 몽골군의 침입 소식이 알려진다. 충주성을 지켜야 할 사대부들과 군사들은 가장 먼저 도망을 친다. 성안에 남은 부사와 판관이 방책을 찾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 전개된다.
수록 핵심	노승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노비들의 방랑을 주장한다. 부사와 판관은 반대하지만 이자현은 이를 수락한다. 전쟁 승리 이후 이자현은 질서 유지를 핑계로 장터의 잔치를 금지한다. 노승과 이자현은 통치권을 두고 대립한다.
수록 후	이자현과 지배층은 노비들을 속여 다시 노비 문서를 만들 계획을 세운다. 이 음모를 알아챈 노비들은 무장 봉기를 일으킨다. 그러나 관군의 무력 진압, 돌무치가 지령을 인질로 잡은 사태, 이자현마저 죽이고 처형을 강행한 부사의 배신으로 투쟁은 비극으로 끝난다.

핵심 소재

노비 문서: 신분을 규정해 자유를 빼앗고 노비들을 억압하며 옹아매는 속박의 도구다. 장터: 지배층의 속박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연대하는 공간이다.

예상 출제 추과 함정

1	이자현과 노승의 상반된 통치 사상 분석 노승이 주장하는 신의와 인덕 통치가 이자현의 힘의 통치 및 체제 유지 논리와 대립하는 세부 논거를 파악한다.
2	외적 갈등에서 신분 대립으로의 갈등 축 변모 초반의 몽골 침입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전후 약속 이행과 배신을 둘러싼 신분 간의 계급 갈등으로의 변화를 이해한다.
3	이자현이 노비 방랑을 승인한 것은 노비 제도의 오랜 폐단을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자현은 지배 질서 유지를 중시하지만, 몽골군의 침공이라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 방랑을 승인한다.
4	부사가 나라와 왕을 위해 싸우자고 외치는 장면에서 작가가 지향하는 참된 애국심이 투영된다. 부사의 외침은 백성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지배 세력의 위선을 비판하는 장치다.

LIT 096

김동리 원작 / 최금동·김강윤 각색 · 수록 · 226쪽

역마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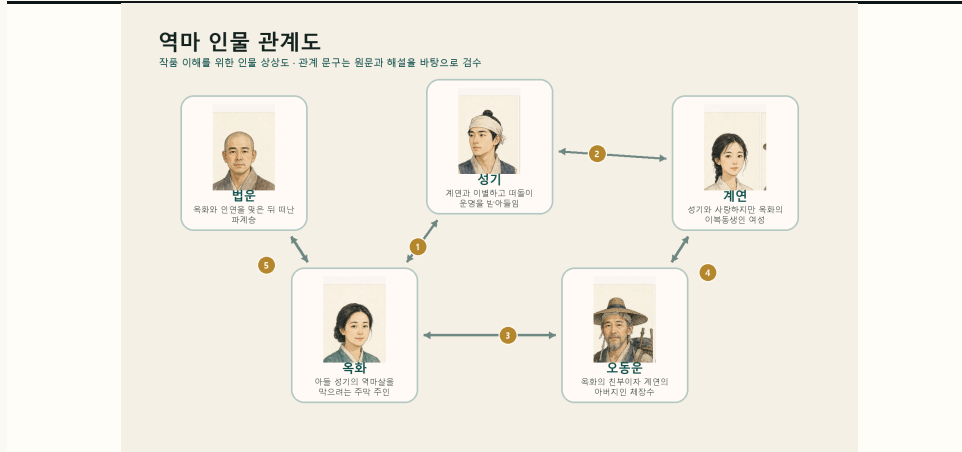
다고난 운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이야기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대립하는 운명에 대한 능동적 수용과 이를 통한 삶의 의지 회복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옥화 ↔ 성기: 정착 바람·떠나보냄 / 성기 ↔ 계연: 사랑·혈연으로 이별 / 오동운 ↔ 옥화: 부녀 / 오동운 ↔ 계연: 부녀 / 법운 ↔ 옥화: 과거의 인연

옥망·판단·변화

성기

계연과 혼인하여 역마살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삶을 원한다. 사랑하는 여인과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 의지다. 이별의 절망을 딛고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길을 떠난다.

옥화

아들의 역마살을 잠재우고 주막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아들의 불행을 막으려는 모성애와 천륜을 지키려는 마음이다. 인간의 힘으로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아들의 뜻을 존중한다.

계연

성기와 결혼하여 정착하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성기를 향한 깊은 사랑과 부친의 뜻에 따르는 순종적인 태도다. 성기가 자신을 붙잡지 않자 실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따라 여수로 떠난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성기의 역마살 걱정

옥화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려고 애쓴다. 어느 날 체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주막에 찾아온다.

전개

성기와 계연의 사랑

옥화는 성기와 계연을 맺어주려 한다. 두 사람은 함께 지내며 서로 깊은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간다.

위기

깃바귀의 사마귀 발견

옥화는 계연의 귀에서 사마귀를 발견한다. 계연이 자신의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옥화는 고민에 빠진다.

절정

출생의 비밀과 이별

동운이 옥화의 친부로 밝혀진다. 성기와 계연은 혈연관계로 인해 헤어지고 성기는 충격을 받아 병석에 눕는다.

결말

운명 수용과 유랑

성기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병이 나은 뒤 옛목관을 매고 방랑의 길인 하동길로 떠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옥화는 계연의 귀에 있는 사마귀를 보고 그녀가 자신의 이복동생임을 확신한다. 옥화는 결국 인륜적 제약을 넘지 못하고 동운과 계연을 주막에서 떠나보낸다.
수록 핵심	계연이 떠난 뒤 성기는 절망에 빠져 앉아눕는다. 옥화는 누워 있는 성기에게 계연과의 관계가 이복이모라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비밀을 안 성기는 미움을 먹고 옛관을 요구한다.
수록 후	기운을 차린 성기는 세 갈래 길에 서서 고민한다. 계연이 떠난 구레 길 대신 방랑의 운명을 상징하는 하동 길을 선택한 성기는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길을 떠난다.
핵심 소재	역마살: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해야 하는, 인간이 거스르기 힘든 초월적 운명이다. 삼거리: 과거에 대한 미련과 새로운 삶의 선택을 눈앞에 둔 인생의 기로를 상징한다.

예상 출제 축과 함정

- 공간과 계절적 배경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 파악** 삼거리의 갈래 길과 기후의 변화가 인물의 비극적 갈등 상황 및 운명 수용이라는 극적 주제와 맺는 상관관계를 평가한다.
- 인물 행동과 지시문을 통한 내면 심리 추론** 성기의 침묵과 눈물, 기운을 차린 후의 옛목관 요구 등 인물의 외양 행동에 드러난 구체적 내적 동기와 정서 변화를 정확하게 추론한다.
- 성기가 앓아누운 진짜 이유는 옥화가 계연을 주막에서 강제로 쫓아냈다는 원망과 배신감 때문이다.** 성기가 누운 것은 계연과의 비극적 이별로 인한 절망 때문이며, 옥화에 대한 원망이나 오해 때문이 아니다.
- 성기가 옛관을 맞춰 달라고 요구한 것은 역마살을 이겨내고 화계 장터에 정착하여 살겠다는 뜻이다.** 옛관은 떠돌이 삶을 상징하므로, 이는 역마살을 수용하여 방랑의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준다.

LIT 097

김금원 · 수특 · 234쪽

호동서락기

B · 표시만

112

남장을 하고 세상을 유람하며 주체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한문 기행문이다.

한 문장
핵심

규범의 한계를 벗어나 천하를 유람하며 얻은 주체적인 깨달음과 넓어진 안목 및 대자연의 풍류

생각의 이동을 한 장면으로 THOUGHT MAP



사회적 규범에 타협하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의 지혜를 널리 펴고자 하는 주체성을 보여준다. 명승지에서 느끼는 기쁨을 역사의 인물들과 견주어 성찰함으로써 풍부한 인문학적 식견을 바탕으로 세상을 관찰한다.

발상

여성 규범에 대한 회의와 유람 결단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규범과 집안 신분의 제약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하늘이 준 지혜를 직접 넓히기 위해 스스로 남장 유람을 결정한다.

관찰

한양 도성의 웅장한 기세

도성을 지키는 삼각산과 백악산의 지세를 조망한다. 궁궐의 상서로운 기운과 변화한 거리를 지나가며 한양의 활기찬 모습을 생생히 살핀다.

성찰

역사적 유적에서의 사유

세검정과 탕춘대를 살피며 옛 장수의 무공을 기리는 글자와 임금의 현판 글씨를 감상한다. 험준한 요새를 마련해 후세를 걱정할 선왕의 뜻을 기린다.

확장

백석실의 그윽한 정취

꽃잎 가득한 섬돌과 닫힌 문이 있는 별장에서 자연을 마주한다. 세속의 온갖 고뇌와 괴로움을 씻어내며 신선이 사는 듯한 기쁨을 느낀다.

결론

자연의 진정한 소유 자각

산과 강은 세속의 특정 주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 즐기는 풍류객이 참된 주인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대상은 이렇게 기능한다

한양의 산세	적들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굳건한 요새이자 도성의 뛰어난 지리적 안전성을 상징한다.
세검정과 현판	전란과 무공의 자취를 담고 있으면서 세월을 견디며 사라지지 않는 문화적 가치를 상징한다.
백석실	세상의 명예나 지위 등의 잡념을 모두 지우고 신선처럼 노닐 수 있는 무아지경의 장소이다.
재갈	여성과 서열의 능력을 가두던 당대 봉건 사회의 부당한 규범과 신분 한계를 뜻한다.

표현과 함정

한시의 삽입	유람의 기대감과 자연의 기쁨을 함축적인 시적 언어로 응축하여 나타낸다.
역사적 고사와 인물 인용	자신의 기행을 당위적으로 변호하고 지리적 가치를 증명하며 박식을 드러낸다.
세검정 바위의 해진 글자를 관찰한 화자는 인생의 덧없음에 비통해하며 서둘러 유람을 접고 귀향하려 한다.	화자는 마모된 글자를 시각적으로 묘사했을 뿐 무상감에 젖어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임금의 글씨를 긍정적으로 예찬한다.
자신의 결심을 부모에게 밝히자 부모는 화자의 기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기행을 후원하였다.	화자가 여러 차례 간청을 올린 끝에 한참이 지난 뒤에야 겨우 허락을 받았다는 구절이 있으므로 사실과 어긋난다.

배경과 맥락

19세기 조선은 가부장적 억압과 신분적 불평등이 확고하였다. 김금원은 서열 출신 여성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스스로 남장이라는 선택을 실천하여 자연을 벗하며 활발한 글쓰기를 남긴 선구적 자아를 보여준다.

LIT 098

김석주 · 수특 · 238쪽

해갑와기

B · 표시만

113

좁은 집을 다스리며 참된 내면의 크기를 키우는 한문 수필이다.

한 문장
핵심

소박한 집에 안주하지 않고 내면의 수양과 사회적 구제를 실천하는 자세를 권함.

생각의 이동을 한 장면으로 THOUGHT MAP



글쓴이는 직접 가보지 않고도 당호에 담긴 뜻을 생각한다. 물리적 공간의 넓이가 아니라 도덕과 인성의 깊이를 참된 척도로 설정한다.

발상 제왕의 집에 대한 인식 대비 소박한 집과 화려한 궁전을 대조하며 마음의 만족이 크기를 결정함을 깨닫는다.	관찰 해갑와라는 당호의 가치 발견 벼 홍언명이 지은 집의 이름을 듣고 그가 지닌 안분지족의 태도에 주목한다.	성찰 비유와 고사를 통한 좁음의 재해석 돌피 같은 몸에 비해 집은 넉넉하고 달팽이 뿔의 다름에 비해 온전함을 안다.	확장 학문과 사업의 절대적 확장 강조 주거 공간은 클 필요가 없으나 군자의 학문과 사업은 커야 함을 선언한다.	결론 두보의 뜻을 빌린 이타적 다짐 벼이 좁은 개막지 집에서도 학업에 힘써 나라에 등용되고, 가난한 선비들을 품을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
---	--	--	---	---

대상은 이렇게 기능한다

해갑와 (蟹甲窩)	외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덕을 닦는 공간을 뜻한다.
화려한 궁전	끝없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무지를 보여준다.
달팽이의 뿔	하찮은 세속적 가치를 두고 싸우는 세상 사람들을 비판한다.
넓은 집 천만 칸	세상의 가난한 선비들을 두루 구제하는 공적인 포부를 상징한다.

표현과 함정

대조법	자족하는 태도와 탐욕스러운 마음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인용법	글쓴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주제를 인격적으로 심화한다.
글쓴이는 벼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궁핍함을 눈으로 직접 본 뒤 가난을 가엾게 여겨 도왔다.	글쓴이는 한번도 그 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당호만 듣고 상상하여 격려를 남겼다.
두보의 천만 칸 구절은 홍언 사적 이익이 아닌 궁핍한 선비들을 감싸주는 웅장한 도명이 장차 벼슬을 얻어 큰 부덕적 기량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동산을 얻으라는 조언이다.	

배경과 맥락

당대 사대부들이 주거 환경이나 길치레를 화려하게 꾸미는 풍조를 경계하고자 했다. 이 기문을 통해 군자가 본래 지향해야 할 학문적 도리와 가난한 백성을 덮어주는 구제적 사명을 다시 세우고자 한 뜻이 담겨 있다.

LIT 099

이상 · 수록 · 241쪽

산촌 여정

B · 표시만

114

도시인의 시선으로 낯설게 포착한 산촌의 정경과 짙은 고독감이다.

한 문장
핵심

산촌의 이국적인 풍경 체험과 도회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및 도시 지식인의 쓸쓸한 고독감이다.

생각의 이동을 한 장면으로 THOUGHT MAP



전통적 자연을 예찬하기보다 세련된 도시인의 감수성으로 이국적이고 낯설게 관찰한다.

발상

산촌의 한밤중

맑은 공기와 쏟아지는 별빛 아래 객룻집 방에서 불빛을 보며 소년 시절을 떠올린다.

매개

베짱이 소리와 연상

연둣빛 베짱이 소리를 들으며 도시의 여차장 소리와 이발소 가위 소리를 떠올린다.

성찰

상념과 가족의 꿈

도회 소녀의 꿈을 꾸다가 서울에 남겨둔 가난한 식구들이 걱정을 시키는 꿈을 꾸다.

발견

아침 화단의 화초

아침에 화단에서 붉은 맨드라미와 봉선화의 강렬한 생명력을 느끼며 원기를 얻는다.

대상은 이렇게 기능한다

성천 산촌

화자에게 감각적 활기를 주면서도 도회와 떨어진 단절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

도회

가난과 책임의 부담이 있으면서도 가족이 기다리는 그리운 공간이다.

베짱이

산촌의 작은 소리를 여차장과 이발소 가위 같은 도회의 생활음으로 이어 주는 연상의 매개다.

아침 화단

화자에게 잠시 원기와 감각적 활기를 주지만 고독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다.

표현과 함정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근심을 사물처럼 그려내어 정서를 선명히 전달한다.

이국적이고 이색적인 비유

향토적인 산촌 풍경을 도회적이고 근대적인 감각으로 낯설게 재창조한다.

산촌의 별들을 보고 도회의 세속적인 근심과 책임감을 말끔히 씻어버렸다고 해석한다.

화자는 밤마다 도회에 두고 온 가난한 가족들을 떠올리며 걱정하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베짱이 울음소리를 이발소 가위 소리에 비유한 대목을 청각의 시각화로 보고 감상한다.

이것은 청각을 인공적인 도시의 소리에 비유한 것일 뿐 감각이 전이된 공감각은 아닙니다.

배경과 맥락

향토적 산촌을 외래어와 기계 이미지로 낯설게 바라보는 모더니즘 수필이다. 작가의 요양 배경은 참고할 수 있지만 발췌본문이 구체적인 질병을 직접 말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LIT 100

이상 · 수특 · 243쪽

권태

B · 표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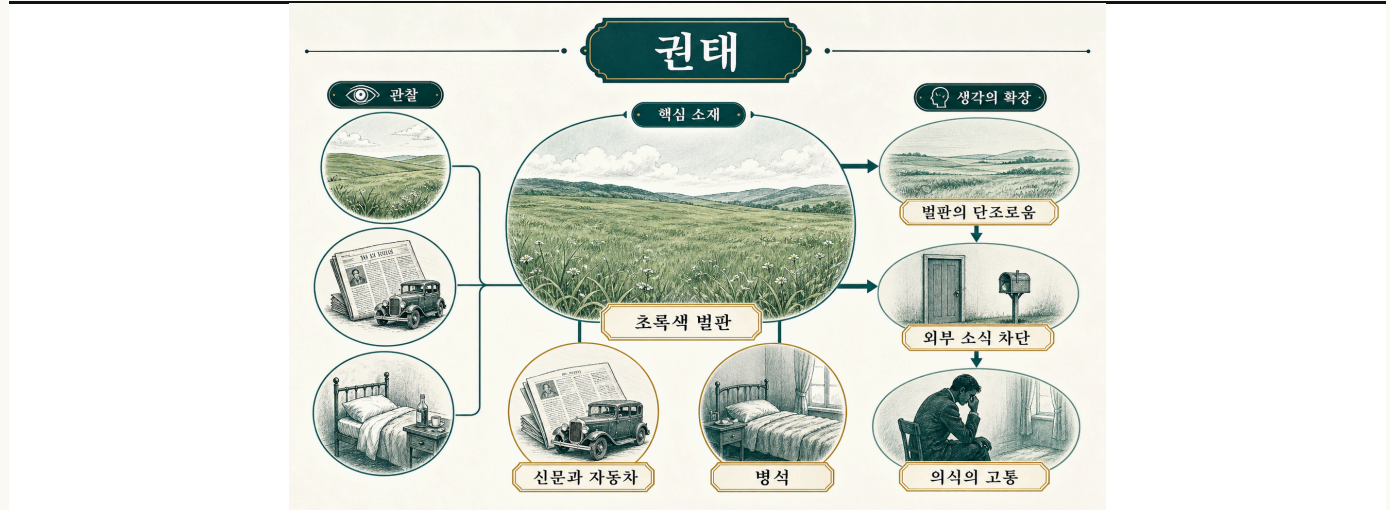
115

단조로운 벌판에서 직면하는 지독한 권태다.

한 문장
핵심

단조로운 벽촌 생활에서 느끼는 절대적인 무료함과 현대 지식인의 실존적 고뇌다.

생각의 이동을 한 장면으로 THOUGHT MAP



자연에 예찬하는 전통적 시선에서 벗어나 자극 없는 환경을 무료함과 소외감으로 인식한다.

발상

벌판의 단조로움

온통 초록색뿐인 벌판과 변화가 없는 산을 보며 지루함을 느끼고 밤이 오기를 바란다.

매개

외부 소식 차단

신문도 오지 않고 승합자동차도 다니지 않아 도회의 소식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답답해한다.

성찰

의식의 고통

감각이 멈춘 듯한 상황에서도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병석에서 번민을 이어간다.

대상은 이렇게 기능한다

초록색 벌판	시각적 변화가 전혀 없어 극심한 지루함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신문과 자동차	현대 문명과 소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고립의 증거물이다.
병석	몸은 쉬고 있지만 정신은 쉬지 못해 번민을 키우는 공간이다.

표현과 함정

영탄적 어조	단조로운 자연 풍경에서 느끼는 화자의 무료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극단적 과장	아무런 자극이 없는 고립 상태의 답답함을 극대화하여 보여준다.
신문과 승합자동차가 오지 않는 벽촌의 환경에 자족하며 안빈낙도의 태도를 보여준다.	화자는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지독하게 답답해하며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안빈낙도가 아니다.
초록색 벌판의 단색을 묘사하여 인공적 도시에 몰들지 않은 자연의 순수성을 동경한다.	초록색 일색인 풍경에 지루함을 호소하는 구절이므로 자연의 예찬이나 순수성 동경이 아니다.

배경과 맥락

작가가 성천에서 요양하며 느낀 고독을 담은 고백적 수필이다. 전통적 자연 예찬에서 탈피하여 산촌을 문명과 차단된 권태의 공간으로 그려낸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이다.

LIT 101

이침 · 수특 · 246쪽

응계설

B · 표시만

116

다친 닭의 울음으로 지배층의 위선과 무책임을 비판하는 수필이다.

한 문장
핵심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임금의 편협한 태도와 신하들의 비겁한 방조에 대한 비판

생각의 이동을 한 장면으로 THOUGHT MAP



글쓴이는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아야 한다는 민본주의 관점을 취한다. 지배층의 일시적이고 주관적인 측은지심을 무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 임금과 신하의 직무 유기를 엄격하게 평가한다.

일화 환기

다친 닭과 응방 혁파

매의 먹이로 다쳐 거의 죽어 가던 닭이 자루 속에서 울자 임금이 측은히 여겨 응방을 혁파한 일을 제시한다.

백성의 실태 대조

백성들의 고통과 피해

매사냥을 위해 고통받고 목숨을 잃으며 곡식까지 짓밟히는 백성의 고통을 다친 닭의 울음과 대비하여 고발한다.

통치자의 편협성 비판

임금의 편협한 태도

중국의 고사와 경전을 인용하여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지 않고 미물에만 반응하는 위정자의 편협함을 비판한다.

신하들의 비겁함 규탄

신하들의 뒤늦은 개혁

임금의 노여움이 두려워 간언하지 못하다가 임금이 유배를 가던 도중 죽은 뒤에야 응방을 없앤 비겁함을 규탄한다.

대상은 이렇게 기능한다

다친 닭	임금의 즉흥적이고 편협한 자비심을 부각하는 매개체이다.
응방(鷹坊)	백성의 생업을 방해하고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 부조리한 기구이다.
악양(岳陽)	신하들의 늦은 개혁과 책임 회피를 보여주는 시간적, 공간적 계기이다.

표현과 함정

대조적 상황의 배치	백성을 돌보지 않는 지배층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성품을 선명하게 비판한다.
설의적 의문문의 활용	독자의 동의를 유도하고 지배층의 폐단을 한층 더 강조한다.
임금은 백성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하들과 정략적으로 타협하여 응방을 신속히 혁파했다.	임금은 닭의 울음에 잠시 측은지심을 보였을 뿐이다. 응방은 신하들이 간언을 미루는 사이 유지되다가 임금이 유배 도중 죽은 뒤에야 폐지되었다.
신하들은 임금의 처형 위협에 맞서 상소를 올리고 적극적으로 응방 폐지를 건의하였다.	신하들은 노여움을 사서 죽을까 두려워 왕의 재위 중에 간언하지 못하고 뒤늦게 폐지했다.

배경과 맥락

고려 후기 충혜왕 대는 왕실의 사치와 매사냥으로 인해 민생이 매우 척박했다. 작가 이침은 맹자의 민본주의적 정사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는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해야 하는 통치자의 애민 의식과 신하들의 목숨을 건 간언 의무를 일깨우고자 했다.

LIT 102

이항복 · 수필 · 256쪽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B · 표시만

117

고통을 이겨내고 얻은 맑은 마음과 깊은 사유로 시를 짓는다.

한 문장
핵심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참된 시에 담긴 맑은 생각의 중요성을 성찰한다.

생각의 이동을 한 장면으로 THOUGHT MAP



시 창작의 고됨을 귀하게 여기고 맑은 사유를 중시하는 이성적 태도다.

의문 제기

시의 가치에 대한 원초적 의구심

글쓴이는 남을 잠시 기쁘게 하는 시를 사람들이 왜 귀하게 여겨서 기뻐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비교 및 관찰

소리를 내는 삼자의 노고 대비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는 벌레나 마음이 편한 광대와 달리 시인은 온 감각을 다해 한 구를 지어내야 한다.

현실과 괴리 파악

대우의 차등과 내적 모순

글쓴이는 세상이 시인을 가장 대접하는 모습에 모순을 느끼고 시를 멀리하려 하지만 결국 좋은 시에 매료된다.

허균의 비판

불교적 장식에 치우친 시풍 우려

글쓴이는 학문에 통달한 허균이 도리를 담은 대신 시를 불교로 장식하여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림을 지적한다.

의미 획득

사유와 시의 유기적 본질성

글쓴이는 생각과 시의 가치적 관계를 물과 얼음에 비유하며 맑은 마음과 깊은 사유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대상은 이렇게 기능한다

풀벌레	정신적 고통과 인위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다.
마루와 마당	창작의 고뇌와 수고로움의 정도에 따라 세상이 부여하는 귀천을 나타낸다.
벼와 잡초	유교의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도리 대신 불교 사상에 기대어 어리석은 모습이다.
물과 얼음	보이지 않는 생각이 시로 굳어지고 독자가 시를 읽으며 다시 생각하게 된다.

표현과 함정

대조법	시를 짓는 일이 지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효과적으로 부각한다.
직유법	시를 멀리하려고 다짐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깊은 애정을 표현한다.
시인은 하늘의 자연스러운 질서와 천기에 의존하므로 벌레나 광대보다 쉽게 창작에 도달한다.	시인은 온 감각을 짜내고 오장육부를 소모하여 고통스럽게 시를 지으므로 저절로 소리 내는 벌레와 다르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된다는 구절은 내면의 사유가 언어로 굳어지면 다시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한다.	얼음이 녹아 다시 물이 되듯 시를 읽으면서 독자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므로 틀렸다.

배경과 맥락

조선 중기의 유학자 이항복은 송유억불의 지배 이념을 지녔다. 그는 학문이 뛰어난 허균이 불교에 경도되어 시를 짓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서문을 청탁받은 기회를 통해 그의 불교 편향적인 시풍을 단호히 훈계한다.

LIT 103

이학규 · 수특 · 278쪽

박꽃이 피어난 집

B · 표시만

118

유배지 처소의 고통을 대화와 인식 전환으로 극복하는 수필이다.

한 문장
핵심

주어진 처지와 운명을 순리에 따라 수용하는 태도의 중요성과 삶의 임시성에 대한 성찰

생각의 이동을 한 장면으로 THOUGHT MAP



하소연하는 글쓴이와 가르침을 주는 객, 배움의 대상이 되는 머슴이 대조적인 관계를 이루며 글쓴이의 성찰을 유도한다.

고통의 하소연

처소의 열악함과 질병

글쓴이는 좁고 무더운 유배지 처소에서 벌레와 뱀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마음에 걱정이 쌓여 소갈병과 우울증을 얻고 괴로워한다.

타인의 경험 청취

여관에서 겪은 고초

가난하여 장사를 하던 객이 여름날 뽀뽀는 여관방에서 겪은 소란스럽고 불결한 일화들을 글쓴이에게 들려준다.

대조를 통한 성찰

머슴의 편안한 태도

객은 열악한 여관 자리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단잠을 자고 건강을 유지하는 머슴들의 삶을 전한다.

비유와 이치의 지각

인생의 여관 비유

세상은 하룻밤 묵는 여관이고 유배지는 그 속의 여관이다. 글쓴이는 머슴보다 주어진 처지에 순응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본다.

인식 전환과 기문 정리

벽면에 새긴 깨달음

글쓴이는 객과의 대화에서 얻은 성찰을 정리하여 벽에 써 붙인다. 그리고 이 집의 기문으로 삼아 스스로를 다스린다.

대상은 이렇게 기능한다

내가 사는 집 (박꽃이 피어난 집) 처음에는 고통의 공간이었으나, 벽에 깨달음을 써 붙여 스스로를 반성하는 성찰의 공간이 된다.

여관집 머슴과 종 주어진 처지를 운명과 분수로 수용하여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여관 (館)과 여관 속의 여관 (館中之館) 인생과 유배 생활의 한시성을 드러내어, 고난 역시 일시적일 뿐이므로 집착을 버려야 함을 상징한다.

표현과 함정

대조 기법 지식과 실천의 어긋남을 드러내 글쓴이의 자성을 이끈다.

은유와 비유 유배의 고통도 잠시 거쳐 가는 일임을 깨닫게 한다.

글쓴이의 병은 뱀과 해충이 내린 천벌이며, 기문은 하늘의 노여움을 푸는 제의적 글이다. 병은 열악한 환경과 불만이 겹쳐 생긴다. 기문은 천벌을 푸는 글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기록이다.

객이 신분별 방 배치를 말한 것은 계급제를 폭로하고 평등한 근대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다. 여관의 방 배치는 당시 객지 생활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를 계급제 철폐 주장으로 읽으면 비약이다.

배경과 맥락

작가 이학규는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경상도 김해에서 24년간 유배 생활을 하였다. 이 작품은 유배의 시련을 충군이나 지조 같은 관념으로 미화하지 않는다. 생활 주변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그리며 내면의 자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수필의 변화를 보여준다.

LIT 104

이강백 · 수완 · 197쪽

물고기 남자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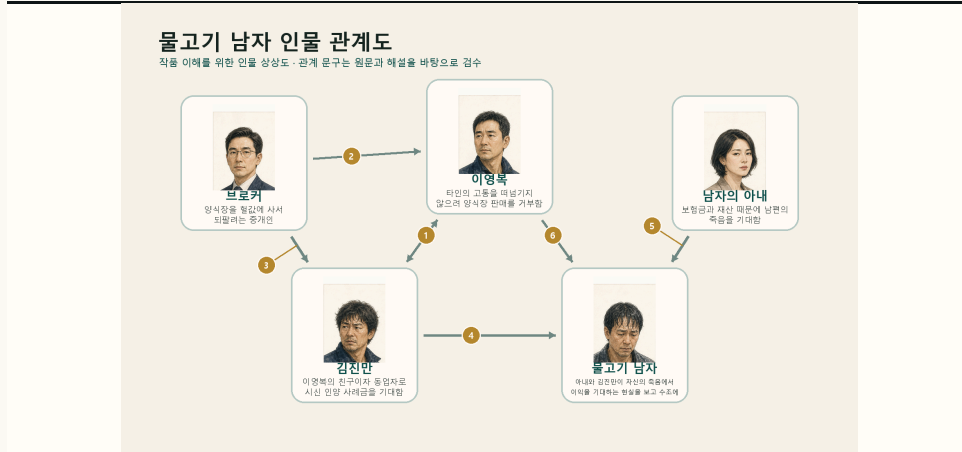
적조로 망한 양식장 매각을 거절하는 이영복의 선택을 그린 희곡이다.

B · 표시만

한 문장
핵심

돈을 위해 인간성을 저버리는 태도를 비판하고 타인의 고통을 나누는 연대 가치를 옹호함

인물관계도 PORTRAIT MEMORY MAP



이영복 ↔ 김진만: 친구-양식장 공동 투자 동업자 / 브로커 → 이영복: 혈값 매각 종용 / 브로커 → 김진만: 혈값 매각 종용 / 김진만 → 물고기 남자: 시신 인양 사례금 기대-생존자 발견 / 남자의 아내 → 물고기 남자: 부부-보험금 때문에 죽음을 기대 / 이영복 → 물고기 남자: 죽음
을 바라지 않음-죽음 뒤 윤리적 각성

욕망·판단·변화

이영복

자신이 겪은 손해와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 전혀 모르는 타인의 고통과 기쁨도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생각 침묵을 지키다가 소유권을 얻은 뒤 매각 거부와 연대 의사를 밝힌다.

김진만

양식장 실패로 잃은 손해를 만회하고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원금의 십분지 사 이상을 받아내 경제적 대가를 확보하겠다는 판단 브로커와 버티며 맞서다가 보상금 추궁을 받자 지분을 넘기고 떠난다.

브로커

양식장을 혈값에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되팔아 이득을 취함 중간에서 양편의 원망을 대신 받아주는 편리한 중개 역할의 유용성 이영복을 회유하려다 타인을 위해 매각을 거절당하자 어리둥절해한다.

전체 줄거리 FIVE BEAT STORY

발단

양식장 투자 실패와 가난

김진만과 이영복은 브로커에게 속아 양식장에 공동 투자하지만 적조 피해로 실패하여 막막한 생활고에 부딪힌다.

전개

관광선 침몰과 매각 독촉

인근 바다에서 관광선 침몰 사고가 일어난 뒤 브로커가 찾아와 양식장 매각 여부를 즉시 결정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다.

위기

시체 보상금을 둘러싼 의혹

브로커는 김진만이 보상금을 노리고 실종자 시체를 찾으려 했다고 의심하며 돈 때문에 인간성을 잃은 세태를 비판한다.

절정

지분 포기와 이영복의 인수

김진만은 제안받은 혈값에 불만을 품고 결정을 미룬 뒤 자신의 지분을 이영복에게 처분하고 양식장을 떠난다.

결말

매각 최종 거부와 연대

혼자 남은 이영복은 양식장을 넘기면 다른 매수인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여 매각을 거부하고 연대 의식을 선언한다.

수록 장면의 전후 맥락

수록 전 김진만과 이영복은 브로커에게 속아 양식장에 공동 투자하였으나 적조 피해를 입고 파산하여 가난한 생활을 이어간다.

수록 핵심 브로커가 찾아와 양식장 매각을 다그치며 시체 보상금에 매달리는 세태를 지적한다. 김진만은 지분을 이영복에게 처분하고 떠난다. 이영복은 다음 매수인이 볼 손해를 걱정하여 매각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수록 후 이영복은 중간 중개자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래를 거절하고 타인의 아픔을 나누는 책임을 결단하며 무대에 남는다.

핵심 소재 양식장: 실패한 투자처이자 이영복이 타인의 손해를 막기 위해 지켜내는 공간이다. 실종자 시체와 보상금: 인간의 생명을 물질적 가치로 계산하며 다투는 타락한 현실을 의미한다.

예상 출제 추과 함정

- 1** **이기적인 태도와 이타적 태도의 대조 이해** 타인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이영복의 행동을 통해 속물적 태도와 선량함의 대립을 파악한다.
- 2** **소재의 상징적 의미 분석** 양식장과 시체 보상금이 어떻게 현대인의 비정함과 타락한 물질주의를 상징하는지 이해한다.
- 3** **이영복이 양식장을 처분하지 않는 이유는 적조가 해소된 후 비싸게 되팔기 위해서다.** 이영복은 다른 매수인이 입을 손해를 걱정해 매각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익 계산이 아니다.
- 4** **브로커는 이영복의 이타적 가치관에 감화되어 자신의 반인간적 행동을 반성하며 물러난다.** 브로커는 이영복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하므로 반성하고 물러선다는 서술은 틀리다.